

이매옥 깨달음과 나눔 대표이사
불법을 알면 나누는 삶
실천하게 되죠
16 · 17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1월 23일) · 주간

제972호 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잡보장경〉

사나우면 남이 꺼리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 · 나약함 버려 중도를 지켜라

# 정부 문화재 감사, 불교계 '예의 주시'

## 본사주지協, 긴급 회의
## 9인 대책위원회 구성

### "향후 상황 지켜볼 것"
### 문화재 관리 개선 추진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2월 18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과 경찰의 문화재 실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경찰과 감사원이 진행하는 전국적인 문화재 보수 실태 감사에 대해 불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와 문화재 보수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경찰과 감사원이 밝히고 있지만 몇몇 사찰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내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 이하 본사주지협)는 12월 18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이날 회의에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경찰, 감사원 등 전국적인 문화재 보수 실태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지켜보고자 한다"며 "일선 사찰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의도에 대해 총무원과 함께 모든 교구본사는 강력히 공동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본사주지협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상황에 대응키로 했다. 대책위원회에는 본사주지협회장 돈관 스님(은해사 주지), 부회장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종훈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문화부장 혜일 스님 등 9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현실적인 문화재 보수 환경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주지 스님들은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켜오면서도 국고보조금을 구걸하듯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으며, 법 제도를 개정 방향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원 등 정부 기관의 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모든 문화재 사찰을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대응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민간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면서 "일선 사찰에 이를 인지시키고 대응하는 방안을 정리해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재 비리 문책 지시와 국회 의결로 이뤄지는 감사원 감사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내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9개 광역지자체와 200여개 관련 사업 등이다.

경찰청 수사는 경찰관서에 문화재 관련 비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자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문화재 관리 및 유지 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문화재 도굴, 장물취득, 밀반출 행위 등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교 · 기독교, 서로 존중합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성탄을 맞아 12월 18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사회부장 보화 스님,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조계사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와 과장 전성수 목사, 안동교회 황영태 목사 등이 참석해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다양한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정혜숙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 "다라국 문학상 당선 포기하라"

### 불교계 · 지역 문인들 잇달아 문제 제기… 문학상 운영 당선자 관여 의혹도

역사 왜곡과 불교 폄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을 문학상 수상작으로 제정해 물의를 빚은 제1회 합천 다라국 문학상이 당선자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해)는 12월 17일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이미 11월부터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에 대한 참가자 일부의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5일 시상식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픽션으로 구성되는 소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역사 소설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작가 스스로 밝힌 주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심각한 추정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문인협회 합천지부도 12월 16일 성명서를 내고 절차상 하자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장했다.

문협 합천지부는 성명서에서 "그간 지역의 문학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 종합하면 심사 및 모든 진행이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진 듯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협 합천지부에 따르면 다라국 문학상 대상을 받은 표성흠 작가는 문학상 초기 기획부터 관여돼 있었으며, 문학상의 홍보, 접수, 심사의 모든 진행을 맡은 경남소설가협회의 초대회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라국 문학상의 운영위원이기도 했다.

합천 지부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당선자 표성흠 씨는 수상을 포기해야 한다"며 "문학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이번 문학상과 관련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보직이 변경됐고, 조사 중이라 말해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 '한국 전통산사 7곳'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진관사·삼화사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불교 사찰과 문화재가 연이어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등 7개 전통사찰은 12월 17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대상으로 등재를 위한 예비목록이다.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으로 등재해야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18일 "3일 외교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후 17일 등재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전통산사'와 함께 '고령 지산동 대가야'를 최종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사찰 건축양식, 공간 배치 등에서 인도 유래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중국적인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토착성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의 증거임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산지에 입지해 내외부 공간이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나라 불교의 사상, 의식, 생활, 문화 등을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가치가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잠정목록 등재를 통해 총 18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4건)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12월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한 진관사와 삼화사 등의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결의했다.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연등회, 영산재에 이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정을 계기로 '수륙재'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972호 INDEX


시방세계 5
새해 서원 담은 불교 달력

종합 2·3
2013 불교계 종단 결산
태고종 쇄신 위한 첫 산림 연다
조계종 스마트 교육 '인기몰이'
포교원 무진장 스님 100재 만발공양

송년특집 6
2013 불교계 10대 뉴스

강의실 중계 8
실상사 선지식 법회- 오강남 교수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지장도량을 찾아서- 대구 소재사

송년 에세이 31
맹난자 수필가 '니르바나의 노래'




### 대행 스님 법어 BBS 방영

BBS 라디오
12월 28일(토) · 29일(일)
오후 3시~3시 55분

BBS TV
12월 26일(목) 오후 7시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미래의 행복을 바란다면**

**현재의 시련을 받아들여라.**

**불성은 바로 그대 곁에 있느니라.**

이번 생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존재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알까요? 현생에서 여러분은 배고픔, 목마름, 더위, 추위 등을 참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생에 직면하게 될 고통에 비한다면 이것은 작은 어려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다르마를 수행함으로서 불변하는 해탈의 지복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만약 미래 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현재 내 삶의 형태와는 다른 존재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에만 집착한다면 당신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고 인간 생의 소중한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위해 충실하게 헌신한다면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에 그 근원적인 청정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산을 투자해 재산을 늘리게 됐는데, 어떤 구두쇠는 꼭꼭 숨겨 놓았기에 아무 이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불성은 당신 안에 있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를 자금으로 만들지, 그냥 썩힐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새 수장 연임·교체 속 종단들 변화 모색

## 2013년 불교 종단 결산

올해의 불교 종단들은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한국 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들의 수장이 연임되거나 교체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단들은 안정을 기조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 갈등과 반목… '불안한 출발'

올해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였다. 사실상 불교계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세간과 출세간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결국 조계종 선거는 총 5명의 스님이 출마해 추대가 아닌 경선 체재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기호 1번 자승 스님과 기호 2번 보선 스님의 양자 대결이었다. 10월 10일 열린 선거 결과는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자승 스님의 압승이었다.

자승 스님은 당선 소감문을 통해 "항상 초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탁마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 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양 측은 상호 승적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전투구를 벌였다. 공명한 선거로 이끌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략에 휩쓸려 제 역할을 못했다. 후보 간 종책 토론회는 논의만 있을 뿐 열리지도 못했다.

갈등이 충분히 봉합되지 못하다보니 제34대 집행부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前 오어사 주지 장주 스님의 종단 주요 스님들의 도박 관련 폭로와 운광 사미(적광 스님)의 폭행 건은 사실 여부를 떠나 자승 스님과 제34대 집행부에게 계속 신경 쓰이는 장애물이다.

초기 직영 사찰 인선을 놓고도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이 봉은사 인사에 관여했다"는 불교광장 회장 지홍 스님의 비판이 있어 일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 같은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종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과제다.

**주요 불교 종단 수장 연임 · 교체**
**조계종 대립 속 당선… 후유증 우려**
**태고종 변화위한 내부 정리 추진**
**천태종 선원 불사 · 총화종 회관 완공**

### 태고종 등 변화 모색 및 불사 시작

가장 먼저 종단 수장이 교체된 곳은 진각종이다. 진각종 종의회는 4월 18일 열린 정기종의회에서 제29대 통리원장에 명륜심인당 주교 회정 정사를 선출했다. 27대 통리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 회정 정사는 종단 주요 현안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는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는 前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7월 18일 열린 선거에서 도산 스님은 전체 유권자 총 146명 중 68표를 획득해 총무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도산 스님은 "8대 핵심기조와 18대 공약을 실천해 제2의 창종에 버금가는 재도약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이 종단 부채 해결과 제2의 창종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도산 스님의 집권 이후 태고종은 자체 쇄신을 위한 산림과 부채 해결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불교 총지종의 종무행정을 이끌어갈 제17대 통리원장에는 법등 정사가 선출됐다. 총지종 중앙종회는 제114회 종회를 4월 26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서 개최하고 법등 정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자승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에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도산 스님〈사진 오른쪽〉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5월 21일 열린 진각종 제29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 취임법회 모습.

천태종은 종단 차원의 대규모 회관 걸립불사를 시작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4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신축공사 현장서 '일심국제선원 건립 기공식' 을 봉행했다. 일심국제선원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825㎡(2,370평)에 국제선원 1동(33.54평), 문화체험실 2동, 한마음문(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동으로 구성된다.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총본산 수진사의 복지문화교육전승관 불사를 마무리하고 4월 23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은 총건평 2300평 위에 2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당을 비롯해 유치원, 요양시설, 외국인 쉼터 등이 조성돼 있다.

### 각 종단 내년 과제는?

조계종은 내년 중앙종회의원과 본사 주지 선거 일정이 빽빽하다. 내년 주지 교체를 맞은 본사는 2교구 용주사와 9교구 동화사, 11교구 불국사, 13교구 쌍계사, 16교구 고운사다. 여기에 내년 2월, 8월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와 10월 16일에는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계종이 올해 제정 · 공포한 법인법에 따라 관련 법인들은 내년 6월까지 종단에 법인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학원에 이어 대각회까지 법인법 반대 대열에 동참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태고종, 종단 쇄신 위한 첫 '산림' 연다

### 12월 27~28일 선암사서…회향식 때 청규 발표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창종이래 처음으로 종단의 중진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단 쇄신과 승풍 진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2월 27일~28일까지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리는 '태고산림 법회' 가 그것이다. 27일 오후 7시에 입재식을 갖고, 28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 특히 회향식에서는 승풍 진작을 위한 청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태고산림 법회에는 종정 혜초 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호법원, 전국시도교구종무원, 전국비구니회, 전국전법사교임회 임원진 등 종단 주요 간부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태고산림' 은 전체 태고종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한마음으로 종단을 변화 쇄신시키며 한국불교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원력을 대내외로 선포하는 뜻 깊은 법석(法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태고산림 법회는 태고종이 새해를 앞두고 그동안의 구태를 벗고 승가본연의 자세를 확립해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마련됐다"며 "한자리에서 종단 발전과 쇄신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결과인 청규를 지켜가며 내실을 쌓는다면 태고종이 정통종단이자 수행 · 교화 종단으로서의 자리를 한층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조계종 의례위 한글〈천수경〉 공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의례위원회(위원장 인묵)은 12월 19일 한글의례문 천수경을 공포했다.

한글천수경이 공포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2011년부터 한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1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한글천수경 초본이 공개됐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이월됐고, 지난 11월 196회 정기종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신중일 기자

제3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2014. 1. 5.(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3층 컨벤션홀

제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제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 대 상 : 조계종 사찰 신도로 3인 1조 구성(청소년 1인 필히 포함)
• 참 가 비 : 팀당 3만원(포교 기금에 사용)
• 퀴즈내용 : 예상문제 배부 80%, 일반상식 20%
예상문제는 현재 다음 카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cafe.daum.net/bsbuddhism)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 품
– 상금 1등 : 1팀(100만원)
2등 : 2팀(각 50만원)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증명스님 휘호 및 상품
– 그 외 참가팀들에게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 전송
예상문제 및 신청서는 다음 카페 'cafe.daum.net/bsbuddhism'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bsbuddha@daum.net 전화 051)501-7554 팩스 051)501-9333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조계종 스마트교육, 승가교육 새 지평 열다

## 교육원 영상 강좌 '인기몰이'… 대폭 강화 계획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실시하고 있는 동영상 강좌가 종단 스님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현재 조계종 디지털대학에 등록해 강의를 듣는 일반 스님들이 300명을 넘었고,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8일 "2014년 법계별 연수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이어 스님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동영상 강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스마트교육으로 승가교육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육원의 동영상 교육은 2012년부터 표준교육과정 개편을 맞아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올해 3월에는 이들 콘텐츠를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개방했다.

이후 학인이 아닌 일반 종도 스님들의 관심과 문의들이 있어왔고, 강좌 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인율원과 국제불교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등 단체 가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동영상 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공간 제약 받지 않고 강의를 반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다.

실제 강의에는 불교문화유산 전문가인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을 비롯해 종단과 현대윤리 중 청규를 강의하는 월암 스님, 불교와 동서철학의 권위자 김종욱 동국대 교수, 철학자이자 파워라이터 강신주 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강좌 단체 가입 증가 추세**
**"인문학적 소양 쌓을 기회"**
**현재 14개 강의 서비스 중**

이 같은 동영상 교육의 효과는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스님의 E-메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암사 학인 스님은 "산 속에 있어서 활동이 제한돼 있는데 강신주 박사, 김성철 교수 등의 주옥같은 강의를 들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면서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고마웠다"면서 "수행과 소임을 살면서 틈틈히 강좌를 듣고 배움을 곁에 둘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석중 스님이 동영상 강좌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시연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현재 14개 강의 서비스 중 조계종 교육원 동영상 강의는 14개 강좌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기존 10개 강좌에서 '나의 공양고전 독법(강신주)'과 '스님들을 위한 경제이야기(홍종학 가천대 교수)' '고우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 순례'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가 추가 편성됐다.

수강을 원하는 스님은 조계종 디지털대학 홈페이지(www.edubuddha.net)에 가입한 후 교육원으로 연락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조계종은 내년부터 아침저녁 예불과 108참회 등 일상수행과정을 4급 승가고시 점수에 반영한다.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승가고시 일정과 개선사항을 확정했다.

이날 고시위원회는 4급 승가고시부터 조석예불, 사시불공, 108참회, 경전합송 등 기본교육기관 학인스님들의 일상수행과정 교육평가를 고시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교육원은 지난 3월부터 각 기본교육기관과 합의 아래 학인스님들 일상수행을 체크해왔다. **신중일 기자**

# 종단협 회원 종단 연수 진행된다

## 종단협 18일 이사회서… 내년 예산 9억 원 확정

한국불교종단협회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가 회원 종단들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종단협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내년 사업 계획으로는 연중 행사인 신년하례법회를 비롯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불교단체 후원,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 주요사업도 확정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회원 종단 스님(정사) 연수 교육이 포함됐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연수 교육은 3월 경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도상담과 코칭 · 모바일 소통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는 1월14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하며,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5월 다양한 봉축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10월 중 종단협 주최로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불기 2558(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7억1550만원, 특별회계 2억1300만원 등 9억285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아이릭 아리바스 필리핀 총영사에게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 BBS TV, 수도권에서도 만난다

## C&M · CJ와 런칭… 서울, 영서, 경기 지역 신규 진입

BBS 불교방송 TV가 케이블 TV 송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BBS 불교방송 TV는 12월 19일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케이블TV업체인 C&M(씨앤앰)에 신규 런칭해 수도권 케이블 방송에 본격 진출했다. 또한 이에 앞서 12월 12일 CJ헬로비전의 상품을 저렴한 기본형 상품으로 전환해 강원(영서)지역과 경기 의정부 지역에 신규 런칭했다.

이에 따라 BBS 불교방송이 TV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년 만에 케이블 TV가 청가구수 5백만, IPTV와 스카이라프 1천3백만 등 총 1천8백만 가구에서 BBS 불교방송 TV를 볼 수 있게 됐다.

BBS TV는 IPTV와 스카이라이프 진출에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케이블 TV 송출에 뛰어들어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비전 등의 전국망 케이블TV업체와 JCN울산방송, KCTA광주방송, TCN대구방송, 푸른방송,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금강방송 등 지역 케이블TV 업체에 진출하는 등 전국망 확대에 나서면서 꾸준히 가청가구수를 확대해 왔다.

**정혜숙 기자**

# 논문부터 게임까지 대원불교상 수상자 발표

## 5개분야 선정…12월20일 시상식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이종대)은 12월 20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제4회 대원불교문화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상자에는 △불교학술 저서 부문에 박광연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신라 법화사상사 연구' △논문 부문에 강호선 불교학술원 HK교수의 '조선태조 4년 국행수륙재 설행과 그 의미' △기획 부문에 이채론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의 '불교문화 콘텐츠 대중화를 위한 엔터케이션 콘텐츠 교육기능성' – EBook 게임개발 기획 '달려라 탱' △기획 부문에 황국태 · 조미향 · 장인 · 조예 영상대학원 문화콘텐트학과생들의 페스티벌 기획서 '오감만족' △시나리오 부문에 김현정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생의 '황 소변소' 등이 꼽혔다. 수상자들에게는 불교학술분야(저서부문 600만원, 논문부문 300만원)와 불교창작분야(기획부문 각 300만원, 시나리오부문 400만원)로 나눠 총 19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포교대상 수상자들과 무진장 스님의 저자거리 포교원력을 이어가기 위한 만발공양을 하고있다.

# "무진장 스님 저자거리 포교원력 잇자"

## 조계종 포교원, '무진장 스님 100재 기념 만발공양'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무진장 스님의 100재를 맞아 조계종 포교원이 스님의 저자거리 포교원력을 잇는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17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에서 '무진장 대종사 100재 추모 어르신 만수무강 기원 만발공양 효행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효행잔치는 46년 전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수년간 어르신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등 저자거리 포교에 앞장 선 무진장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2000여 어르신들이 찾은 이날 행사에서 지원 스님과 포교원 직원, 포교대상 수상자들은 직접 어르신들에게 고기국을 비롯한 공양을 대접했다.

또 귤과 장갑, 떡 등을 묶은 선물세트 2500개를 각각 전달했다. 물품은 모두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직원과 대상 수상자들이 모연한 것으로 총 2000여 만원 상당이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 합의기구 만들자"

## 조계종 화쟁 · 노동위, 19일 사회적 합의 요구 법회

수서발 KTX 민영화 시도로 불거진 철도 파업에 대해 불교계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법회를 열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철도 민영화 사회적 합의 요구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논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12월 19일 철도 민영화 사회적 합의 요구 법회를 봉행했다.


3년여 만에 출간한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화제의 신간

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호응을 일으키며 재판



붓다 수업

웰빙, 힐링, 뉴에이지, 영성, 치유, 명상, 시크릿, 마인드풀니스 등의 원천인 붓다!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붓다 수업-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를 출간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대중과 소통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붓다 시대, 이제 붓다 수업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진리를 표방하는 단체며 가르침이 많아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 '힐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의 원천'인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놓았다.

■ 법상 스님 지음 | 신국판 372쪽 | 15,000원

무아(無我)와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당신은 실재하는가?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로 이끄는 신개념 불교교리서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 성법 스님 지음 | 신국판 304쪽 | 13,500원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과 순수성을 담보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콕콕 정곡을 찌르듯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 있는 저자의 경책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무지와 탐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라고 말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Tel. 02)732-2403~4 민족사

올바른 종교생활을 위한 촌철살인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천국을 탐(貪)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탐착의대상이 아니며, 탐착은 그대로 지옥이다"

■ 김진태 지음 | 신국판 184쪽 | 12,000원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를 걱정하는 시대, 위험하고도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종교생활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촌철살인, 불교계를 정화하는 최고의 처방이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호법신장 김진태 교수의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책의 향기가 있다면 이런 글이 아닐까? 절제된 문장에 담겨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자의 깊었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붓다와 예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이 한마디를 하셨을 것 같다. "선재 선재(善哉 善哉)로다!"라고.

– 동화사 연수국장 혜문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

도서출판 동승동 Tel. 02)732-2403~4

## 일 주 문



**군종교구 위문품보내기 운동 협약**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12월 19일 교구 회의실에서 불교TV 구본일 사장, 불교신문 사장 성직 스님과 '위문품보내기' 운동 공동협약을 맺었다.



**아름다운동행 2000만원 기부**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19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과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갑오년 저녁특별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2014년 1월 5일부터 갑오년 저녁 특별기도 '여시아문'을 개최한다.



**불교상담 산사워크숍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2014년 1월 4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불성 깨우기'라는 주제로 동계 산사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7-7378



**행복바라미 겨울캠페인**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2월 21일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동지 팥죽나눔을 비롯한 행복바라미 겨울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 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임명



신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진화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6일 4층 접견실에서 신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 중흥의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오랫동안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아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무파악을 서둘러 종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화 스님은 "빨리 업무파악을 진행해 문화사업단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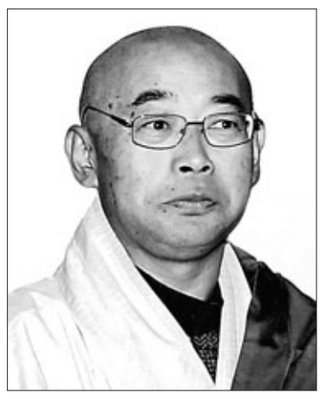
## 제8회 불교문예작품상 이윤학 시인



현대불교문인협회 · 계간〈불교문예〉가 주최하는 제8회 불교문예작품상 수상자로 이윤학 시인의 시 '차에서 자는 인간'이 선정됐다. 이 씨는 "이번 수상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다. 앞으로 기다림과 견딤으로 시를 옮기라는 채찍과 격려가 담긴 상"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윤학 시인은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된 이후 서정적 작품으로 시단의 중견 시인으로 주목받아왔다. 당선 작가에게는 상금 3백만원이 주어졌다. 정혜숙 기자

# "활동가들 돕고 싶어 시작했어요"

### 불교활동가 지원 10회 회향한 '동출 스님'



교계 활동가 격려하고자 제정

27명에게 총 5400만원 전달

동출 스님(설법연구원장)이 지원하는 제10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 및 회향식이 12월 19일 종로구 수송동 열린선원에서 열렸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포교의 원력으로 힘쓰고 있는 불교활동가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이상은 올해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최명숙 씨와 '네팔 불자 구릉 모임'과 '재한줌머인연대' 각 세 팀에게 돌아갔다.

2001년 불교활동가상을 제정 10회 동안 이끌며 총 27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며 회향을 맞은 스님을 만났다. "10년을 발원하고 지원금 전달을 이어왔습니다. 중간에 신장수술 급성 간염 등 건강상의 문제와 종회 의원 등을 지내면서 3회 정도를 쉬기도 했는데 올해로 10회를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은사 스님이신 성운 스님과 도반 스님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불교가 재가불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님은 문화 복지 국제구호 이주민 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너무나 고마워 상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1회 신대현 사찰문화연구원,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강제숙(평화시민연대, 원폭관련) 등을 시작으로 올해 수상자까지 사회 곳곳에서 자비의 정신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선정 총 27명에게 총 5400만원이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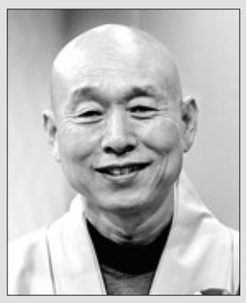
10년 동안 더 챙기고 싶은 활동가들이 많았지만 모두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스님은 말한다. "인연 닿는 대로 추천도 받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가들을 발굴해 지원금을 드리다 보니 못 챙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암울한 시기에 활동하며 한국민중불교를 이끌었던 민불련 출신 자녀분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쉬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숙제로 남을 거 같습니다."

스님은 10회로 상을 회향하지만 앞으로도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올해로 회향을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회를 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회향식을 겸한 시상식 자리에는 불교계 활동가 및 단체 관계자들 40여 명이 참여해 스님의 10년 불사를 축하해주었다. 또한 민중불교동지회에서 스님의 뜻을 이어 매년 1명 이상의 활동가를 정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혜숙 기자

# "동문 화합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신임 회장 무문 스님



"동문회의 일차적인 역할은 동문간의 친목 도모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문회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불교적 이념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무문 스님이 취임했다. 12월 18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제10 · 11대 회장 이 · 취임식에서 무문 스님은 "동문들의 뜻을 잘 받들어,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회장 소임을 보겠다"고 밝혔다.

무문 스님은 1971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해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해인사, 통도사, 법주사, 불국사 등에서 정진했다. 2005년 2월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 용산 보광사 주지로 있다.

이날 무문 스님은 장학사업을 비롯해 사회봉사, 성지순례 등 다양한 동문회 차원의 활동을 다짐했다.

스님은 "그 무엇보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산이 크고 높다고 해도 울창한 숲이 없다면 명산이 될 수 없듯 동림동문회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며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회장 학명 스님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학명 스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됐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총동림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퇴임사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불교 교류로 한중 교류 활성화 시키자"

### 中 외교 씽크탱크 한팡밍 주석, 동국대에서 강조



중국 외교 전문가가 불교교류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한판밍 차하얼(察哈爾)학회 주석〈사진〉은 12월 18일 열린 동국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 제1호 비영리 국제관계 전문기관인 차하얼학회 수장을 맡고 있는 한 주석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이자 찰합이학회를 창립해 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 외교 국제관계 전문가다.

한 주석은 이날 동국대로부터 지난 9월 차하얼학회가 소장 중인 중화대장경 티베트판 전권을 동국대에 기증한 공로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한 주석은 먼저 중화대장경 기증 등 한중불교교류가 한국과 중국 양국이 1000년이 넘게 진행해 온 외교의 한 방식임을 설명했다.

한 주석은 "현재 조계종과 추진하고 있는 하북성 숭덕사 사찰복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장경각의 경우 한국식 사찰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주석 또 "티벳대장경 연구를 위한 후원을 시작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 유학 및 학술교류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동림 스님, 동국대에 23억원 쾌척




부산 해림사 동림 스님은 12월 20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가 경주 코모도호텔 반월성홀에서 개최한 '2013 동국대 경주캠퍼스 후원인을 위한 감사의 밤'에서 발전기금으로 23억원 상당의 토지를 쾌척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림사 회주 동림 스님은 시가 약 23억원 상당의 부산 기장지역 토지를 기부했다.

동림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이 추구하는 불교인재양성의 큰 뜻에 동참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동국대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학인스님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동림 스님은 1940년 부산 무정리에서 출생해 16세에 선암사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3년 동국대 승가학과 1기생으로 입학했다. 1980년 부산 선암사 주지를 역임하고 1988년부터 해림사에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얘기꾼, 〈북한산 꼭지〉 출간



불교사회적기업 얘기꾼(대표 남지심)이 12월 17일 신간 〈북한산 꼭지〉를 펴냈다. 불교문학창작교육원 과정을 거친 9명의 작가들이 북한산 봉우리 27개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했다. 남지심 대표와 얘기꾼 회원들이 출간을 기념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 기사 22면 정혜숙 기자

## 봉은사, '동지(冬至)' 희망나눔행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동짓날을 맞이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봉은사는 '동지기도'와 함께 새해 소원과 다짐을 적는 '새해 맞이 소원지 쓰기' 행사를 시작으로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 저금통을 경내에 비치해 후원금을 모았다.

봉은사는 후원계좌(신한은행 140-005-948791 / 대한불교조계종)를 통해 직접 후원금도 받고 있다. 성금은 12월 31일까지 모금해 (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필리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2일 동짓날에는 '동지법회'와 함께 사찰 곳곳에서 '동지팥죽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02)3218-4836

노덕현 기자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경고문에 대한 성명서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법왕청」주최**
**세계평화와 나라안정기원 세계불교 최고지도자대회**
**2013년 12월 27일 오전10시 여의도 63빌딩 컨벤션홀에서 정상개최 됩니다.**

우리 단체는 귀 단체나 목탁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법회을 열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단체가 아님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며 귀 단체가 설립한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이 불교적 행사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증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귀하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449번지에 그 주소를 둔 국제선불교조계종 대표로서 우리단체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이하 단체의 단체장입니다. 귀하는 우리단체에 가입한 후 탈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여서 전 세계의 불교를 관할 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불교도 귀하가 설립한 단체를 내세워 불교의 법회를 막거나 허락하거나 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울러 동 행사를 막거나 이에 관한 동 행사를 이행 할 시에는 헌법 전문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진행 할 시는 귀하와 동일한 방법으로 형법 제 158조에 의지하여 불교법이 아닌 사회법에 의거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세계불교법왕청유지재단 세계불교중도법왕청 월드불교법왕청등의 단체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불교법왕청은 1992년 외무부에 이미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현제 우리단체 (사)세계불교법왕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13조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한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126082-99441로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모체가 되는 단체 사단법인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2012년 3월 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2012-33호로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단체입니다.


고 유 번 호 증
고유번호 : 126-82-99441
2013 년 12 월 12 일
이천 세무서장
국세청

아울러서 우리 단체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사)세계불교법왕청은 귀하가 주장하는 귀 단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으로부터 종교 활동에 대한 허락을 득할 사유가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불교도 앞에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사부대중 앞에 진정으로 참회 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음에도 실내에도 차안에도 365일 법향 가득

## 불가 2558년(2014) 불교달력

"탁상용 달력에 있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수행정진을 다짐해요!"

새해 달력을 보면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보인다. 달력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불교계 주요 기관 및 기획사의 달력을 살펴본 결과, '마음챙김' 등 불교 가르침을 주제로 한 달력이 대부분이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불자들이 새해를 차분히 맞이하는데 일조하고자 함이다.여기에 작품성 높은 스님들의 사진과 참신한 디자인, 실용성을 가미해 소장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는 불교계 달력.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뒤로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힐 수 있는 법문 달력 등이 눈길을 끈다.

### 미공개 희귀 사진, 잠언 캘리그래피 등 선보여



조계종출판사(사장 김용환)는 조계종 수익사업 차원에서 달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하에 유통사업부를 두고 '달력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조계종 출판사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40만부를 판매했다.

달력 종 수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14종에 그쳤지만 그 면면을 보면 전과는 다른 새로운 달력이라는 평가다. 미공개 희귀사진을 비롯해 수준 높은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좋은 삶을 위한 부처님의 12가지 말씀'을 주제로 한 법문 달력이 눈길을 끈다. 매일 매일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금 이순간 깨어 있으라' 등 부처님 잠언을 전문 캘리그래퍼인 백천 김형재 선생의 글씨로 그려냈다.

또 조계종 출판사는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에 전정되기도 한 관조 스님의 '사찰 꽃살문'을 소재로 달력을 제작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스님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때마다 스님의 마음과 '옛 가람의 숨결' 까지 느낄 수 있다.

조계종 출판사는 달력 첫 장에서 "사찰의 꽃살문은 경건한 불교 신앙심이 민중의 마음과 결합된 것"이라며 "꽃살문은 긴장이 필요없는 편안한 가운데 따스한 정감을 주는 독특한 미술품"이라고 표현했다.

'달마도'도 빠질 수 없는 달력계의 단골손님. 이번 달력에는 각주 혜인 스님의 금니 작품을 담았다. 검푸른 바탕에 금색으로 새겨진 달마스님의 행적과 모습 등을 잘 추려낸 '달마도 달력'은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조계종 출판사는 '펜으로 만나는 사찰'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사찰을 소개했다. 금강산 신계사와 보덕암, 화왕산 용선대 등을 디자인 전문가인 김영택 작가의 펜화로 표현했다.

또 원성 스님의 '동자승의 하루'도 인기가 높다. 멱을 감는 동자들, 차를 마시며 박장대소하는 동자들 등 어린 스님들의 해맑은 모습을 익살스럽게 담아냈다. 작품 안에는 풍경소리에서 지원한 재밌는 글귀도 함께 곁들였다. 원성 스님은 1988년 국제유네스코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1998년 뉴욕한인협회 초청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조계종 판사는 이외에도 차량용 미니달력, 탁상형, 수첩형, 메모가 가능한 수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달력을 출시했다. 출판사는 기성달력 외에도 해당 사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판제작도 대행하고 있다.

김용환 사장은 "그동안 불교계 달력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며 "수익금은 승려노후복지기금 등 종단 목적사업에 전액 기부 된다"며 불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힐링' '사찰풍경' 등 작가 사진 대부분**
**탁상용, 차량용 선호현상 뚜렷**
**QR코드 등 IT활동 개발 과제**

### 사찰음식 · 사찰풍경 · 마음 코드 함께 담아



불교 전문 기획사인 감로기획은 총 52종의 기성 달력을 펴내 최다 부수를 자랑한다. 감로기획은 대 · 소자 달력을 비롯해 탁상용 · 메모 수첩용 · 미니 차량용 등 다양한 달력을 선보였다. 이 중 '내 마음속의 법구' 달력이 인기가 높다. '항상 내마음을 잘지키자' '속이자마라' 등의 경구를 박병철 씨의 글과 그림으로 담아냈다.

또 '선사들의 오도송-산승의 향기'에는 만암, 일타, 성철, 한암 스님 등 고승들의 오도송을 담았다.

감로기획 달력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풍경 달력이다. '이루어주소서', '산사의 풍경소리', '한국의 기도도량' 등 전국 사찰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았다. 감로기획의 경우 여기에 신선암 마애보살상, 불영사 등 전국 유명 성지순례 장소를 사진으로 담은 달력을 내기도 했다.

감로기획은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달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힐링, 마음 코드로 달력을 선보였다.

먼저 불광출판사는 '힐링, 마음을 찾다'를 주제로 달력을 내놨다. 달력 사진은 하지권 불교사진 전문가의 작품이다. 하지권 씨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사진DB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등을 사진작업했다. 불광출판사 달력의 특징은 불광에서 출판한 마음치유와 명상 관련 책에서 문구를 발췌해 사용한 것. 〈틱낫한 명상〉 〈존 카밧진의 처음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등을 영문번역글과 함께 실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김대열 동국대 예술대 교수가 그린 동국대의 사계절을 담은 수묵채색화를 실었다.

### 달력에 부는 'SMART' 바람… 불교계는 아직




불교계에서는 탁상용 달력, 차량용 미니달력 등 다양한 달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달력의 변화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 달력을 주문해온 업체들도 벽걸이용 달력이 아닌 탁상용 달력이나 차량용 미니 달력을 선호하고 있다. 탁상용 달력과 차량용 달력은 크기가 큰 벽걸이 달력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데다, 받는 사람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감로기획 관계자는 "예전에는 찢는 달력이 유행했는데 최근에는 작은 달력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교계 달력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각종 IT 기기가 달력을 대신하며 달력 수요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달력 등 종전에는 단순하게 숫자판 중심이던 달력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추기 시작했다. 또 달력에 기업 홍보를 위한 QR코드를 넣는 등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달력의 경우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계절별 풍광과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으로 매일 달력을 터뜨릴 수 있는 달력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달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 한 달력 전문제작업체는 "판매부수는 대외비로 밝힐 수 없지만 예년에 비해 10% 정도 판매 부수가 감소했다"며 "불교계는 그나마 달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불교계는 아직 IT기기 활용을 고려한 달력은 선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마음선원…대행 스님 법어

### 세로서 가로 쓰기로 변화

한마음선원은 2014년 '나의 참마음이 내 생활의 근본이자 우주의 근본이다'라는 대행 스님의 법어을 주제로 달력을 제작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 담아 놓을 것이 없다' '밝은 마음이 바로 부처이자 연등이다' '노력의 대가는 이유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답답함이 나오는 그곳에서 부처도 나온다' '일상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참선이다' 등 대행 스님이 평소 했던 법문을 명료하게 담았다. 법문 내용을 영어로 함께 실어 평소 불교의 세계화를 강조한 스님의 뜻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법문 글씨는 서예가 청우 윤상민 선생이 담당했으며 화가 호산 임효 선생이 그림으로 함께 표현했다. 청우 윤상민 선생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한국서예가협회 이사로 있는 한국 서예의 대가이며 호산 임효 선생은 국내외 초대전을 20여회 진행하고 동아미술상과 선미술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선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전문가다. 수십년간의 세로쓰기 방식에서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뀐 갑오년 달력은 벽걸이용 미니달력과 탁상용 달력도 함께 제작됐다.


# 약사여래부처님은 계십니다!! 병고가 치유되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으로 오십시오

중생의 고통중에 병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중한 병고는 대부분 전생의 업장이 발현한 것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치유합니다.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업장소멸과 병고치유로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열어드립니다.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 약사여래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허리통증이 치유되다

저는 허리통증으로 근 30년 가까이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 혜명스님께서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날짜를 빨리 잡아주셔서 그 다음 날 바로 약사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만같게도 서 있지도 못한 제가 조금씩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리병을 지금까지는 내가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해서 아프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병이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업으로 인한 업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 대구에서 정영순 불자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법 : 매일 〈약사여래본원경〉을 읽고 '약사다라니'를 하고 참회 · 발원을 한 다음 '약사여래불'을 간절히 정근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현신해서 당신의 병고와 관련된 업장을 소멸해주시고 병고를 치유해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청정수를 준비했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십니다.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 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팩스 033)681-5538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전화 033)681-5515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한해 불교계, 평화 기원·힐링 등 사회 '감로' 역할

## 2013 불교계 10대 뉴스

불교계의 2013년은 다사다난하고 바쁜 한해였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이어진 정전 60주년 행사부터 주요 종단 수장들을 뽑기 위한 선거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힐링 멘토 스님들의 활약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스님들의 범계 행위는 '옥의 티' 로 남았다.

신중일 · 노덕현 · 정혜숙 · 이나은 기자

### 1.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수장 교체

올해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였다. 이번 조계종 선거는 총 5명의 스님이 출마해 추대가 아닌 경선 체재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기호 1번 자승 스님과 기호 2번 보선 스님의 양자 대결이었다. 10월 10일 열린 선거 결과는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자승 스님의 압승이었다.

진각종은 올해 가장 먼저 수장이 교체됐다. 진각종 종의회는 4월 18일 열린 정기종의회에서 제29대 통리원장에 명륜 심인당 주교 회정 정사를 선출했다.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는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는 前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7월 18일 열린 선거에서 도산 스님은 전체 유권자 총 146명 중 68표를 획득해 총무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불교 총지종의 종무행정을 이끌어갈 제17대 통리원장에는 법등 정사가 선출됐다. 총지종 중앙종회는 제114회 종회를 4월 26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서 개최하고 법등 정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 2. 잇따른 범계행위 대책은 없나

다시 범계 문제가 터졌다. 조계종이 건립한 공익 연수 시설에서 스님들이 술자리를 열었고 일간지 신문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돼 더욱 문제가 커졌다. 술자리를 가진 스님 중에는 연수원장 초격 스님(중앙종회의원 겸직)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 지도층 스님들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원 무애 스님은 서울 조계사 인근 포장마차에서 여성과 술자리를 가져 공개 참회를 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만 불교계 지도층 인사인 중앙종회의원 5명이 범계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어 한국불교가 전반적으로 범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도 했다.

결국 연수원장은 교체됐으며, 종단과 종회의장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 3. 정전60주년 평화행사 성료

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불교계에서는 불교적 평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운영위원회' 는 9월 27일 '한반도 평화대회' 를 부산 UN기념공원에서 거행했다.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천도재를 비롯해 범종 타종과 승무공연을 선보였다. 9월 3일에는 KBS와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6월 범어사에서는 불교의 평화론과 평화운동을 고찰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밖에 조계종 한반도평화대회 수석부위원장인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인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7월 27일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 민간대표로 참석했다.

### 4. 힐링 멘토 스님들 인기 쭉~

2013년에도 법륜 마가 정목 스님이 일으킨 힐링 바람은 여전했다.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킨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희망세상만들기 즉문즉설 100강에는 총 63515명이, 미주와 유럽 총 47개 도시에서 12205명이 스님의 강연을 들었다. 신간 〈인생수업〉은 현재 10주째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힐링강좌의 선두주자 마가 스님은 대학, 기업체, 방송국 등에서 80여 차례 강연했고 30000명이 강연을 경청했다. 신간 〈알고보면 괜찮은〉은 출간 2주 만에 3쇄 인쇄에 들어갔다고. 마가 스님은 내년 1월 7일에는 KBS 아침마당 출연을 확정했고 BTN '마음꽃이 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목 스님 역시 힐링 강연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120여회 전국 강연을 진행했고 SBS 힐링캠프, 아이러브인 등에 출연하면서 힐링멘토로 우뚝 섰다. 올 12월에 출간한 신간 〈비울수록 가득하네〉도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전국 사찰을 돌며 '국민행복 힐링투어' 를 진행한다. 첫 행사로 포교원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12월 5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충남, 대전 권역별 행사를 개최했다.

### 5. 해외 유명 수행자 잇달아 방한

올 한해에도 해외 유명 수행자들의 방한도 이어졌다. 세계적인 명상가 아잔 브람 스님은 지난 1월에 방한해 8박 9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동국대 집중수행 인터뷰와 함께 안국선원 불광사 봉은사 조계사 구룡사 봉암사 등에서 법문을 펼쳤다.

프랑스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이끌고 있는 틱낫한 스님은 법사단과 함께 5월 한국을 방문, 15일간 월정사, 서울 동국대 실내체육관, 중앙승가대 등에서 '힐링, 상생, 행복' 을 주제로 집중 명상수행과 대중강연을 진행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자 티베트 불교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명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와 세계 여성불교의 스승 텐진 팔모 스님은 각각 8월과 11월에 방한했다.



연임에 성공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8일 열린 취임법회에서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9월 2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에서 평화의 불이 사부대중의 염원 속에 안좌되고 있다.



월정사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4박 5일간 틱낫한 스님 초청 명상 수행 지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사진은 4일 진행된 월정사 천년의 숲 걷기 대회 모습.



마가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이 12월 5일 개최한 '국민행복 힐링투어' 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4월 3일 열린 만해마을 동국대 기증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월 30일~11월 2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4일간 진행된 조계종 제 2급, 3급 승가고시.

### 6. 조계종 법인법 제정 그리고 반발

조계종 법인법이 중앙종회를 거쳐 4월 1일 공포했다.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 또는 종단 스님이 설립하거나 사찰 재산을 출연해 세운 법인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학원은 법인법 제정에 반발하고 2002년 종단과 합의 후 개정된 재단의 정관을 이전의 내용으로 환원시켰다.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중진 분원장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종단과의 결별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 수계도량과 기초선원으로 부산 금정사와 지리산 정각사를 각각 지정했다. 여기에 대각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법인법 제정에 따라 조계종 관련 법인들은 내년 6월까지 등록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여론 때문에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7. '글로벌' 불교학, 한국이 주도

불교학 연구에 있어 2013년은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해였다. 먼저 금강대가 하버드대와 동양연구서의 최고 권위인 〈하버드대동양학총서〉 중 유식 분야를 공동 출간했다.

하버드대가 외부 대학과 총서를 공동출간 한 것은 출간역사 120년 중 최초의 일이다. 총서에는 총 1429페이지에 유식학 흐름과 함께 유식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독일 함부르크 대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반 데어 퀘입 교수를 비롯해 일본 와세다 대 요시무라 마코토 교수, 중국 스찬대 빙첸 교수 등 관련 전공학자 34명의 논문이 실렸다. 한국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 김성철 금강대 HK교수, 박창환 금강대 교수, 차상엽 금강대 HK교수의 논문이 실렸다.

동국대는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타이완대와 협약을 맺고 2014년 5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워크샵 · 대회 · 영문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구로 넘어가있는 불교학 연구의 주도권을 동아시아 명문대들이 힘을 모아 다시 찾아오자는 의미다.

### 8. 만해마을, 동국대에 기증

4월 3일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강원도 인제의 만해마을을 동국대에 기증했다.

2003년 설립된 만해마을은 문인의 집, 만해기념관, 만해학교, 서원보전, 만해수련원, 청소년수련원 등 건물 6개 동과 종각, '님의 침묵 광장' 등 부대시설로 이뤄져 있다. 토지 면적은 2만1000㎡, 건물 면적은 1만2000㎡로 시가 200억 원 상당이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오현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1기 졸업생인 만해 스님의 정신을 동국대가 잘 받들어 계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동국대는 만해마을을 연수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2학기부터 '만해학 강좌' 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 9. 불교폄훼 · 종교편향 여전

불교폄훼와 종교편향도 여전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합천군 제1회 다라국 문학상에 소설가 표성흠 씨의 〈황강-다라국의 발원〉이 선정된 것이다. 이는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고, 불교를 숭상했던 신라 법흥왕의 종교 박해로 가야가 멸망했다는 내용의 소설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학상에 수상작으로 선정돼 물의를 빚었다.

청도반시축제의 찬송가 공연도 지자체 축제의 종교편향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폐막식 프로그램인 추수감사음악회를 청도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면서 기독교연합합창단이 출연 찬송가를 불러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시립합창단 역시 정기연주회에서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찬송가를 연주해 지탄을 받았으며, 전주시가 추진하는 종교관광활성화계획에서 특정 종교성지화가 추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 10. 조계종 승가교육 안착화

조계종 승가교육이 나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준교육과정은 안착화의 일로로 가고 있으며, 종단 연수 교육은 내년부터 법계별 교육으로 재편된다. 또한 종단 스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줄 수 있는 해외 연수도 시행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영상 강좌 역시 현재 14개 강좌가 서비스 되고 있으며, 학인 뿐만 아니라 일반 스님들에게도 무료 공개하고 있다. 동영상 강좌를 청강하는 일반 스님들의 수만 300명에 이르며, 중앙승가대학교, 해인율원 등 단체 가입들도 이어지고 있다.


봉 행

승풍 진작과 종단 쇄신을 위한

# 태 고 산 림

제 25대 총무원 집행부는 승풍 진작과 종단 쇄신을 위한 '태고산림'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이번 '태고산림' 은 한국불교의 전통적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해 온 태고종의 위상회복과 수행종풍 확립을 위해 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이신 종정예하를 증명으로 모시고 종단의 각급 기관장 스님 및 지방교구종무원장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 전국교임전법사 임원진 등이 참석하여 철야정진을 통해 승가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고 향후 종단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법석으로 봉행됩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이번 '태고산림' 에 원력을 함께 해 주시고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총무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도 동참 가능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12월 27 ~ 28일(음력 11. 25 ~ 26) 철야정진
- 입재식 : 27일(금) 오후 7시
- 회향식 : 28일(토) 오전 10시(승풍 진작을 위한 청규 발표)

◈ 장 소 : 태고총림 선암사(061-754-5247)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 802번지)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4)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

신행결산

# 상담·명상으로 일반인 심신 치유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6월 6~9일 봉은사에서 열린 사찰음식대축제에서 불자들이 사찰음식 OX퀴즈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한 '통통콘서트' 를 즐기고 있는 20대 청년들./조계종 포교원이 진행한 금강선원의 청소년 10분 명상에 참가한 학생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조계종 장애인전법단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불교수화동영상을 마련했다.

2013 불교 신행 · 포교 분야는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 및 프로그램이 많았다.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을 진행, 대중에게 사찰음식을 홍보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의 마음치유에 앞장섰다. 또한 시 · 청각 장애인들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화동영상과 점자법요집이 발간됐다. **이나은 기자**

###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 활발

식문화 위기 시대에 대안으로 손꼽히는 사찰음식의 대중화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201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수 사찰음식 행사 지원사업' 에 공모해 선정된 수도사 법주사 백련사 용문사 봉은사 등 12곳의 사찰이 사업을 진행했다. 수도사는 지난 3월 '한 · 중 · 일 사찰음식 대향연' 을 개최했으며, 강화 전등사는 지난 5월 '사찰음식과 프랑스 요리 콜라보레이션' 을 주제로 음식체험행사를 열었다.

### 사회적 약자 위한 힐링 프로그램 다채

올해는 취업난, 경제난,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는 대중의 심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올 초부터 '선(禪)과 심리 상담서비스' 를 시작해 취업준비와 진로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대학생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에게 무료 심리 상담과 선 수행에 대한 길안내를 했다. 또한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함께 노동자심리센터 '도반' 을 설립해 면접상담과 심리검사를 하는 등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안성 활인선원과 제주 원명선원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가정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은 비(非)불자 등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로 고(苦)땡 치유캠프를 열어 2박 3일간 참가자 전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불교 용어대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밖에 대한불교청년회는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통통콘서트' 를 기획해 매월 1회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미니콘서트를 진행해 불교적이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대중에게 다가갔다.

### 어린이 · 청소년 포교활동 박차

어린이를 위한 포교활동도 활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어린이청소년전법단을 출범해 동련, 파라미타, 교법사단 등을 전법지원단으로 구성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수원 용주사는 불교스카우트연맹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제1회 어린이청소년 효행캠프' 를 개최해 200여 어린이들에게 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일선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폭력, 게임 중독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일선 사찰과 협약을 맺고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금강선원은 '10분 집중명상법' 을, 명상상담연구원은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를 계획하고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20회에 걸쳐 진행했다.

### 불교 해외포교 본격 진행

불교를 세계로 알리기 위한 활동도 활발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외국인을 교육해 연등회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연등회 외국인 서포터즈' 사업을 실시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등 20개 국가에서 온 76명의 젊은이들이 한국불교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를 알리기 위해 불교의식, 템플스테이, 불교문화 등을 배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연등회와 불교문화를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불교 세계화' 를 위해 조계종이 설립한 국제불교학교가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해마다 10명의 학인 스님을 뽑아 영어를 중심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2년 동안 해외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배양한 스님들이 활발한 포교활동을 다짐했다.

### 장애인 포교위한 토대 마련

점자 법요집, 불교수화동영상이 만들어지면서 시 · 청각 장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법요집과 교리집을 발간했다. △예불문(오분향례) △한글 천수경 △반야심경 등이 수록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은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와 광림사 연화원과 함께 1년간 삼귀의 · 반야심경 · 청법가 등 불교의식 10종을 비롯해 최신 찬불동요와 봉축주제가 등 46종을 불교수화동영상으로 제작해 전국사찰 및 복지관에 보급했다.

복지결산

# 웰빙사업·국제구호 등 나눔봉사 활발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림사 아리담문화원은 소림사에서 '3W 프로젝트-키즈농부교실' 을 실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텃밭가꾸기, 명상, 전래놀이, 요리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광동고 학생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서 112매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이 필리핀 구호물품 지원에 앞서 예불을 드리고 있다./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민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옥수문화축제' 를 열었다.

불교 복지 분야는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의 진정한 웰빙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소림사 아리담문화원의 '3W 프로젝트-키즈농부교실' 과, 자양종합복지관의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건강권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국내 복지사업에 그치지 않고 해외구호활동도 활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에 농업학교 건립을 선포하고 모금활동을 펼쳤으며,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태풍 하이옌으로 초토화된 필리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 어린이 · 가족 복지 사업 활발

올해 불교 복지계는 어린이 · 가족의 복지 사업이 활발했다. 특히 건강과 심신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활동이 전개됐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NGO단체 공모사업 '저소득가정 지원프로그램' 을 선정해 NGO단체와 복지관에 사업 후원을 했다. 소림사 아리담문화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길벗지역아동센터 등이 지원금을 받아 저소득가정의 복지증진 및 삶의 향상을 위해 사업을 펼쳤다. 소림사 아리담문화원은 아이들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3W 프로젝트-키즈농부교실' 를 201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러브몽실이의 누리보기' 를 진행 아동들이 미술, 음악, 미디어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해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놀이를 통해 신체불균형 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튼튼해가 뗬습니다!' 를 실시해 지역사회로 건강프로그램을 확산시켰다.

### 스님 · 재가자의 장기기증운동 활약

국내 장기기증 희망자가 2009년 18만 4764명에서 2011년 8만 7788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를 통한 장기기증 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님과 불교 단체장들이 적극 나서서 홍보활동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1월부터 주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100명 넘게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명예의 전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지경 스님,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 동화사 포교국장 미수 스님과 광동고 최상균 교장이 법회활동 등을 통해 800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전달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태고종종회 수석부의장 혜공 스님이 직접 700여 스님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진행했다.

### 아프리카, 필리핀 등 국제구호 전개

아프리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제3세계 국가의 구호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5월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 을 개최하고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선원수좌회를 비롯해 스님과 독지가 등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 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금을 전달했으며, 불교포럼 · BBS는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캄보디아에 우물 2000기를 지어 캄보디아 어린이, 지역 주민들에게 급수 공덕을 펼친 지구촌공생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캄보디아 승왕 테퐁 스님은 캄보디아 신규학교 건립 협약식을 맺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구성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혜만)은 태풍 하이옌으로 초토화된 필리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 불교 복지관 지역 내 장수복지관으로 자리잡아

불교 복지노하우를 통해 10여 년간 지역 주민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온 불교계 복지관도 눈에 띈다. 올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10주년을,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5주년을,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5주년을,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20주년을 맞는 등 지역 내에서 장수 기관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지부가 선정해 발표한 우수복지기관에 다수의 불교복지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를 통해 101곳을 선정했다. 불교계 시설은 5곳으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과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으며,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영동권 중에서 가장 큰 아동발달센터로 속초지역 아동발달치료에 힘쓰고 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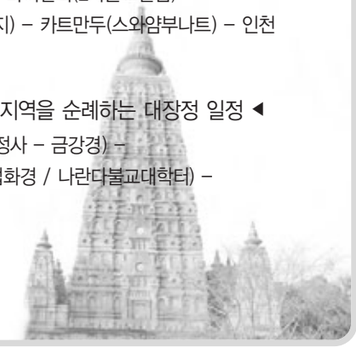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 “모든 종교는 섞여 화엄세계로 흐릅니다”

## 실상사 선지식 대법회

오강남 교수(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인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 틱낫한 스님은 부처와 예수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는 오강남 교수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에는 우리가 흔히 접했던 기독교의 억지도 배타도 강짜도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가 작은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말에서는 두 송이가 어울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종이 한 장에 우주가 담겨있듯 불교도 기독교도 강물처럼 서로 섞이면서 흘러간다. 12월 15일 실상사에서 있었던 오강남 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 만약 예수님이 오래 살았더라면

오늘은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가 어떻게 화합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하려합니다.

세계 평화의 상징 틱낫한 스님은 한때 모자란 생각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후 사람들에게 45년간 설법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간이 겨우 3년에 불과하니 가르침의 폭과 깊이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토마스 머튼 신부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예수의 자비정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불당에 부처님과 예수님 상을 같이 놓고 존경을 표한다고도 했죠.

만약 예수님이 오래 사셨더라면 성경에만 있던 말씀을 되풀이하셨을까요? ‘나는 길 위의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삼지 않고는 하느님께 갈 수 없다’ 등이 실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복음이든 예수님 후대의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고 하는데 이러한 삼위일체사상은 3, 4세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의 자기고백적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 95%는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별종기독교인들 또한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해심, 자비심을 진정으로 체득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만 보고 이분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불교와 기독교 서로에게 속해있어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로 불교와 기독교의 의미있는 만남을 꼽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적인 면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을 제쳐두고 말이죠. 기독교가 새로운 원기를 찾으려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선물이 왔던 것처럼 선불교, 노장사상 등 동양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저는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는 말 대신 서로 통한다,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일본 가톨릭에서는 선사들을 초청해 참선법을 통해 메타노이아(회개)에 이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스님들 역시 성경의 구절들을 공안으로 삼아 화두를 들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법 중에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루에 몇 백 번씩 외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염불선과 비슷하죠. 이외에도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은 종교적 심층에 가는 길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의식하고, 정화하며, 빛을 보고, 합일되는 4단계로요.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십지와 비슷합니다. 세부사항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종이 되겠다는 말보다 더 겸손한 말입니다. 내가 잘못알고 있던 나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니까요.

화엄의 세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울려있습니다. 상직, 서로에게 들어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직합니다. 남자라는 말 속에 이미 여자가 전제되어 있듯,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규정지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화엄의 눈으로 보면 종이 한 장에 구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비도 있습니다. 새소리도, 햇볕도, 공기도, 토양도, 이 종이를 만든 사람도, 그가 먹는 밥도, 농부도, 광부도 온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일진 속에 시방이 다 들어있죠.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이입니다. 종이는 자성이 없으니까요.

기독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 바다도 있고 높고 낮음, 깊고 얕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서로 상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들어가 있고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봐도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 유대교, 그리스 철학, 로마의 법사상이 혼합되어 발전해왔습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혼합되지 않는 종교란 없습니다. 강물과 같아요. 서로 섞이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자기 종교만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기독교가 말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몇 가지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탄생을 위해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12월로 축하일을 정한 것은 동지와 관계됩니다. 해가 짧아지다가 새로 태양이 힘을 얻은 날을 예수의 탄생일과 연계시켜 기념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동정녀 성모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로부터 영웅의 탄생은 특별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영웅이 그렇고 석가모니도 다르지 않죠. 특별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지 과학적 생물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텍스트는 문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의미를 내포하며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강남 교수**는 …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북미와 한국을 오가며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미 여러 대학과 서울대 등의 객원교수, 북미한인종교학회 회장, 미국종교학회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예수는 없다〉,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등이 있다.

> **자신의 하느님 깨우치라는 도마복음 대표 성경 되었다면 불교와 기독교는 이미 통했을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일반인들에게는 거부감없이 다가가기 힘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였다는 오병이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죽은 이를 살렸다는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문자가 아닌 의미를 읽어야하는데 말입니다. 신학자 중 한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심각하게 읽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불립문자라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성경에도 문자를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두고 성경에서는 ‘기적’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igns’,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화살표를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살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원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성적인 욕망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즉 원죄는 아담과 이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온 거죠. 하지만 원죄에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분법적 사고가 없지만 점점 자라면서 나와 너라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눈이 뜨여 자신을 대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끄러운 거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부끄러움을 가리려 무화과 잎을 딴 것입니다.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공동체의 장이 된다든지,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든지, 그러나 이 역시 자기를 대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의식이 원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천당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와 너의 갈라짐이 없는 완전상태이니까요. 그러나 ‘완전한’ 완전상태란 갈라졌다가 다시 합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 선각자들이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하며 우리에게 권한 것도 이것입니다.

### 불교와 기독교의 자연스런 대화를 위해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유한복음 등이 있는데 이는 4세기 성경 정리 후 남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시 전해지던 성경을 폐기하기 아까워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1945년, 그래서 발견된 것이 〈도마복음〉이었습니다. 그 속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성경은 ‘나를 따르라, 배워라, 제자가 되어라’ 등 믿음을 강조하는데 반해 〈도마복음〉은 네 속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깨우치라고 합니다. 도마복음서의 발견은 당시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만약 〈도마복음〉이 그대로 기독교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불교와 기독교는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라는 말에서 아브라함은 우주적 생명이고 모두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생명입니다. 불교에 이를 적용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겠죠. 이는 부처님 자신이 아니라 불성, 생명, 우주적 원리, 깨침입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나가 아니라 더 큰 인물로서의 나죠. 그러므로 기독교와 불교는 영원히 화합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전법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입니다. ‘회개’ 의 희랍어 본 뜻은 의식을 개건하고 보는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하면 실상을 보지 못하는 전도망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인지, 가깝다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매달려 이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kingdom is at hand’ 는 손끝, 여기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원리가 여기에 와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도마복음〉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새가 인간보다 먼저 갔으리라며 하느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 깨침을 얻은 이들은 깨침에 대한 경험을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문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자주의에 빠지면 ‘내 종교’ 라는 주장이 강해져서 다원주의적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불자, 참된 이슬람교도는 거의 다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중요시해요. 이때의 깨달음이란 일생일대의 큰 깨침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듯 작은 깨달음이 모이고 모여서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음은 절대적, 궁극적 실재는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치는 것입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자신을 믿으라고 했으며, 불성이 자기 안에 있다고도 했죠.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알고 자기 안의 신적인 요소, 내 속의 하느님을 깨달으면 문자주의에서 해방되게 되어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도마복음〉에는 ‘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는 말이 나옵니다. 한귀로는 보통 것을 듣고 나머지 한귀로는 보통 것 이상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성인입니다. 성(聖)자 앞머리에는 귀 이(耳)가 있죠. 보통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윤리와 계율을 지키는 이가 성인이 아니라 의식이 바뀐 이가 성인입니다. 종교 간 대화가 없어지면 종교간 평화가 없고 이것이 없으면 세계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려면 이웃종교에 대해 기본적 연구가 있어야합니다. 이때 종교간 소통, 화합이 가능하게 되며 세계가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의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44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 2013년 12월 22일 ~ 2014년 1월 25일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교생은 별도 프로그램 )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 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문의** :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교육프로그램

① **건강회복** : 심신단련,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②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③ **심성정화** : 불교강의, 108배, 참선, 운력

④ **교양수업** : 국악, 다도, 원어민 영어회화, 화랑과 원효대사의 성지순례

1500년 전통사찰·연간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2014

2014(불기 2558)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 과정 | | 기간 | 교과목 | 요일 | 자격 | 시간 | 서류 및 전형방법 | 인원 | 수강료 |
|---|---|---|---|---|---|---|---|---|---|
| 불교학과 | 초급과정 | 1년 |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대승불교, 관음경 | 월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 1교시 : 18:30 ~ 19:50<br>· 2교시 : 20:10 ~ 21:30 | · 입학원서1부 (5,000원)<br>· 반명함판사진 2매<br>· 1차 서류, 2차 면접 | 약 200명 | 1년 10만원 |
| | 중급과정 | 1년 | 천태불교학, 밀교개론 법화경 Ⅰ · Ⅱ | 화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 | |
| 법사과 | | 1년 | 유식사상, 유마경 금강경 , 포교방법론 천태종사, 천태사교의 | 수 |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1교시 : 18:00 ~ 19:20<br>· 2교시 : 19:30 ~ 20:50<br>· 3교시 : 21:00 ~ 22:20 | · 지원서 1부<br>· 반명함판사진 2매<br>· 서류전형 | 약 100명 | 학기당 25만원 |

원서접수

| 원서교부 | | | |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 위치 및 교통 |
|---|---|---|---|---|---|
|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 |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 • 접수 : 2013년 11월 19일(화 ~ 2014년 2월 17일(월) 18시까지 |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br>• 서울 금강불교대학<br>→ 문의) 02.576.6401 |
|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 |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 | • 면접 : 2014년 2월 23일(일) 오전10시 |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br>→ 마을버스 18번 |
|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 |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 |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br>→ 지선버스 3412번<br>(LG연구소, 우면APT, 관문사에서 하차) |
|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 |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 |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
|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 |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 | | |
|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 |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 | | |
|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 |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 | |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 불교학 세계화 주도… 근대불교유산 목록화

## 2013 불교학술 · 문화재 결산

2013년은 불교학 분야와 문화재 분야 전반에 많은 사건이 있었던 해였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뒤로하고 올 한해 불교학계와 문화재와 관련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결산해 본다.

노덕현 기자







2013년 한해 동안 이슈가 된 학술문화재 사건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장경 훼손 파문 당시 긴급조사단의 조사 모습, 로버트 버스웰 교수와 도날드 로페즈 교수의 〈프린스턴 불교사전〉 발간, 반환 논란이 인 서산 부석사 불상, 금강대와 하버드대의 동양학총서, 부산 현응 스님의 동국대 6억원 기부금 전달식 모습.

### 문화재 관리 부실 파문, 보수 속속 시작

2013년은 문화재 전반에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견됐다. 석굴암 본존불의 부재 갈라짐 현상과 함께 대장경에 대한 재조사, 대장경 중복판 훼손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됐다. 이 중 대장경판은 문화재청에서 대장경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증 손상을 확인하며 2014년부터 보존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석굴암 상황을 확인하러 오는 등 문화재 보존에 전국민의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십수년간 준비해온 석가탑과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에 들어갔다. 특히 석가탑은 1271년 에 전면 해체 보수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기단 내부에서 금동불입상이 발견됐다.

이런 문화재 보존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해외반출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에 반가사유상을 보내는 것을 불허하자 문광부에서 반출을 요구하는 등 홍역을 치른 끝에 결국 전시를 위해 반출된 것.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성보문화재를 쉽게 전시하는 일은 국격(國格)을 낮추는 것으로 존경의 대상인 성상이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불교계가 반대 입장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와 피로도 측정을 통한 반출 한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두고 '갑론을박'

서산 부석사 불상은 1330년경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됐다. 일본 정부의 반환 요구에 한국 법원은 2월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부석사와 불교계는 반환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가처분이 확정되고 반출 경위가 조사되는 과정에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주장했으며 유진룡 문광부 장관 등이 국제규약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또 부석사 불상이 모조품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부석사 불상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 민족유산 '대장경' 주제 행사 '눈길'

3월 28일에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 등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전산화 작업을 해 온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이날 자리에서는 초조대장경 복간본 봉정식이 열렸으며 대장경 전산화에 공로가 큰 이태념 교수, 이어령 前문화부 장관 랭카스터 교수 등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9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글로벌 한국불교' 동아시아 불교네트워크 구축**
**'문화재 관리 파문' 대장경 · 석굴암 등 입방아**
**'부석사 불상 반환 논란' 불교계 강력반대 천명**

45일간 합천 해인사 일대에서는 대장경 축전이 열렸다. 올해 대장경축전에는 206만명이 찾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장경축전 조직위는 스님들의 기도장소로만 사용돼 온 마애불입상(보물 제222호)을 1,200년 만에 일반에 처음 공개하고, 전시, 학술, 공연, 체험 등을 다양하게 개최했다.

또 축전을 기해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려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대장경의 영문표기를 '삼장(Tripitaka)'이 아닌 '한국불교전적(Korean Buddhist Canon)'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불교계 힘으로 전국사지 발굴 '시작'

5월 1일 경주 미탄사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나 외부 연구소에 기대온 전국사지의 시 · 발굴 조사가 최초로 불교계 자체 힘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는 전국사지 시 · 발굴 조사사업은 2017년까지 전국 폐사지 중 훼손이 심각한 곳이나 역사 · 문화 · 교육 효과가 큰 곳부터 실시된다. 2013년에는 경주 미탄사지와 보성 개흥사지에 대한 시굴사업이 진행돼 미탄사지에서는 토제 나한상 등이, 개흥사지에서는 고려불상 등이 출토돼 사적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삼천사, 삼척 삼화사 등 옛 절터서도 현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근현대 불교문화재 '총정리'

불교계는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을 정리해 목록화하기도 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근현대 시기 불교조각, 불교회화, 공예 및 전적 분야 81건의 유물이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근 · 현대 불교 유물을 선정하고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계획이다.

### 동국대에 불교계 기부액 역대 최대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불교계 나눔 릴레이가 계속 이어져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2013년 동국대가 모금한 발전기금 253여억원 중 부동산으로 기부된 만해마을 시설 일체 평가액인 200억원을 비롯해 약 20억원이 불교계로부터 모연됐다.

특히 30년 전 출가할 때 생긴 승복을 기워 입고 사는 부산 현응 스님이 모은 6억원을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동국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주요 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 2013년 중앙일보 대학생 만족도 평가에서는 8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조선일보 QS아시아대학 평가에서는 사회과학-경영학 분야 아시아 41위 (국내대학 중에선 6위)의 성적을 거뒀다.

### 우수학술도서 종교분야 중 불교 '전무'

6월 27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우수학술도서 중 종교분야에서 불교주제 학술서가 단 한권도 없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른 분야까지 통틀어 불교주제 학술서는 3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불교출판협회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는 선정과정과 심사의원의 종교편향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를 담당한 출판진흥원은 '일반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웠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 등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술 진흥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불교학 세계화 해외 명문대학과 진행

불교학계에서 2013년은 세계화가 진행됐다. 동국대가 베이징대, 도쿄대, 타이완대와 2014년 5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워크샵 · 대회 개최를 하기로 하는 등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 이어 금강대도 하버드대와 동양학 총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협력이 본격화됐다.

여기에 영어권 최대 불교사전이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12월 11일 출간돼 불교영문용어의 정립에 새 장을 열기도 했다. 로버트 버스웰 UCLA대 교수와 도날드 로페즈 미시간대 교수가 펴낸 〈프린스턴 불교사전〉에는 총 1,304쪽 분량의 불교용어가 수록됐다. 이같은 흐름은 2014년에도 이어질 예정이기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12월 20일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을 발간했다.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은 총 3권으로 생전 논문, 기고문, 단행본 등을 비롯해 미발표된 원고 등이 함께 실렸다.

이와 함께 반야로차도문화원은 문집 발간과 개원 30주년을 기념한 생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문비봉정과 문도 공로패 수여, 공수선차도 시연, 차담회 등이 진행됐다.

채원화 원장은 "효당 최범술 스님은 한국차문화를 중흥 시킨 이"라며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한국차문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차도인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한국 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차도인으로 안선재 서강대 교수가 선정돼 효당차문화상을 수상했다. 또 화림 김춘희, 화정 최화정 씨 등 6명에게는 반야로 문도 공로패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 "학계 '파벌'로 이익집단화 되고 있다"

### 흥선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세미나서 제기



"학계에 학문의 세계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파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대학 선후배 동창 그룹이 있으며 학문적 동료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이다."

前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12월 13일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정인)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불교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불교고고학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스님은 "그룹의 동료, 선후배, 스승이 논쟁의 상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털어놨다.

스님은 "학회나 학술대회 같은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도 비판과 공격의 대상은 자기 그룹에 속한 동료와 선후배, 스승이 논쟁의 상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금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이런 모습을 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도 독점해 연구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며 "공개와 논의 등 열린 자세를 통한 진정한 불교학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천태종 중앙박물관, '한국서지학' 학술회의

천태종 중앙박물관(관장 보광)은 12월 21일 서울 관문사에서 '한국서지학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쟁점'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고산 천혜봉 선생 도서 기증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치우 경성대 명예교수의 '천혜봉 선생과 한국서지학'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강순애 한성대 교수의 '향산삼체법 칠언절구의 구성내용과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김상호 대구대 교수의 '실록자의 보자에 관한 쟁점' △한상봉 한국서예금석문화연구소장의 '서기 이씨와 보정사목활자' △차광호 불교천태중앙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삼국유사의 저술목적과 편찬주체 검토'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사 연구논집〉 펴내

한일불교유학생협회(회장 현해)는 조계종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계종사 연구논집〉을 발간했다. 〈차주상보〉

한일불교유학생협회는 12월 2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조계종사 연구논집〉 발간을 기념해 제 5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일불교유학생협회 상임공동대표 현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와 총회, 학술세미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한국불교 조계종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전근대 조계종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근현대 조계종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동방대문화교육원 2014년 학습진로상담사과정 모집**

**▶ 3월 개강 ◀**

◇ 저서 : 규명 1권 : 명리입문자용 (한솜미디어)
규명 2권 : 명 리 상 담 술 (한솜미디어)
규명 3권 : 진로와 전공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11대 임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11대 임원진은
불법 홍포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회 장** 광혜 무문

**고 문** 자용(1기), 법운(9기)

**명예회장** 박담 학명
**부 회 장** 원행(19기), 귀영(2기)

총무부장 지련(22기)
기획실장 법정(21기)
수석감사 덕성(5기)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혜성(35기)
포교분과위원장 보덕(21기)
기획분과위원장 혜인(23기)
의례분과위원장 명원(37기)
각 기수 :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자문위원** 진우(3기), 청암(24기), 덕인(7기)

**수석부회장** 혜정(41기), 혜진(11기)
**사무총장** 지담(30기)

재무부장 지선(30기)
대 변 인 진성(39기)
감 사 종산(41기)
학술분과위원장 성담(26기)
연화(무료결혼)분과위원장 광덕(33기)
문화분과위원장 혜진(21기)
인권분과위원장 지행(15기)
각 기수 : 총무는 당연직 이사

사무실 :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14호
전 화 : 02)735-1053. 사무총장 지담 010-2313-5671

# "5·18 명예회복처럼 10·27법난 처리도"

## 광주 시민들, 10·27법난 지역강연회서 한 목소리

"어릴 적 겪었던 5 · 18의 아픈 상황들이 불교에서도 일어난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불교계의 명예회복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 전국 5000여 곳의 사찰에 계엄군과 경찰 3만 2천여 명이 일제히 들이 닥쳤다. 신성한 법당은 군화 발에 짓밟히고, 200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은 감금과 연행이 되고, 그중 일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국가는 한국불교를 마치 사회악인양 매도하였다. 바로 '10 · 27법난' 이다.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지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빛고을 광주에서는 12월 19일 라마다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10 · 27법난 지역순회 강연 및 간담회' 가 열렸다.

지난 2008년 2월 국회에서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가 설치된데 이어 법난 상황을 일반불자들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지역강연회는 지난 12월 4일 열린 울산강연에 이은 두 번째다. 10 · 27법난 당시 큰 고초를 겪은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의 특별강연과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 10 · 27법난 관련 영상시청 등이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이날 강연회에서 "역사는 역사를 먹고산다. 역사를 도외시하는 민족과 국가는 결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 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10 · 27법난과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500여 광주시민 모여 법난 상황 경청**

**피해자 스님 "다시 일어나선 안될 일"**

**시민들 "불교 명예회복 적극 나서야"**



12월 19일 광주 라마다 호텔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한목소리로 10 · 27 법난으로 피해를 받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총무원 사회부장 보화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등 본말사 주지 50여 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무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다시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교계가 단결해야 한다" 며 "오늘 강연회를 통해 법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10 · 27법난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불자들 또한 놀라움을 표시했다. 특히 5 · 18민중항쟁을 겪은 광주지역 불자들은 당시 군부에 의해 진행된 수많은 만행들에 대해 울분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광주 주월동에 거주하는 신주영 씨는 "어릴 적 겪었던 5 · 18의 아픈 상황들이 불교에서도 일어난 것을 처음 알았다" 며 "빠른 시간 안에 명예회복을 통해 고통받았던 불교계가 치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당시 종단스님 9,700여 명을 일괄적으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까지 법난심의위원회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도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전남포교사단 전진대회 및 단장 취임식




군부대, 교도소, 복지시설 등 포교 곳곳에서 활동을 펼치는 포교사들의 한마당행사가 펼쳐졌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는 12월 14일 동구 수자타에서 '불기 2557년 광주전남 포교사 전진대회 및 제7 · 8대 단장 이 · 취임식' 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8대 신임단장인 김정연 포교사(사진)가 취임식과 함께 2013년 우수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법규위원장 몽산 스님, 포교국장 노휴 스님과 불교신행단체 회원을 비롯한 200여 포교사들이 동참했다.

김정연 신임단장은 취임사에서 "포교의 핵심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찾을 수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 강조하며, 끝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진대회에서 중앙단 총재상에 이현아, 중앙단장상 정동축, 지역단장상에 채순이, 서승유, 김락중, 박기환, 강진욱, 손복순, 신면호, 최현기 포교사각 수상했다. 이어 감사패를 각안스님, 정민순, 장정자, 공로패가 임영광, 김경영, 강막례, 조현옥, 조기남 포교사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제 6회 복운문화축제 및 송년행사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도완)은 12월 19일 한해동안 복지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300여명을 초청해 '제 6회 복운문화축제 및 송년행사' 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과 발표회, 전시회에 이어 2부 송년행사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도완 스님은 "배움에 모든 열정을 쏟은 모든 분들이 발표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며 "지역에서 수행되는 복지사업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고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수 있었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표회는 연극, 실버악단, 합창, 밸리댄스, 난타등 '열정' 과 '끼' 를 마음껏 발산하는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한지공예, 서예, 문인화등 작품전시회가 열려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 백로다회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과 후원업체 (주)고창 황토배기유통과 (사)고창밀알회와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불교회관 보각 스님 초청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륭)은 12월 15일 4층 큰 법당에서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 보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신행활동과 불법수호에 노고가 많은 지역 불자들을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 며 "보다 적극적인 신행활동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불자들이 노력하자" 고 말했다. 김백호 신도회장은 지역불교 발전을 염원하며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정기적인 법회를 열고 있다.

보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나라고 하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며 "집착과 속박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참 나를 찾는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고 설했다. 스님은 또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산다. 날마다 내 마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득차게 된다" 는 좌우명을 소개하고 "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가치있는 삶을 살아달라" 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자비의 김치 1만 6000포기, '남미륵사' 화제

## 전남 최대 김장 보시, 강진 · 장흥 지역에 전달

동양 최대 규모의 아미타좌불상이 모셔져 있는 강진 남미륵사가 전남지역 최대 규모의 김장을 담가 지역 소외이웃들에게 전달해 화제다.

세계불교미륵대종 남미륵사(주지 석법흥)는 12월 11~18일 일주일간 신도 대중 300여 명이 김장 1만 6000포기를 담가 19일 강진군청에 전달했다.

남미륵사는 매년 연말 결손가정과 독거어르신 가정 등에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이불과 쌀 등 물품과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김장김치 5kg 600박스를 비롯해 10kg 쌀 400가마 등이 전달됐다. 전달식 이후 남미륵사 신도들은 강진 · 장흥지역의 각 면단위로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남미륵사 주지 석법흥 스님은 "사찰을 창건한 이후 대중에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불제자로서의 의당 해야 할 일" 이라며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많은 김장을 담그면서 묵묵히 함께 해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강진 남미륵사 주지 석법흥 스님이 남미륵사를 찾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남미륵사 신도들은 직접 강진 · 장흥 지역에 김치 1만 6000포기와 쌀 400가마를 전달했다.

**1주 간 사찰 신도 300여 명이 담가**

**쌀 400가마와 함께 강진군청 전달**

한편,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위치한 강진 남미륵사는 1980년 석법흥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동양 최대 규모의 36미터 황동 아미타좌불상을 비롯해 18미터 해수관음상 등을 모시고 있다. 한국식 대웅전을 비롯해, 중국풍 관음전과 사각 33층 석탑, 인도풍 만불전 등 한국과 중국, 인도의 세부분으로 구성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규모 사찰부지에 사찰 속에 마을이 함께 있는 독특한 곳이다.



강진 남미륵사의 아미타좌불상

노덕현 기자

# 전남문화재연구소 2014년 1월 8일 개소

전남지역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조사하고 보존하는 문화재연구소가 공식 출범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부설단체인 전남문화재연구소를 무안 삼향읍 후광대로 전남개발빌딩 4층에 연구소를 마련, 2014년 1월 8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개소를 기념해 내년 상반기에 유적정비와 발굴을 비롯, 서남해 도서지역의 고고역사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고고학, 고대사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학술지 발간, 문화재 체험 및 답사, 도민강좌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에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 20개, 보물 167개 등 모두 1101개의 중요 문화재가 있다.

정광덕 전남문예재단 사무처장은 "지역개발에 따라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향토사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겨울방학, 경주서 문화 체험을

## 가족과 함께하는 신라문화체험장

겨울방학을 맞아 자녀들의 체험학습여행으로 불국토 경주를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신라문화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신라문화체험장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 아니라 몸으로 즐기면서 천년고도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가족단위의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신라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 경주 체험관광의 최적지

천마총과 첨성대 인근에 자리한 진각종 경주 홍원심인당과 함께 자리한 신라문화원의 신라문화체험장은 문화재 관람만으로 2% 부족하다고 느낄 때 찾아보면 좋은 곳이다.

최근 일반인이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중앙문을 개방하고 마당을 공원처럼 꾸며 일반인들도 맘껏 들어올 수 있는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300여 평의 실내에 조성된 신라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러 동물들의 탈과 백등 만들기, 탁본, 칼라 클레이로 와당만들기, 금관체험, 비누만들기, 한지 부채 만들기 등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 하다.

또한 첨성대, 석가탑, 황남대총, 석굴암 등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블록체험을 하며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 문화재 만들고 놀면서 배우고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연 만들기 체험도 겨울철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선덕여왕 시절 비담의 난 당시 김유신의 재치로 연에 불을 매달아 날려 군사들의 사기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전해오는 데서 연유한다.

### 불교 대표 사회적기업 '우뚝'

2008년 3월 신라문화원을 모법인으로 개장한 신라문화체험장은 천마총, 첨성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체험프로그램도 저렴한 비용으로 경주만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 체험물을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체험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를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신라문화체험장은 2012년 문화를 활용한 대표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체험형 관광을 선도하고 문화재모양 초코릿, 비누만들기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국내 · 외 관광객에게 제공하면서 30명의 고용창출까지 이끌어냈기에 얻는 쾌거다.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실내라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을 많이 유치해 앞으로 경주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054)777-1950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혜암 스님 12주기 추모다례재

## 12월 19일 해인사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12주기 추모재가 12월 19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과 문도스님들은 일찍 혜암 스님이 주석했던 미소굴을 참배한 후 비림 부도전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님의 열반12주기를 맞이하여 다례를 모셨다.

이 자리에는 혜암문도회 회장 성법 스님,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 무영 스님들과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석가모니불 정진이 울려퍼진 대적광전에서는 혜암문도회스님 해인사 소임스님 각말사 감원스님 대중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의 헌다, 헌향, 헌화의 예를 시작으로 문도대표 성법 스님,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


전 종정 혜암 스님 추모다례재 장면.

참배로 이어졌다. 대중들은 혜암대종사의 육성법어로 "열반과 생사는 둘이 아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는 짧은 법어를 들었다.

혜암당 성관대종사는 1920년 탄생 1946년 27세에 해인사에서 입산하여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주지와 종단의 원로의원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해인총림 제6대 방장과 제10대 종정을 지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 대선불교조계종 15일 송년법회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의 캐치프레이즈로 2013년도 종무결산 및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능) 발전을 위한 송년법회를 12월 15일 대구 효목동 '짝 라이브 '에서 개최했다.

이날 진행은 총무부장 보각 스님 사회로 진행됐다. 교육부장의 상축에 이어 내외빈 소개, 각 사암 주지스님 임명장 수여, 김재충 대선불교조계종 신임 중앙신도회


대선불교조계종이 12월 15일 송년법회를 하고 있다.

장 임명장 수여, 각사암별 표창장 수여가 있고 감사원장 스님의 2013년 종결산 감사보고가 있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조옥자 신임회장 취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2월18일 코모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대,제5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5대 조옥자〈사진〉 씨가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순 전 회장,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정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명이 함께했다.

조옥자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김윤순 전 회장의 꿈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연합합창단의 모델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산 불교음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음성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김윤숙 회장이 임기동안 보여준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치하하고, 새로 취임하는 조옥자 신임회장은 1998년 범어사 합창단에 들어와 2012년 범어사 합창단장으로 활동해온 능력을 합창단연합회의 발전에 쏟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절집 환경 이래도 괜찮습니까"

예로부터 사찰은 지극히 청정한 곳으로 인식되어왔다.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경내 · 외를 청소하고,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건과 집기들을 제대로 정리 정돈하는 것은 바로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며, 그러한 노력이 곧 사찰을 청정한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비우라' 고 가르치는 것은 비단 마음을 비우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 말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비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듯이 사찰의 환경을 비우지 못하면 사찰의 청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찰은 수행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사찰환경을 적당한 수준으로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찰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도구나 집기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살림이 큰 사찰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사찰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여 심지어는 전각 주변공간까지 이것저것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규모가 큰 사찰이라고 해서 청정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사찰의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일단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치워 공간을 비운 까닭이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들을 함께 두지 않고, 잘 정리정돈해서 환경이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뒤섞여 있거나 쓰임새가 다른 것들이 함께 놓여있을 때에는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들이라 하더라도 좋아 보이지 않고 청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

사찰환경의 청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그 사찰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찰환경을 진단해보기를 권한다. 현재 사찰이 가진 청정성 점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평가는 공간별로 또는 내용별로 5점 척도를 만들어 점수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체로 사찰의 환경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사찰이 무엇 때문에 청정한지, 무엇 때문에 청정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청정한 것은 보다 더 강조하고, 청정하지 않은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지속적으로 사찰환경이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끝〉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환경의 청정성은 조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은 경기도 ㅂ사찰 모습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아, 참 사랑(인생)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의 본질은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자비)' 그 자체이다.
생명과 '나(에고 · 我相)'의 탐구를 통한 행복성취의 기술



관조를 통한
영혼의 치유 셀프힐링self healing
사랑학 개론
배재국 지음
4*6판 | 흑백 | 355쪽 | 12,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타인과 세상에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것이 되돌아온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지혜와 치유의 '인과법칙' 이야기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은 베품 속에 있다!"
액자식 스토리텔링으로 '의식과 삶의 변혁' 이루는 자기계발 소설
베품의 법칙
김주수 지음
4*6판 | 2도칼라 | 272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眞)참회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는
현재 31종 6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 지옥은 중생들로 넘치는데 명부전은 텅 비고…

## 기도하기 좋은 지장도량 - 대구 비슬산 소재사(消災寺)

'비슬산소재사' 돌계단 끝에 서있는 일주문의 현판이 산자락에 걸린 듯 보인다. 비슬산(琵瑟山), 소재사(消災寺). 현판을 올려다보고 있으니 또 다른 세상 앞에 서있는 듯하다. 산 이름도 그렇고, 절 이름도 그렇고 모두 다른 세상이다. 거문고를 타고 있는 산에, 재앙이 소멸되는 도량.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문 앞에서 이름을 달리 한다. 어느 산문이든 걸어온 길을 잊고 들어서야 하는 것이기에 그 들어서는 발걸음이 늘 새로웠던 것인데, 너무도 다른 세상의 산명과 사명은 오히려 걸어온 길을 낯설게 했다. 비슬산 기슭, 비슬산자연휴양림 안에 자리한 소재사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안에 자리한 소재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개산 연대는 알 수 없다. 마당의 단풍나무 한 그루가 마른 잎을 매달고 설법하듯 서 있다.

### 소재사는

일주문을 지나면 도량이 한 눈에 들어온다. 풍경(風磬) 소리 하나 없다. 깔아놓은 자갈 위로 발자국 소리만 따라온다. 대웅전 한 채, 명부전 한 채, 삼성각 한 채, 종무소 한 채가 전부다. 초록도 아니고 이제는 단풍도 아닌 단풍나무가 마른 잎을 매달고 법당 앞에 서있다. 설법이다. 그렇게 서있는 것이 왠지 그렇게 보였다.

비슬산 남서쪽 중턱에 자리잡은 소재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한 개산 연대는 알 수 없다. 사기(寺記)에 따르면 1358년(고려 공민왕 7년)에 진보 법사가 중창했고, 1457년(조선 세조 3년)에 활륜 선사가 중건했으며, 1510년(조선 중종 5년) 선주외암이 중수했다. 지금의 대웅전은 맞배형의 당우로 1673년에 지었으며, 1857년(조선 철종 8년)에 법로 화상이 중수했고, 그 후 몇 차례의 불사를 거쳤다. 대웅전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로 약사불과 연등불이 협시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로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재사라는 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체의 재앙을 소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장도량이다. 대웅전 보수불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서는 현재는 모두 폐사 상태였으나 산내 암자와 더불어 상주대중이 3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로 많은 고승 대덕이 머물렀던 도량이라 전한다. 아쉬운 것은 소재사에 대한 기록들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음이 늘 아쉽기만 한 것은 아니다. 궁금함이 주는 기대가 묵은 도량의 멋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


소재사 전경

### 지장보살의 대원

한때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을 하셨다. 그때 시방(十方)의 한량없는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마하살이 법회를 찾아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 미묘한 법의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를 비롯한 모든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 아래 사람들과 용, 귀신무리 등이 또한 법회에 모여들었다.

이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모든 불보살과 천, 용, 귀신들을 보았는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도리천궁법회를 찾은 이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불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겁의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고, 앞으로도 제도할 이들이니 지장보살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고개 숙인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은 어떤 원을 세우고 실천했기에 이런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아,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삼라만상의 티끌과 낱낱을 센 수만큼의 강이 있다. 그 강에는 한량없는 모래가 있는데, 이 모든 모래 수만큼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 있는 낱낱의 티끌을 겁이라 한다. 그리고 이 겁이 모든 티끌 수만큼 쌓였다고 해도, 지장보살이 십지과위를 증득하여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 천배나 많다.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불에 있을 때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문수보살아,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현세나 미래세에 어진 사람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그 형상을 그리거나 봉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고 영원히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명부전에는 대웅전의 삼존불과 같은 시기인 1674년에 목조지장보살좌상을 모셨고, 함께 석조명부시왕을 비롯하여 판관, 녹사, 사자, 장군, 동자상을 모셨다.

늘 지옥 중생을 바라보고 있는 지장보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랜 겁 전에 이름난 장자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 부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된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물었다. "어떤 행을 닦았기에 그런 상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에 부처님은 장자의 아들에게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에 걸쳐 온갖 고통 받는 중생을 건져야 하느니라."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장자의 아들은 서원했다. "나는 이제부터 고통 받는 육도중생의 성불을 위해 나의 성불을 미루리라."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대원을 세운 장자의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백천만 나유타의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살로 남아 있는 것이다.

### 텅 빈 명부전

대웅전 바로 옆에 명부전이 있다. 그토록 오래된 지장보살의 시선이 변함없이 사바를 살피고 있다. "인간세상의 동쪽에는 철로 둘러싸인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나 달의 빛이 없습니다. 이 어둡고 깊은 곳에 극무간이라는 큰 지옥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악업의 과보로 가는 곳입니다. 화탕지옥, 검수지옥 등 고통스러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명부전엔 아무도 없다. 지장보살이 성불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 지옥은 아직도 중생들로 가득한 것인데, 지장보살이 계신 명부전은 텅 비어 있다. 아직도 지옥에 중생들이 가득한 것은 우리 중생들이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토록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지장보살을 모신 도량에 간다면 지장보살의 지옥이야기를 꼭 듣고 올 일이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삼악도를 면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 뵙고 올 일이다. '지옥'을 듣고 올 일이다. 지장보살의 성불은 중생이 '지옥'을 믿는 그날이어야 할 것 같다.

대구 비슬산 소재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주변보기

▲**비슬산자연휴양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휴양림길 126 / 053-668-5326

소재사가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은 대구의 남쪽에 위치한 해발 1,084m의 비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35호인 비슬산 암괴류와 천년고찰인 유가사와 소재사, 용봉동석불입상, 대견사지삼층석탑 등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울창한 숲과 통나무집, 콘도, 청소년수련장, 야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와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이다.



▲**허브힐즈**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03 / 053)767-6300

허브힐즈는 허브, 자연, 숲, 동물, 문화&체험, 놀이가 함께 하는 복합 자연공원이다.

〈사찰〉

▲**유가사** /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 053-614-5115

827년(신라 흥덕왕 2) 도성이 창건했다. 전성기에는 3천 명의 승려가 머물렀다고 하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 1682년(숙종 8) 도경(道瓊)이 대웅전을 보수했고, 1729년(영조 5) 취화와 파봉, 1760년 보월, 1776년 밀암, 1797년 낙암이 각각 중수 또는 중창한 바 있다. 1976년부터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켜 오늘에 이른다.

▲**운흥사**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신라 흥덕왕(재위:826~836) 때 운수가 창건했다. 창건 당시에는 동림사(棟林寺)라고 불렀다. 1592년(조선 선조 25) 임진왜란 때 유정(惟政)이 이곳에 머물며 3백 명의 승병을 거느리고 왜군과 싸웠다.

〈숙박〉

-비슬산자연휴양림/ 053-668-5326

-스파벨리 / 053-608-5000

가창면 냉천리에 위치한 스파벨리는 지역 최대규모의 종합휴양시설이다.

〈식당〉

-카페 연 / 053-616-0131 / 산채비빔밥

-청산고을식당 / 053-614-1808 / 촌닭

-길목가든 / 053-615-7400 / 산채비빔밥, 토종닭

-은서민박 식당 / 053-615-6555 / 촌두부, 손칼국수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미얀마 불교 이야기

18. 상좌불교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

# 상좌불교는 세계불교 지탱하는 '지렛대'

불교공부를 하면서 늘 생각해 본다. 역사적으로 불교국가의 롤 모델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였는가? 마찬가지로 현재 살아있는 불교국가로서의 롤 모델을 찾는다면 어느 나라인가? 한국인가? 일본 또는 중국인가? 아니면 인도나 스리랑카 아니면 태국인가?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현재로선 미얀마를 들고 싶다. 일반적으로 상좌불교권에서도 미얀마는 인도불교의 옛 전통을 오늘날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순수성과 전통적 보수성이 많이 거론된다. 미얀마의 양곤대학에 객원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이은구 교수는 미얀마는 "아직도 초기불교의 순수한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필자 또한 초기불교전공자로서 많은 부분에서 이 말에 공감한다. 그래서 앞으로 미얀마 불교연구는 인도의 초기불교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진행시켜보고자 한다.

미얀마인은 전국 어느 곳에서 파고다를 건립하여 불국토화를 이루려한다. 그리고 항상 눈 뜨면 파고다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심성을 정화한다. 파고다의 나라인 미얀마는 어디를 가나 따뜻한 인간미가 물씬 난다. 미얀마에서 불교 또는 사찰의 사회적 기능은 지역 사람들의 회합장소는 물론 지역 사람들의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예배와 수행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때문에 미얀마에서 승려와 일반 신도 간의 유대는 일상생활에 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절과 스님을 찾아가고, 스님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가르침으로 병자를 위안시키며 처방을 가르쳐 준다. 사찰에서의 어린이 교육, 스님들에 대한 재가자들의 공양과 보시와 봉사, 재가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찰에 머물며 수행하는 관습, 정기적인 법회가 운영되어 재가자와 출가자간의 유대감이 깊다.

미얀마 불교도의 경제생활은 경전에 나오는 사분법(四分法)에 의거하고 있다. 사분법에 따라 적극적인 보시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불교 교단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된다. 재가자들은 사원이나 불탑의 신축이나 수리 또는 불상의 도금과 같은 큰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임종에 다다르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원이나 불교 기관에 보시한다. 출가자는 매일 예불 후에 참회를 하고 예불 후가 아니라도 참회할 일이 생기면 다른 스님에 다가가서 쭈그리고 앉아 서로 참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지계로 재가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스님들은 재가자들로부터 '완전한 존경'을 늘 의식하고 모든 일에 있어 여법하게 행하려는 긴장이 있다. 마찬가지로 재가자들도 수행처의 공동생활에서 스님께 참회하는 의례는 생활화되어 있다.

이처럼 미얀마에서 재가자와 스님은 항상 함께 걸어가고 함께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진다. 때문에 미얀마는 불교를 떠나서 논하기가 어렵다. 흔히 미얀마인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불교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진다.

미얀마에 오래 머물며 사는 사람들에게 미얀마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기도 물어보기도 하였다.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미얀마인은 교육이 잘되어 있고 사람들이 순하고 착하다한다. 그들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자재력이 있어 폭력적이 않다고 한다. 이러한 심성이 형성되기까지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신뿌 등의 단기출가 경험과 불교도로서 오계(五戒)와 같은 불교도덕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유이다. 때문에 미얀마는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살인과 도둑 그리고 성범죄 등의 범죄율이 낮게 나타난다. 지방이라도 밤늦은 시간에 도로변 시골 절의 법당에 모여서 위빠사나 수행하는 남녀노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다.







미얀마는 불교성향으로 아직 자본주의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미얀마의 불교 정체성을 지키는데 한국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사진은 미얀마 시골 마을의 풍경(①)과 마을주민들(②), 사원에서 기도하는 미얀마 불자들의 모습(③).

최근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前코트라 관장의 설명에 의하면,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서 의식주에 있어 '생존경쟁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먹는 문제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미얀마 전통사상과 문화에 따라 '온순한 국민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미얀마인은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라한다. 흔히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애매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미얀마인은 예의가 바르고 자존심이 강하다. 궁색해도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거나 아부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이 몸에 갖추어져 인격적 모욕을 받지도 주지도 않으려는 세심함이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에 대해

**동남아·상좌불교 경시 풍조 개선돼야**
**동남아·동아시아 불교 소통 필요**
**미얀마 불교정체성 지키는데 도움줘야**

배타적인 공격성을 보이지 않으며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류 영향인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미얀마인은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노동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향이 이야기된다. 생존경쟁이 없는 나라로 평가되는 이면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이는 종교성이 강한 나머지 경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에서 "론지와 슬리퍼는 느림의 미학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처럼 빨리 빨리 서두르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미얀마인을 접하면서 느끼는 미얀마인에 대한 인상은 항상 긍정적이다. 항상 미얀마인은 착하면서 결기가 있고 비굴하지 않는 의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불교영향이라 본다. 필자는 1년 전 스리랑카 아상가 교수와 미얀마에서 여행 중에 "미얀마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인으로 태어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기억이 난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번 지나가는 여행자와 달리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나라의 이면을 깊이 보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필자는 미얀마나 우리나라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미얀마에 오래 머문 사람들일 수록 미얀마인의 심성에 존경심을 나타내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미얀마를 칭찬하고 염려하고 또한 변호하려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마련이다. 필자가 염려하는 미얀마 불교는 국가나 재가사회의 견고한 지원과 보호가 불교계 스스로의 비판과 반성정신을 무디게 하여 정체(停滯)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세계의 일반적인 조류가 미얀마 사회에 영향을 미쳐 미얀마인의 심성이 변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체류하면서 만난 유럽인 등의 많은 외국인들도 걱정하는 바가 마찬가지이다. 미얀마의 개방과 동시에 다른 나라와 같이 자본의 맛에 각박한 세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필자는 미얀마만큼이라도 각박한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칠고 각박하지 않는 착한 심성이 살아있는 인류의 최후 보루 지역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마찬가지로 어느새 미얀마 불교 이야기도 마감해야 할 때이다. 최종회임을 알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하며 놀랐다. 첫 회를 다시 읽어 보면서 과연 처음의 집필방향에 부합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 〈미얀마 불교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쓴 많은 분량의 초고를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본래 의도된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은 서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미얀마 불교를 공부했느냐고 물었다. 물론 필자는 인도불교전공이고 다시 세부적으로는 초기불교전공자이다. 필자는 현재 한국외대의 인도연구소에서 동부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를 지역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중이다. 때문에 매주 3국의 신문을 보고 종교와 문화에 관한 3국의 '주간동향'과 3개월마다 '이슈 페이퍼'를 작성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인도에 머물 때 매일 거르지 않고 인도신문을 본 덕분에 인도의 이해는 나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새롭게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연재와 함께 미얀마의 불교역사와 문화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남아나 상좌불교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치중되어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 일 것이다. 불교인들조차 미국과 서구를 추구하는 것에 경도되어 동남아 불교권을 단지 정치경제적으로 후진 나라 정도로 여기고 제대로 불교적 의미에서 그 진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동남아 불교에 관심을 확대해 보면서 주위를 환기시켜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불교인들이 동남아불교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될 때 동남아불교 또한 한국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언젠가는 동남아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은 불교라는 사방승가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현재 소통이 강조되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미래불교를 위해 한국불교와 미얀마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계화와 여행 자유화 시대에 상좌 불교권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필자는 언제부터인가 상좌 불교권이야말로 세계 불교를 지탱해주는 '지렛대 불교'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불교권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불교권은 물론 다른 불교권에 미치는 여파는 예상외로 크리라 생각된다. 우리부터 이러한 불교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발전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서로가 불법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견제하고 지원하는 사방승가라는 확고한 의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교인이라면 지역과 불교 종파를 떠나서 소중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미얀마불교이야기를 열독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불보살이 상주하는
## 북한산 이야기 ⑬ 인수봉



# 마침내 지혜 · 복덕의 문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해발 804m 높이의 화강암 암벽으로 예로부터 백운대, 만경대와 함께 삼각산이라 불려왔다. 인수봉을 부아악(負兒岳)이라고도 불렀는데 큰 바위 옆에 또 다른 바위가 덧붙어 마치 아기를 업은 어머니와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인수봉이라는 이름은 논어의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지자락수 인자락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선인(仙人)을 품은 인수봉은 인(仁)을 완성하여 지고지선(至高至善)을 세상에 펼칠 성인을 돕기 위해 깊은 수련에 들어갔다.

인수봉이 처음 시작한 수련은 예(禮)를 완성하는 것. 생명과 생명사이엔 예의를 갖춤으로 해서 공존의 질서가 잡힌다. 그러므로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인수는 높고 거대한 자신의 몸이 예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 수련에 들어갔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를 깊이 통찰했다. 무엇이 예인가? 그렇게 오랜 세월 예를 통찰하자 마침내 예의 실체가 보름달처럼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떠올라 왔다. 아, 이것이 예로구나!

**백운대 · 만경대와 '삼각산'으로 불려**
**'인수봉' 논어의 '지지락수…'에서 비롯**
**仙人 품은 인수봉 인(仁) 완성하여**
**지고지선(至高至善) 펼칠 성인 기다려**

예를 통찰한 인수봉은 그것을 자신과 일치시키기 위해 다시 깊은 수련에 들어갔다. 처음엔 높은 봉우리 하나하나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닦았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 봉우리를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공경하고 또 공경했다. 그러자 높은 봉우리 하나하나에 예의를 갖추는 일이 햇볕이 스며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인수봉은 이만하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향해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다시 작은 봉우리 하나하나부터 큰 바위, 작은 바위, 돌과 흙에 까지 예의를 갖추었고, 그것은 짐승과 새에게, 그리고 벌레뿐 아니라 나무와 풀, 꽃과 열매에게로 이어졌다.

마침내 인수봉은 구름이나 바람,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닦았다. 그렇게 하기를 천 년, 예의와 자신이 하나가 됐음을 통찰한 인수봉은 예의를 닦는 수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선(善)은 만상의 근본 성품이다. 하지만 그것을 잘 닦아 쓰지 않으면 선은 모습을 감춰 쓰기가 어렵다. 인수봉은 높고 거대한 자신의 몸이 선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깊은 수련에 들어갔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을 깊이 통찰했다. 무엇이 선인가? 그렇게 하기를 수십 년, 마침내 선의 실체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보름달처럼 떠올랐다. 아! 이것이 선이구나. 선의 실체를 통찰한 인수봉은 그것을 자신과 일치시키기 위해 내면을 닦는 수련에 들어갔다. 자신을 낮추고, 큰 봉우리들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공경했다. 공경하는 마음이 순일하여 먼지 한 톨 들어갈 여백이 없자 그 마음이 곧 선이 되었다. 인수봉은 밝은 햇빛이 천지를 가득 채우면 어둠이 끼어들 여지가 없듯이 선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악이 끼어들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선이 자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인수는 예(禮)를 수련할 때와 똑 같은 방법으로 모든 생명과 사물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했다. 그렇게 천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련에 임하자 어느 날부터 햇빛이 만물에 스며드는 것처럼 선을 향함에 있어 걸림이 없었다. 인수봉은 선(善) 수련을 내려놓았다.

인수봉은 똑 같은 방법으로 정성스러움의 성(誠)과 옳음의 의(義)를 수련했다.

천 년 동안의 수련으로 성(誠)을 수련하고 다시 천 년의 세월 동안 의(義)를 수련했다. 그러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대함에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되었고, 오롯하게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다. 비로소 인수봉은 성(誠)과 의(義)의 수련을 내려놓았다.

인수봉은 다시 침묵 속에서 자신이 수련한 덕목을 지켜가기 위해 천 년의 세월을 보냈다.

인(仁)은 만상 안에 공평하게 들어있지만 그것을 내어 자유롭게 쓰기는 참으로 어렵다. 인(仁)은 내 안에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것을 내어 자유롭게 쓰기는 더더욱 어렵다. 있는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내가 인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수봉은 긴 수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상대방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공경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의 문이 열리고 복덕의 문이 열리고 도의 문이 열려 마침내 인(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됨을 안 것이다. 인수봉은 긴 침묵 속에서, 인(仁)을 완성하여 지고지선(至高至善)을 세상에 펼칠 성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므로.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인수봉을 사람들은 장엄함과 강건함과 빼어남과 수려함과 경건함을 느끼며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끝〉

〈야기꾼〉 유하순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재는 단행본 〈북한산 꼭지〉로 출간됐습니다.
관련기사 22면

# 日 황실 발원으로 건립된 첫 사찰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⑬ 교토 난젠지



일본 교토 난젠지(南禪寺)의 산몬(三門). 한 다이묘가 무사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난젠지의 정원. 카레이산스이의 전형이다.

교토의 난젠지(南禪寺)는 수많은 교토 선종 사찰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20m는 족히 될 듯한 거대한 산몬(三門)을 비롯해 국보로 지정된 방장(方丈), 카레이산스이 정원 등 유독 볼거리가 많은 사찰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원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다이묘(大名)이자 뛰어난 다인(茶人)이었던 고보리 엔슈(小堀遠州)가 심미안을 한껏 발휘해 만들어 더욱 유명하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의 저서 〈일본선의 역사〉에는 난젠지 개창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불교에 대한 독실한 신심을 가진 가메야마(龜山) 천황은 교토 동쪽에 있던 자신의 별궁을 사원으로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불교를 전한 신치 가쿠신(心地覺心) 스님에게 개산조가 돼 줄 것을 요청했으나 스님은 고사했다.

천황은 결국 별궁을 젠린지(禪林寺)라는 선찰로 만든 뒤 스님들을 주석토록 했다. 그 후 갑자기 절에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고, 신통력이 있다는 스님들을 불러 온갖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무칸 후몬(無關普門, 1212~1291) 스님으로 그는 젠린지에서 선승 20여명과 3개월간 참선수행에 들어갔다. 그렇게 3개월가량을 지속하자 더 이상 귀신이 출몰하는 일이 없어졌고, 가메야마 천황은 후몬 스님을 개산조로 삼았다.

난젠지가 현재의 사격을 갖춘 것은 2대 주지인 소엔 스님(祖圓, 1261~1313) 때이다. 소엔 스님은 20년간 주지를 맡으며 도량을 현재의 규모로 완성해 명실상부한 일본 제일 선종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무엇보다 난젠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삼몬이다. 1628년 한 다이묘가 전쟁에서 죽어간 무사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지어 기증했다고 전해지는 건물이다. 소정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맨 위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참배객들이 몰리며,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는 좋은 휴식처이기도 하다.



난젠지의 다실.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



산몬에 놀러온 지역 학생들의 모습이 정겹다.

**거대한 위용의 三門 '눈길'**
**초조대장경 521종 보관돼**
**'철학의 길' 한번 걸어보길**

난젠지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 이곳에 고려 초조대장경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량은 521종 1823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초조대장경 전체의 1/3에 해당했다.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초조대장경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로 복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난젠지 스님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난젠지에 초조대장경이 수장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에서는 임진왜란때 왜구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베 젠쇼지(禪昌寺) 주지인 곤도 도시히로(近藤利弘) 스님은 2007년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개최한 초조대장경 국제워크숍에서 "젠쇼지의 에도(江戶)시대 기록을 볼 때 일체경은 원래 젠쇼지에 있던 것을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에 의해 지금의 난젠지로 옮긴 것"이라며 "원(元)판에 더해 1400년부터 1429년까지 부족한 부분을 고려나 중국 각지에서 출판된 것을 구입하거나 일본에서 추가해 지금의 일체경을 갖췄다. 일체경은 임진왜란 훨씬 이전인 조선 초기에 이미 완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난젠지에 들리면 꼭 들려야 할 길이 있다. 바로 '철학의 길'이다. 교토대학 근처에 있는 '철학의 길'은 교토의 히가시야마(東山) 산기슭, 긴가쿠지(銀閣寺)에서 난젠지에 이르는 2.5km 정도의 길이다.

실개천 옆으로 난 이 길을 오르내리면서 '교토학파'의 중심인물인 니시타 기타로(西田幾多郎, 교토대 교수)의 철학이 정립됐다고 한다. '종교와 절대무(絕對無)'를 탐구했던 교토학파의 형성은 이 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끝〉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60원(600개 이상)
정 가 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cm)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cm)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cm) @80,000원

• 공단등(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cm)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cm) @13,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중국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cm/8cm/10.5cm/12cm
75,000원/80,000원/85,000원/90,000원

★국산★ 방수전선 (한줄50구)
23cm / 25 cm / 30 cm 5줄이상@ 75,000원
50 cm 1m / 2 m 기타주문생산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10W/5W)
@ 220원/@ 30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연잎(일반)/바림옆잎
5,000원/ 7,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 성품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다

**만약 불도(佛道)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전혀 옳은 견해가 아니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5〉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부처님의 도는 닦거나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얻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여 이미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머리가 자기가 본래부터 머리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마음이 하는 것이지, 이 마음을 떠나 달리 신통한 무언가가 없다. 하지만 이 마음을 한 번 확철하게 확인해야, 비로소 전도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냥 다 마음이 하는 일일뿐이라고 치부하고 만다면, 그것은 단지 알음알이의 구름만 짙게 만들어 전도몽상만 더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일천 부처가 오셔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본심과 계합하고 무명 칠통이 터져나가야, 비로소 안심입명처가 드러난다.

**혹은 한 기연이나 한 경계를 보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을 부라리기도 하여, 어쩌다 서로 통하기라도 하면 곧 '계합하여 알았다'거나 '선리를 증득하였다.'고 말한다. 홀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혹 남을 만나 어떤 도리라도 얻게 되면 심중으로 기뻐하기도 한다. 만일 상대에게 설복 당하여 그보다 못함을 알게 되면 속으로 슬프고 섭섭해 하니, 이러한 마음자세로 선을 닦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자기 본분사도 밝히지 못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문답의 겉모양을 배우고 의리선(義理禪)을 익혀서, 짐짓 눈뜬 분들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마 황벽스님 당시에도 그런 뜨내기들이 있었던가 보다. 부처님 옷을 걸치고 부처님 말씀을 팔아먹는 가짜는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불법을 배우는 생사일대사가 그런 흉내나 내는데 있지 않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차라리 건해지를 다 던져버리고 언제나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부인의 바른 자세다. 고봉화상은 선의 삼요(三要)에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하고, 분심을 내어 재도전하는 것이 엉거주춤하니 알음알이에 기대어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 더 요긴하고 바람직한 길이다.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어서, 한 생각 돌이킬 수 있는 공부인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다.

**비록 그대가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요, 선도(禪道)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달마스님께서 면벽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견해(見處)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견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공부다.**
**견해만 없으면**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진다.**

**청정한 보리자성은**
**누구나 갖추고 있지만**
**한 생각을 일으켜**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천지현격으로 벌어지고 만다.**

**도는 어려울 것이 없어서**
**다만 분별하고 취사선택하는**
**것만 그만 두면,**
**자연히 통연 명백해진다.**

이 공부는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견해만 없으면 사방팔방이 텅 비어서,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진다. 그 어떠한 대단한 도리라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은 즉시 어두워진다. 그 자리에는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다. 방거사도 '있는 것도 없이 해야 하는데, 어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랴.' 하였다. 달마대사께서 면벽하신 것도 이 마음이 외도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보인 것이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이지 않아서, 마음이 장벽처럼 딱 멈춰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밖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면 견처를 가지게 된다. 견처는 상(相)이 되어 마음을 생각으로 가두는 무명 칠통이 되는 것이다. 그 칠통을 타파하기 위해 시설한 것이 조사관이다. 역대 조사스님네의 말씀은 단칼에 무명을 끊어주는 반야검이다. 그 일구(一句)에 의심이 사무치면, 분별망상이 오도 가도 못하고 녹아내리는 것이다. 오직 무명 칠통을 타파해야만 본지풍광이 드러난다. 악몽은 잠에서 깨어나야 해결되지, 꿈속에서 아무리 꿈 깨는 법을 토론하고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헤아림을 잊는 것은 부처님의 도이나, 분별 망상은 마구니의 경계다.'고 하였다.**

본래 청정한 보리자성은 누구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불법은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다만 자기 눈을 스스로 가리지만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 하지만 한 생각을 일으켜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천지현격으로 벌어지고 만다. 그래서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고 그처럼 간곡히 당부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합된 사람은 작용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작용해도 작용한 바가 없게 된다. 달마스님이 얘기한 단식이라는 것도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먹어도 먹은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먹을 때나 먹고 난 뒤에 집착이 없어서, 다만 먹을 때 먹을 줄 알 뿐이다. 이것이 공부인의 모습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먹을 때조차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망상을 피우므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게 먹히고 있는 것이다. 중생은 평등법을 모르고 좋으면 좋은 데 집착하고 싫으면 싫은 것을 버리려 하다 보니, 그만 마구니 경계에 사로잡혀 허망해지고 만다. 승찬스님은 도는 어려울 것이 없어서 다만 분별하고 취사선택하는 것만 그만 두면, 자연히 통연 명백해진다고 하였다.

**이 성품은 그대가 미혹했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며, 깨쳤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성품은 늘 여여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다. 허공이 해가 뜨고 지는 인연 따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처럼, 성품도 업에 따라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할 뿐 그 업에 물드는 바는 없다. 정진력을 갖춘 공부인도 선악의 인연에 따르되, 물드는 바가 없이 의연하게 살아간다. 〈끝〉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⑩①



## 생명을 죽이는 도구를 갖고 있지 말라

〈범망경〉

**해석의 한계**

뭐, 남의 나라 일이긴 하다. 하지만, 또한 우리와도 전혀 무관할 수 없어서 관심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웃나라 일본의 일 말이다.

지금 일본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헌법〉 제9조의 개정이다. 그 반대편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그 수호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살던 고치(高知)에도 그런 반대편 인사들이 있었다.

그 덕분으로 전차 안에서 "헌법 9조를 지키자"는 광고문을 본 적이 있다. 그 광고문 안에는 〈헌법〉 9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시해 두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으로, 그 유명한 9조를 읽어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기억을 할 수 없으니, 번역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독후감은 이렇다. 현재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자위대' 그 자체가 제9조의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법률해석학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정확한 문장은 기억하지 못하나, 제9조에서는 어떠한 무력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는 〈보살계〉 의 제48경계(輕戒) 중 10번째의 조항처럼 말이다. 물론 한 나라가 어떻게 아무런 무력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다만, 나로서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일본의 〈헌법〉 9조의 문면(文面)대로라면, 자위대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 9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다만 해석만으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9조에서 이끌어내기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헌법해석권을 갖고 있는 법제국 장관이 교체된 사연도 바로 그러했다. 물러난 장관이 바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다. 지금은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장관을 하고 있다.

**계율은 형식이다**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쓰이는 발전된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 법률해석학이 있다. 율장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역시 해석학이 필요하다. 계율해석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해석의 자유를 높이 외쳐본다고 하더라도, 계율의 조문이 그 해석의 무한자유를 용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검토하는 이 보살계의 조항만 하더라도 그렇다.

모든 살생의 도구, 병기(兵器)류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한다. 이 계율에 따르는 한, 불교사에 등장하는 '승병(僧兵)' 의 존재는 이 계율을 어긴 것이 된다. 승병의 존재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범계(犯戒)이자, 파계(破戒)로 밖에 볼 수 없게 한다.

여기서 독자들 중에는 손을 들고 일어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서산 스님이나 사명대사처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잡고 일어난 스님들의 행위도 다 파계라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계율은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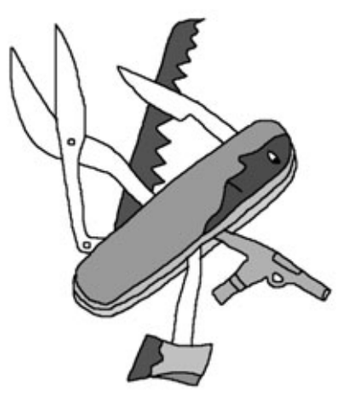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라는 점이다. 형식 · 겉으로 볼 때, 그분들의 행위 역시 파계임은 물론이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 당시 임진왜란에는 일본의 스님들도 종군(從軍)을 했다. 직접 살생을 했는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역시 파계이다.

그렇게 '개인적 차원' 에서 파계를 한 것은, 일본의 스님이나 조선의 스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남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파계한 것이고, 다른 한편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파계한 것이다.

서산, 사명 스님은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계율마저 깨뜨리셨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해석이 계율도 살리고, 의승병스님들도 살리는 해석이 아닐까. 〈끝〉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모집중

◆ 개강일시 : 2013년 12월 중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평수 : 45평 (5층 중 4층)
● 삼존불, 칠성, 산신
● 방2, 학업상 급 안내 (꼭 방문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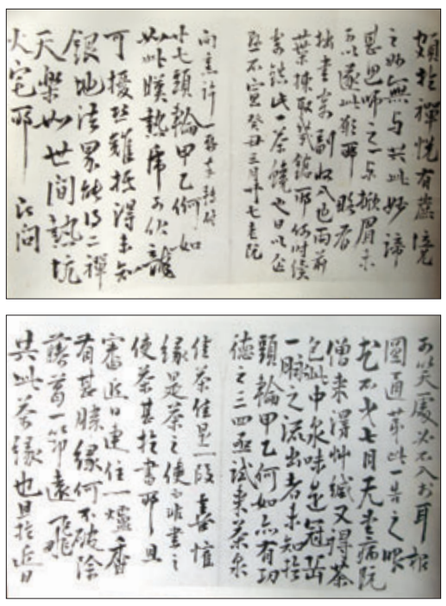


문의 010-4138-5523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선열의 경계 함께 하고픈데…

진종(眞宗) 조례론(祧禮論)의 발설자로 지목된 추사는 제주에서 해배된 지 겨우 3년 만인 1851년 7월 다시 북청으로 유배된다. 기구했던 그의 말년은 1852년 8월 북청에서 해배된 후, 이 해 10월 9일, 과천의 초당에 당도한 뒤에야 안정된 듯한데, 그의 한가로운 일상의 흔적은 〈완당전집〉 〈여초의〉36신에 잘 드러난다. 특히 초의가 보낸 차를 즐기며, 좋은 샘물을 발굴한 즐거움을 초의와 함께 하기를 고대했던 그였지만 그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샘물의 갑을(甲乙)을 논하고자 했던 초의와의 해후는 결국 그가 죽은 후, 그의 상청(喪廳)에서 이루어진 셈이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여초의〉36신은 일부 글자가 결락되고, 편지를 쓴 연대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가 우연히 추사 편지의 연재를 위해 자료를 수습하던 중, 응송스님의 연구 자료였던 추사 편지 첩의 사진판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두 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사의 한가로운 일상이 잘 드러난 〈완당전집〉 〈여초의〉 36신.

스님이 편지와 차포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곳(과천)의 샘물 맛이 좋은데, 관악산 줄기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두륜산 물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의 공덕이 세 네 가지는 있는 듯합니다. 급히 보낸 차로 시험해 보니 물맛도 좋고, 차 또한 좋았습니다. 이는 일단의 기쁜 인연입니다. 이는 차가 그런 것이고 편지가 그런 것은 아니니 차가 편지보다 나은 것인가요. 또 근일에는 일로향실에서 쭉 머물고 있다니 너무 좋은 인연이 있는 것인지요. 어찌 갈등을 깨고 멀리 이곳에 와서 차의 인연을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또 근일에는 선열에 대해 달콤한 경계의 묘가 있는데, 이 묘제를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대와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소원을 들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53년 2월 27일(僧來得草槭又得茶包 此中泉味是冠岳一S之流出者 未知於頭輪甲乙何如 亦有功德之三四w試來茶 泉佳茶佳 是一段喜ø緣 是茶之使而非書之使 茶甚於書耶 且審近日連住一爐香 有甚勝緣 何不破除藤葛一節遠飛共此茶緣也 且於近日頗於禪悅有蔗境之妙 無與共此妙諦 甚思師之一與œ眉 未知以遂此願耶 略有拙書寄副收入也 雨前葉揀取幾 w郵 何時續寄鎭此茶饞也日以企懸不宣向熏許一紙幸轉付 癸丑 二月二七日)

인편으로 보낸 초의의 차와 편지는 1853년 2월경 추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짐작된다. 추사는 그 기쁨을 한껏 드러내 초의에게 답신을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1853년 2월 27일의 일이다. 그의 삶이 한결 여유롭던 과천 시절, 초의의 편지와 차는 그의 속진(俗塵)을 정화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그의 여유는 관악산 줄기에서 솟은 샘물을 찾아 "두륜산 물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의 공덕이 세 네 가지는 있는 듯"하다는 것에서도 엿 볼 수 있고, 이어 초의가 보낸 차로 급히 시험해 보니 "물맛도 좋고, 차 또한 좋았다"는 속내에서도 드러난다. 찻물의 중요성을 이해했던 그는 〈혜산철명(惠山 茗)〉에서 "세상에서 둘째가는 혜산천(天下第二泉)을, 또 진소현과 홍치존이 함께 마셨지(又重之秦洪). 이런 샘물은 다시 마실 수 있겠지만(飮泉猶可得), 두 선비는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二妙眞難同)"라고 노래했다. 처음으로 혜산의 물을 알아 본 이는 당(唐)나라 육우였다. 후일 이 물은 천하의 명천으로 회자되었다. 청대의 진소현(秦小峴)과 홍치존(洪稚存) 또한 이 물맛을 알아본 사람들이었다. 차를 알고 찻물을 알아본 무석(无錫) 출신 진소현은 청대의 진영(秦瀛)이다. 무석은 혜산천이 나는 곳이다. 한편 추사는 근일에 선열에 대해 "달콤한 경계의 묘가 있는데, 이 묘제를 함께 할 수 없으니" 자신의 벗 초의와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가 초의를 극진이 여긴 연유는 바로 차를 통한 수행의 경계를 은밀히 검증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사업실패 7개월 만행 나눔 · 수행 실천 계기

이매옥 (깨달음과 나눔 대표이사)

"20대 시절에는 불교가 뭔지 궁금해서 당시 살고 있던 금천구 독산동에서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도선사 불교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죠. 이후 사업에 실패해 인간사에 환멸을 느끼고 떠돌며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다시 부처님을 찾다보니 이제는 알게 됐어요.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지혜,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요. 불법을 알면 돈 명예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 미소 짓는 삶을 살게 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삶이죠."

깨달음과 나눔을 통해 15년째 소외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매옥 대표이사는 40년 불자의 길을 걸어온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12월 18일 이매옥 이사(59)를 본지 사무실에서 만났다. 수행을 통해 나누고 또 불법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담아봤다.

###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공양을 올리다

'깨달음과 나눔'은 비영리법인단체로 매주 송파구 마천동 일대의 어르신들에게 15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반찬배달로 시작해 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무료급식까지 깨달음과 나눔은 보현행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찬배달로 시작을 했어요. 인근 복지관들이 주중에는 어르신들에게 밥을 제공해 드리지만 일요일은 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에만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4백여 어르신들이 이곳서 식사를 했어요. 재개발 되면서 어르신들이 다른 동네로 많이 떠났죠. 어쩔 수 없이 살던 동네를 떠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과 나눔은 매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공연, 추석 · 설 명절 쌀 라면 떡 보시, 가을 김장 보시로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전하고 있다. '깨달음과 나눔'은 구청이나 여타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이사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소정의 후원금 등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일을 하다보니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다고. 그 중에서도 이웃 종교인들과의 갈등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기 음식들이 비위생적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보니 이웃 종교인들의 시샘이었죠. 그래서 여러 메뉴를 접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 떡, 전 등으로 통일했죠. 또 이웃 교회 사람들이 급식봉사 현장을 쟁반만 들고 지나다니는 사진을 찍어 자기네 교회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라고 홍보를 하는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 불자 어르신들이 교회 급식이라고 안 오는 경우도 생겼죠."

이제 마을 주민들은 깨달음과 나눔이 자비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단체의 급식이라는 것을 안다. 이 이사는 급식을 하러 오는 어르신들에게 짧은 법문도 전해드리고 생활 속에서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지혜도 알려준다고 한다.

### 부처님을 향한 마음…절 수행, 참선공부

이 이사는 스물 여섯에 결혼해 남편을 따라 절을 다녔다. "남편은 참선 수행자였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을 따라 절에 갔는데 불교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남편에게 물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 답답증이 났죠. 그래서 매일 남편 몰래 도선사까지 2시간 30분 버스를 타고 다니며 불교공부를 했어요. 수행도 많이 했어요. 절 수행으로 시작해 30대에는 참선이 뭔지 궁금해 참선 공부를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죠."

이렇게 불교공부를 하니 신심이 솟았고 지극한 기도와 보시로 불자의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삶은 안팎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절 7개를 불사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닥치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제 몸 하나 쉴 곳이 없었어요. 세상도 부처님도 모두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때문에 그녀는 부처님께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답을 얻기 위해 그 길로 만행을 떠났다. 7개월 동안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등을 돌며 수행자들의 암자와 토굴 등 수행처를 찾아다녔고 오전 11시가 되면 무조건 108배를 했다. "무작정 걷고 또 걸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이틀에 두 끼도 먹었죠. 절을 만나면 절에서 밥을 얻어먹고 또 없으면 굶으며 걸었죠. 발톱이 스물 다섯번 빠질 만큼의 고행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전남 대원사에 당도하면서 그녀의 만행도 끝을 맺는다. 저녁 공양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밤 8시 30분에 도착한 그녀에게 밥 한끼를 챙겨준 주지 현장스님은 그녀에게 "나뭇가지에 바람이 걸리면 바람마저 일지 않는다"라는 한 마디를 해준다.

그녀는 이 말을 통해 좀더 자유로워지는 길은 세상으로 나아가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비우는 것이 참 불자라는 것을요. 또한 절만 지어주는 것이 불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불사라는 것을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된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입니다. 동업으로 건축업을 해 수익을 얻고 이를 급식봉사에 쓰게 됐죠."

2000년 그녀는 마천동에 자리를 잡고 인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2002년부터 매주 일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깨달음과 나눔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

**마천동에서 노인급식 15년**
**이웃종교인과 갈등 극복하고**
**현재 150여 어르신 공양**

**항마좌 수행으로 병마 극복**
**여수 등 처처에 공부방**
**현재 1천여 회원 함께 수행**
**보육복지사업 공간도 마련**

### 결가부좌 수행을 만나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온 그녀에게 또다른 고비가 찾아온다. 그는 심장병과 디스크가 찾아온 것이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도 제가 그렇게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걸어갈 정도로 심각한 몸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저는 이 몸을 가지고 전국의 산을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니 제 마음도 몸이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버리면서 병이 됐어요."

이 시기에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스승을 만나게 된다. 야전수좌라 불리는 스님을 만나면서 그녀는 결가부좌(항마좌)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스승님께서 수행을 위해 숨어 지내시기 때문에 법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야전수좌라고 하면 수행하시는 스님 분들은 누군지 다 알거에요. 스님은 움막에서 홀로 사시며 추우나 더우나 바깥에서 결가부좌를 하고 밤을 보내시죠. 그만큼 스님은 바깥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만큼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 모습에 감명 받아 저도 결가부좌를 시작했어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녀가 만난 결가부좌 즉 항





깨달음과 나눔 이매옥 대표이사는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15년 째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왼쪽은 급식장면, 사진 오른쪽은 봉사하고 있는 이매옥 이사.






**이매옥 깨달음과 나눔 대표이사**는 … 1955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1979년부터 도선사에서 불교공부를 시작해 108배와 참선 수행을 이어왔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불법임을 깨닫고 2000년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반찬 배달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 '깨달음과 나눔'을 설립 매주 일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리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항마좌 수행을 시작해 전국에 각 처에 선원을 마련 수행법을 알려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성에 아동복지 시설을 마련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마좌 수행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었다. "결가부좌를 매일 3시간 하면 육체를 이겨 병에 끄달리지 않고, 매일 6시간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며, 주 1회 12~13시간을 하면 업장이 소멸되며, 월 1회 20시간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결국 수행을 하면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또한 저절로 오신채를 금하게 되고 육식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이 이사는 이렇게 결가부좌 수행을 통해 병도 극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좋은 수행과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려 나가기 시작했다. "스승님께서 처처법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집 거실이나 어떤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여수 마산 대구 광주 등에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고 현재 전국적으로 1천 여 명이 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또 열린선원과 조계사 극락전에서도 대중들에게 이 수행법을 강의하기도 했죠."

이렇게 그녀는 항마좌 선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결가부좌 수행을 알려나가고 있다. "항마좌는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의 자세에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 이 결가부좌는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그 자세를 통해 우리가 좀 더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녀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이 수행법을 행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능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선원에 오는 아이들이 2세부터 있어요. 참선처럼 계속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좌 자세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보니 아이들도 이 자세만 잡을 수 있으면 수행이 돼요. 그러면 혼자서 놀이도 하면서 수행에 적응을 해나가죠. 꾸준히 하다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다보니 사춘기도 쉽게 넘어가게 돼요. 스스로 내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녀는 우리 불교가 좀더 수행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이 명예 돈을 독사라고 했는데 요즘 재가 승가 할 것 없이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이 집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수행은 이를 통해 자신을 이기고 좀더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길러줍니다."

### 미혼모 · 모자가정 위한 복지시설도

지난 2007년 불교여성개발원 3차 108인에 선정되기도 한 그녀는 여성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앞으로 그녀는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위한 보육복지 사업을 위해 현재 안성에 73평의 전원주택을 지었다. "미혼모와 그 자녀들 혹은 버려진 아이들은 오갈 곳이 없잖아요. 그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어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시키고 사랑을 전하다 보면 그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형편상 많이는 못 받고 한 10명 정도만 제한해 아이들은 시집장가까지 보내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 양평 일만여 평의 부지에 보육시설도 지을 계획이다.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나누고자 하면 어떻게든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말한다. "경기 침체 그런 거에 영향 받지 않아요. 나누어 주다 보면 줄 것이 또 생겨요. 그것이 불법의 이치더라고요."

5분 뒤도 내생이며 지나간 시간은 모두 전생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오직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직시할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행과 자비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항마좌선원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좌선하고 있는 이매옥 이사.

전법일기

# 음악법회서 꽃피는 찬불포교 원력

## LMB 싱어즈와 음악법회

매달 셋 째주 저녁 7시 낙성대입구 LMB싱어즈의 작은 음악당에 들어서자 마자 건장한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에 흥이 난다.

"스님, 안녕하세요?" 성악인들이라 목소리도 좋다.

LMB싱어즈의 황영선 대표의 별명은 '대포'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하면 그냥 밀어부치는 뚝심이 있어서다. 그런 뚝심이 있었기에 열악한 불교문화의 후원 속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을 꾸려올 수 있었다. 또한 그녀는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도 꼭 삼배를 한다.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한다. 아주 고집도 세다. 그러다 나에게 야단이라도 맞으면 "스님, 죄송해요. 제가 쓸개가 없어서 그래요"하며 빙그레 웃는다. 실제로 그녀는 과로로 인해 쓸개를 제거한 이력까지 가지고 있다.

불광사 어린이 법회 출신인 그녀는 찬불포교의 사명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에게 원력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삼 느낀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중학교 음악교사의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나날이 발전하는 찬송가에 비해 열악한 찬불가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명으로 전문성악인 10명으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인 LMB싱어즈를 결성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700회 이상의 공연을 했으며 14년동안 매달 군대를 방문하여 수백명의 젊은 장병들에게 찬불가 지도로 군포교에도 힘써 왔다. 가수들도 내기 어렵다는 음반도 4개나 출반했다. 특히 이번에 나온 4집 음반은 완성도가 아주 높아 인기가 좋다. 첫 번째 음반은 보통 법회에서 많이 부르는 의식곡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합창단이 없는 법당에서




그림 · 박구원

사용할 수 있고, 2집, 3집, 4집은 모두 엘앰비가 직접 작사, 작곡한 아름다운 노래들이다.

음반을 낼 때마다 황영선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재정도 어려운데 꼭 음반을 내야하나?" 걱정어린 말투로 물으면 머리를 긁적이며,

"스님, 그래도 5년에 한번은 새로운 찬불가가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음악 발전 못해요."

가슴이 아프다. 스님도 아닌 재가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전법을 위한 무게를 감당해야하다니…. 너무도 뭉클하고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직접 작사한 노래가 4집에 수록된 〈마음의 소리〉이다.

오늘은 음악법회가 있는 날이다. 음악법회는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형식을 간소화하면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신나고 감동적인 법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 먼저 저녁예불과 반야심경을 성악식으로 하고 삼귀의, 청법가, 법문에 이어 우빠까합창단, LMB싱어즈가 한 달동안 열심히 연습한 곡들을 공연의 형태로 발표한다. 특징적인 것은 모두가 찬불가로써 신심을 키울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법문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법구경의 구절도 멜로디 화하여서 가슴속에 넣는다. 그래서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할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 동준, 동훈 형제는 엄마와 함께 5년 동안 거의 매달 빠지지 않고 법회에 참석한다. 꼬마였던 아이들이 어느덧 음악법회에서 자라 의젓한 청소년이 되었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사이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하다.

이렇듯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고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LMB싱어즈 대표와 단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법회에 함께하여 환희와 마음속 붇다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불포교의 행진에 많은 후원자들과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후원은 작은 금액이라도 정규적으로 후원을 받을 때 마음에 힘이 솟는다. 그것은 돈의 크기보다 후원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더 큼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 찬불가로서 중생의 본성을 찾도록 돕겠다는 이들의 꿈이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아니, 어쩌면 이들의 꿈은 매달 음악법회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WWW.WDU.AC.KR

참인재를 키웁니다

실력이 참 좋은 大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수님은 이론적인 토대 위에
경험의 지혜와 노하우를 더해 참인재를 키우는 참스승입니다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입학상담
1588-2854

▶모집기간 : 2013년 12월 2일(월)~2014년 1월 3일(금)

▶모집학과 : **웰빙건강학부** –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2014학년도 1학기 **웰빙문화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 2013년 12월 30일(월) ~ 2014년 1월 13일(월) ▶모집학과 : 자연건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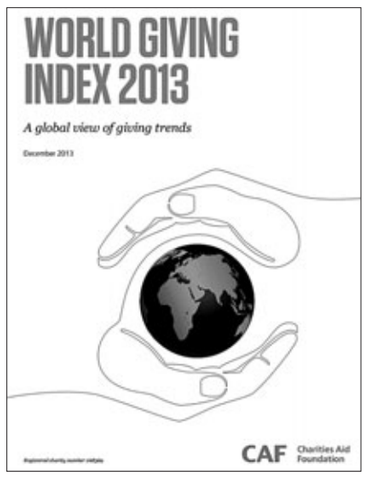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를 참조하세요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

# 인과법 믿으면 관대해진다

## 불교국가 미얀마, 세계에서 관대한 나라 2위






영국의 자선구호재단이 발표한 세계에서 관대한 나라 2위에 불교국가 미얀마가 꼽혔다.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어린 스님들이 탁발을 하고 있다.

**"기부는 부와 상관없다" 국민 85% 후원**
**공익 아닌 사익 위한 제한적 기부 성행**
**관대함 뒤에 불교 문화의 명암 자리해**

불교국가 미얀마가 세계에서 관대한 나라 2위에 올랐다. 외신들은 그 이유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과적 사고방식이 미얀마 국민들의 국민성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촉진 활동을 하는 영국의 자선구호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은 13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12월 초 국제자선지수(World Giving Index)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자원봉사시간, 기부액수, 타인을 돕는 빈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미얀마는 기부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 100명 중 85명이 사회나 종교 기관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CAF 측은 "미얀마가 아시아에서 빈곤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기부는 부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는 자원봉사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08년 2만 2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가 확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당시 미얀마의 사원 또한 구호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미얀마의 작가 나잉 오씨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돕기위해 기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미얀마 사람들은 다음 생에 더 잘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한다"며 기부문화 근저에는 불교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사원이나 탑에 기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이득을 얻기 위해 너나없이 이런 기부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꺼림칙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얀마인들은 교육이나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탑과 사원을 더 짓기 위해 기부를 합니다. 이를 위해 수 백만원을 쓰기도 하죠. 미얀마인들의 기부는 도덕적 본능과도 같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FFSS의 설립자 쿄 뚜 씨도 "사회적 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닌 탑을 불사하기 위한 기부는 미얀마의 관대함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은 상대를 도울 때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돕는다"며 "국적과 종교, 가난과 부에 상관없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에서 상당수의 학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거대한 사원들은 많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학교와 도서관에 기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서구에서의 기부는 이와 반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관대한 나라 1위는 미국이며 3위 캐나다 4위 뉴질랜드 순이다. 미국은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뒤쳐졌지만 77%의 미국인들이 종종 낯선 이들을 돕는다고 대답해 자원봉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스님회!

## 빈곤 · 기아 등 세계 이슈 해결하기 위해
## 국가 · 종파 넘어 범연대 스님 조직 발족



빈곤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스님들이 연대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경없는 의사회, 기자회에 이어 국경없는 스님들이 조직된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12월 16일자 신문을 통해 일본에서 국경없는 스님(Monks Without Borders)이란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나카지마 히로키(43) 스님과 스지와카 에요(53) 스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빈곤, 기아, 차별 등 세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곳 어디든 종파와 국가를 막론하고 스님들이 연대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나카지마 스님은 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통 종파가 다른 스님들끼리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불교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위해 목소리를 모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미 인도와 타이완, 베트남 스님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없는 스님을 발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스님들은 대개 대중과 친숙하지 않다"며 "몇몇 스님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병든 이나 화를 당한 이들을 돌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걸 소중히 하는 불교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도 개설해 지속적으로 대중과 소통할 예정이다.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범연대 스님들의 모임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종교의 역할을 다하는 것 외에도 불교의 사회적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쟁지역이나 종교성이 강한 지역에서의 구호활동은 해당 정부와 마찰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이의 손을 빌려 간접적으로 후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전쟁 · 기아 · 질병 ·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세계 각지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민간 의료구호단체며, 국경없는 기자회는 세계 전역의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기자단체다.

**배현진 기자**

# 회사에서 얻는 마음 평정

## 美 사내 불교동호회, 티베트불교 명상과 경전으로 마음 안정 다져



캘리포니아 홀리스틱 건강센터 근무자들이 티베트불교 공부모임인 '팔첸연구그룹'을 결성하고, 매주 일요일 건강센터 지하에 마련된 공간에서 명상과 강독을 계속하고 있다.

건강센터의 직원이 만든 사내 불교동호회 '팔첸연구그룹(Palchen Study Group)'이 화제다. 〈베틀클릭(battlecreek)〉지는 12월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홀리스틱 건강센터(Holistic Heath Center)의 근무자들이 티베트불교 공부모임인 '팔첸연구그룹'을 결성하고, 매주 일요일 건강센터 지하에 마련된 공간에서 명상과 강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틀클릭〉 지에 따르면, 팔첸연구그룹은 2009년 메트 윌리스(Matt Willis · 40)의 제안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처음 3년간은 윌리스의 집에서 모임을 가져오다, 2012년 회사의 승인을 받아 건강센터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명상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한 윌리스는 "명상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정'은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며 "팔첸연구그룹이 그 덕목을 다져주는 자리가 되고 있고, 동료들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세 때부터 티베트 불교사원을 다니며, 명상을 실수해 온 불심 깊은 불자이자, 팔첸연구그룹의 리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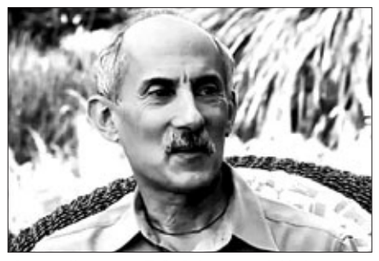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아침 보험회사 지하에 마련된 건강 센터에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일군의 사람들이 모인다. 12~15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는 여러 해 불교를 공부한 이도 있고, 처음 입문한 이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을 함께 찾는다는 공동체 의식만큼은 순위를 두기 힘들다.

"우리 동호회의 특징을 꼽으라면 '강독'"이라고 말한 마크 스타인(Mark stein · 52)은 "프로그램은 주로 명상과 강독인데, 명상→독서→토론 등의 세 가지 섹션으로 진행되는 일요일 9시부터 정오까지의 프로그램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미래는 단지 생각일 뿐…지금에 주목해야"

## 잭 콘필드 법사, 11일 오프라 위프리 토크쇼 출연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슈퍼 소울 선데이에 출연한 잭 콘필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단지 생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란 온전하지 않은 절반의 상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불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잭 콘필드 법사가 지난 11일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슈퍼 소울 선데이(Super Soul Sunday)에 출연, 우리 스스로 존엄성을 일깨우는 방법을 이같이 말했다.

'슈퍼 소울 선데이'는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Oprah Winfrey Network, 이하 OWN)〉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영성 회복에 도움을 줄만한 인물과의 인터뷰로 진행된다.

이날 콘필드 법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모르고, 이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주목, "이러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스스로의 존엄을 일깨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이는 '믿음' 또는 '영성'이라는 점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필드 법사는 페르시아 최고의 서정시인 하피즈(Hafiz)의 시를 인용, "두려움이 집에서 가장 저렴한 방입니다. 나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모든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의 존재로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편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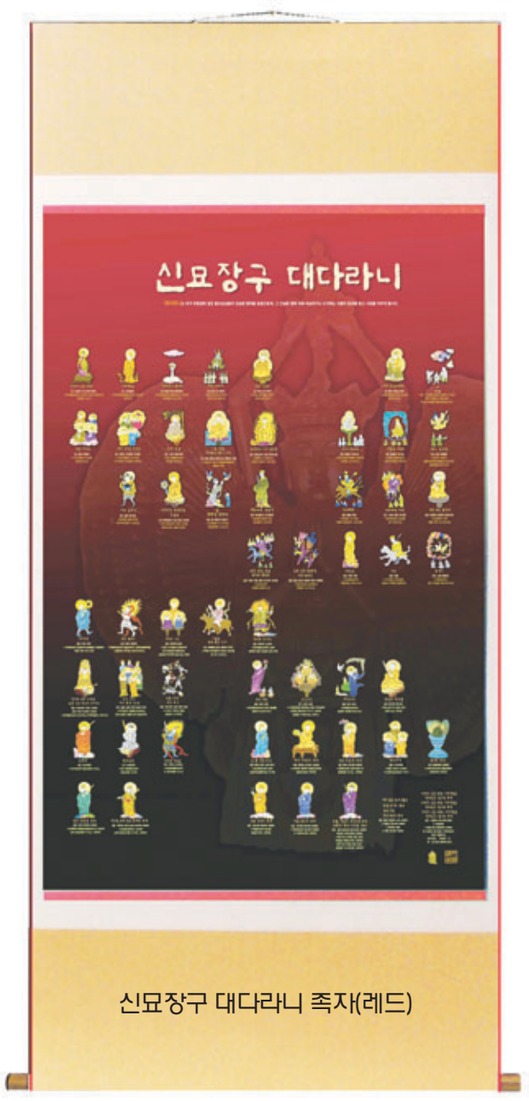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 제품명 | 신묘장구대다라니 | 42수진언 |
|---|---|---|
| 크기 및 가격 | 사찰용 100,000원<br>가정용 70,000원 | |
| | 사찰용 65×145㎝<br>가정용 45×110㎝ | |
| 색상 | 그린 · 레드 |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마하연 투어



#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 동참 가능한 성지순례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2014년 1월 11일, 2월 19일, 2월 22일, 2월 26일 등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고 시리암 5일).....요금문의
  2014년 1월22일 2월26일
* 운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2014년 1월10 , 2월14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패구 황룡 6일..요금문의

##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 + 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현대의 옷 갈아입은 불화의 변신

## 엄기원 개인전… 12월 18일~31일 인사동 이노스페이스서



엄기원의 '신중탱크'. 조선 신중탱의 무기를 든 모습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고려와 조선 불화를 모사하고 이를 변용해 우리시대의 미감에 맞는 불화를 창안해 내고자 했습니다." 불화작가 엄기원이 12월 18일~31일 인사동 이노스페이스에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모두가 진검' '괘불' '천신' 등 총 13점을 선보인다. 작

**레이저건 '신중탱크' 주목**

**'모두가 진금' 변상도 현대화**

가는 전통 도상을 모사하는 것은 물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신중들이 레이저건 등을 든 군인으로 등장한 '신중탱크'는 주목할 만하다. "신중은 부처님 회상을 지키는 수호신이어서 조선불화에서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저는 탱크 타고 레이저건, 로켓포를 든 군인모습으로 신중을 등장시켰어요. 현대불화 신중들은 현대의 무기를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진검'은 검은 비단 바탕 위에 금니 선묘로 비로자나불 모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고려 화엄경 변상도가 모태다. 비로자나 설법 모임에 사부대중이 가득한데 대부분이 현대 의상을 입고 있다. 모두들 밝은 얼굴로 소, 호랑이, 곰, 사자 등과 어울려 놀고 있는가 하면 휠체어를 탄 어린아이를 자애로운 얼굴로 보살피는 보살의 모습도 있다. "가족들이 오손 도손 여러 생명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우리시대의 극락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의 대작은 세로 260cmm에 달하는 산청 율곡사 괘불탱 축소 모사본이다. 원본의 크기는 세로 827cm에 달하는데 화가는 세부 장식 하나 소홀함 없이 훌륭하게 옮겨 그렸다. 색감과 필선 모두 원본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엄기원 작가는 서울대학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용인대 회화과 대학원에 다시 입학해 이태승 교수에게 불교회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02)730-6763 **정혜숙 기자**

# 찬불동요 창작곡 '풍경소리 37집' 발표

## '빛이 나는…' 등 8곡 담아

**내 마음에 그려보자 부처님의 둥근 마음**
**내 마음에 그려보자 부처님의 따스한 미소/**
**나의 마음 고단할 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빛이 나는 우리가 되**
**요…**

**풍경소리 37집 '빛이나는 우리가 되자'**
**(작사 박성희 / 작곡 정유락 / 노래 이시윤)**
**中에서**

좋은벗 풍경소리에서 찬불동요 창작곡 서른일곱번째 앨범 '풍경소리 37집'을 발표했다.

이번 음반에는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 눈처럼 빛나는 어린이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빛이 나는 우리가 되자' '보시' 추운겨울 이웃과 함께 하는 따듯한 마음을 담은 덕신 스님 작사의 '그리워 그리워' 등 총 8곡의 노래를 담았다.



'풍경소리 37집' 표지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지난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 되며,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 영화 '풍성', 불경 현대무용으로 '재탄생'

## 2013년 문화계 결산

2013년 한 해 불교 문화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한 다양한 불화들이 선보였고 부처님의 경전과 일대기를 공연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힐링멘토 스님들의 공중파 방송 출연도 주목할 만하며 영화 부문에서는 다큐 '길위에서'가 5만 관객을 돌파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희상 스님의 '낡은 고무신'展



쓰리디렉터채널의 '보로부두르'



이창재 감독의 '길위에서'



마묵무용단의 '능엄경'

2013년에는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한 다양한 불화들이 선보였고 부처님의 경전과 일대기를 공연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다큐 영화 '길위에서'는 관객 5만을 돌파했다.

**전시** 현대적 안목으로 다양한 해석
**공연** 부처님 말씀 시각적으로 표현
**영화** 영화 길위에서 5만 관객 돌파
**방송** 힐링멘토 스님 공중파 출연

**전시** 현대적 안목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도 눈에 띈다. 희상 스님의 '낡은 고무신전(展)'은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의 여정을 상징하는 고무신에서 자라난 무성한 새싹들을 통해 각자 수행자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가섭의 미소와 혜가 스님의 구법행이 꽃으로 피워난 불화가 양선희 작가의 '꽃 드니 미소 짓네'도 꽃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담았다. 이밖에도 수행자의 내면을 나비로 표현한 성륜 스님은 작품과 와편전각가 여공 스님의 '칼끝장엄'도 주목할 만하다.

**공연**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극으로 표현한 작품도 탄생해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묵 무용단 윤민석 대표는 '바르도'에 이어 '능엄경'을 해석한 작품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했다. 파사무용단의 2013년 야심작 '붓다, 일곱 걸음의 꽃'도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불교밴드의 창단도 눈길을 끈다. 8명의 스님으로 구성된 밴드 '우담바라'는 대구 능인선원 주지 혜장 스님을 단장으로 8명의 스님이 뭉쳤다. 또한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성인 7인조 밴드 둥근소리와 어린이 4인조 밴드 꼬마풍경을 창단 첫 데뷔무대를 가졌다. 이밖에도 부산 해인정사의 포크락 밴드 해조음이 한 달에 한번 하우스콘서트를 여는 자리를 마련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영화** 올 해는 그 어느때보다 영화가 풍성했던 해이기도 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길 위에서'는 관객 5만을 넘었다. 독립영화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으로 대중들에게 불교의 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박영철 감독은 최초의 한국불교 영화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한 '마음의 고향'은 1949년 개봉됐지만 6.25 이후 필름이 유실됐다가 최근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그리고 2013년 박 감독에 의해 '내 마음의 고향'으로 재탄생했다. 이밖에도 원효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자 하는 김선아 감독의 다큐 영화도 촬영중에 있으며 내성천 지킴이 지율 스님의 4대강을 주제로 한 다큐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도 개봉해 관심을 모았다.

**방송** 올해는 법륜 · 정목 스님이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불교 포교에 한몫을 했다. 특히 법륜 스님의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보여 힐링캠프 특집에도 다시 출연하는 쾌거를 이뤘다. 마가 스님 역시 KTV 시대공감 Q를 통해 힐링 전도사 역할을 했다. 불교방송은 하반기 개편을 통해 포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계층프로그램을 신설해 불교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보였다. 쓰리디렉터채널(대표 최세영)의 다큐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도 기대를 모은다. 3D 다큐로 제작된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를 3D 다큐 영상으로 담아냈다. 내년 5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스카이 HD, EBS 그리고 불교방송 IPTV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비공 스님 아세아 서울 아트쇼 참가

## '원시성 야생성' 시리즈 등 20여 작품 선보여

선화가 비공 스님이 아세아 서울 아트쇼에 참가한다. 스님의 작품은 12월 25일~29일까지 강남 코엑스 아트홀 아카갤러리(A31)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원시성 야생성, 구도자의 향기 등 시리즈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원시성 야생성'은 홍송에 붓으로 그림을 그려 조각, 팔만대장경 제작 기법을 차용했다.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생략과 축약해 반추상 작품을 탄생시킨 스님은 인간의 원시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원시성과 초현대성이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 세계를 무의식에서 끄집어내 고대 원시인들의 정서를 담고자했습니다. 이는 지적이 능력이 개입하기 전의 세계로 시비분별이 없는 선의 세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탐구는 탐구할수록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스님은 원시적 야생성에서 그 근원의 의미를 찾아냈다. 선은 공을 표현하는 단순한 표현 양식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그리고 이 공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진공묘용이라고 스님은 간주한다. "공이라는 것도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공을 통한 자유로움은 방종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쓰이는 것이죠. 저는 이를 예술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010)5141-5888 **정혜숙 기자**



비공스님의 '원시성 야생성'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
– 남 해 독일마을 바로 앞 –



부처님진신사리 다보탑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에서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와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 접수합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개별 불자님들 신청바랍니다.
2014년 1월 1일 남해 물건항 어부림 숲 앞 바닷가에서

대웅전 중창불사 중



돌미륵

49재를 잘 하는 미륵암 – 제사, 영구 위패를 모십니다
승진기도, 임용고시기도, 사업자를 위한기도, 일년가족축원 접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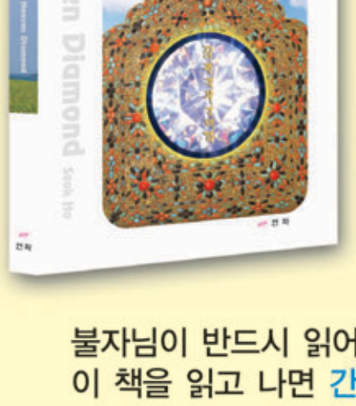
계좌번호 : 농협 831075-51-023041 / 국민은행: 969801-01-298041 / 예금주: 미륵암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주소 _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문의 _ 055)867-0776,2259 / 홈페이지 주소 : www.미륵암.com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완성체 · 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보시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은이: 석호 A5(145×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刊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포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 · 도별 책임자 1분씩 모십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

# 고대 그리스인도 무량보주 상징 알았을까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 로제트→ 무량보주

한국미술사 용어 바로잡기는 한국문화 바로잡기이며, 더 나아가 세계미술사 용어 바로잡기이며 따라서 세계문화 바로잡기여서 국가적 사업의 성격을 띤다.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범세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대 작업이며 혁명적 작업이다. 불교미술 즉 한국미술의 맥(脈)을 수 천 년 만에 찾아내어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나가는 사이에, 세계 학자 대부분이 써온 미술 내지 문화의 용어가 오류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서양을 포함한 '세계미술사의 틀린 용어들'을 나 홀로 바로잡아나가야 하는 어렵고도 고독한 작업이다.

지금 이 연재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와 관련된 사진들과 도면들은 필자가 평생 세계의 모든 장르에 걸쳐 기록하고 촬영하고 스케치한 것 등 엄청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문양집은 물론 모든 보고서와 세계미술전집류, 그리고 일본, 중국 그리고 서양에서 출판된 모든 미술 관련 서적들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의 문양집 가운데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책은 '西上하루오'의 〈세계문양사전〉(대판, 창원사, 1994년)이다. 사진이나 도면들이 가장 정리가 잘된 사전이지만, 용어와 설명은 대부분 틀려서 이 사전을 바로잡아 가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 학자들은 동서양의 문양을 다루지만, 서양 학자들은 주로 서양 것만 다루어 한계가 있다. 일본은 일찍이 서양 근대화를 동양에서 가장 먼저 이루었으므로 서양의 문양 역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으므로, 서양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일본 학자들이 답습하였고, 일본 학자들이 또한 동양 미술의 용어를 잘못 지은 것이 많아서 모든 문양집의 용어가 틀리므로 해석도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술사학의 틀린 용어를 바로 잡는데 이미 두 해에 접어들었고 틀린 용어가 너무 많아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집필할지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용어가 틀린 용어들인지 잡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틀린 용어를 바로잡기 위하여 모든 장르의 작품과 도면을 동원하여 증명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이 해석해야 하므로 여간 고된 작업이 아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틀린 용어가 너무 많으므로 바로잡아 가는 동안 자유롭게 어휘 선택을 할 없어서 동시에 올바른 용어들을 만들어 가면서 써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세계문화사적 위기를 느끼며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는데, 수 천 년 오류를 바로 잡아 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두 해째 매주 하나의 작은 논문을 쓴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매화점이라든가 국화꽃 그리고 국화당초문 등 용어들을 바로잡아 왔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고대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고대문명 발상지와 관련된 문화에서 똑같은 무량보주 조형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팔메트나 인동, 석류, 귀갑문 등 수많은 동서양 미술사의 용어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오류를 밝히는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전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왔다.

고대 서양과 서아시아는 교류가 오래고 깊어서 한 문화권이라 말할 수 있는 만큼 공유하는 조형이 많다. 그 가운데 서양학자들이 말하는 '로제트'라고 말하는 흔한 조형을 채색분석해 보았다.(그림 ①) 로제트라는 말은, 원형의 중심에서 꽃잎모양의 문양이 방사상(放射狀)으로 확산하는 등근 꽃장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민들레, 질경이, 달맞이꽃 등이다. 활짝 핀 장미(rose)를 연상케 한다는 것으로부터 rosette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으며, 종교적?장식적 모티프로서 태양을 상징한다고 한다. 단독 또는 연속해서 고대 이후 지속적으로 모든 조형미술 장르에 응용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설명을 살펴보니 서양에서 정면 형 즉 평면도로서의 연꽃(lotus)무늬를 로제트라고 부르기도 하여 혼동하기 쉽다. 자, 이렇게 말하는 조형들을 반전시켜 채색분석해 보니 설명할 것도 없이 한국의 무량보주와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무량보주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으니 세계 학자들이 말하는 로제트는 틀린 용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등 여러 가지 채색분석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다. ①과 ②가 본질에 가깝다. 중심의 동심원은 동양에서와 같이 보주에서 보주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주변으로 무량한 보주들이 확산하여 우주에 가득 찬다는 상징을 보여준다.

그리스 항아리 도기에 그려진 신화 관련 조형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 배경에 조선시대 불화 천공에 나타낸 무량보주와 똑같지 않은가.(그림 ②) 더구나 지그재그 조형도 고구려 벽화의 영기문과 비슷하다. ①은 무량보주요, ②는 번개 같은 것이요, ③은 제1영기싹을 연이은 물을 상징하는 것이요, ④는 불화에 항상 보이는 여래의 정수리에서 발산하는 영기요, ⑤는 그것을 직선화한 것이요, ⑥은 큰 보주들 사이에 작은 보주를 배치한 것이다. 또 다른 그리스 항아리 도기에 그린 조형을 보면, 신화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모르나 배경에 무량보주를 곳곳에 나타내고, 양 다리에서 제1영기싹 면(面)이 발산하고 있고, 하의의 띠에는 제1영기싹이 연이은 물을 상징하는 조형이 보인다. 그리고 날개도 봉황에서와 같이 영기문을 나타내나 이 글에서는 언급을 생략한다.(그림 ③)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은 참으로 무량보주의 상징을 알았을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옛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끝〉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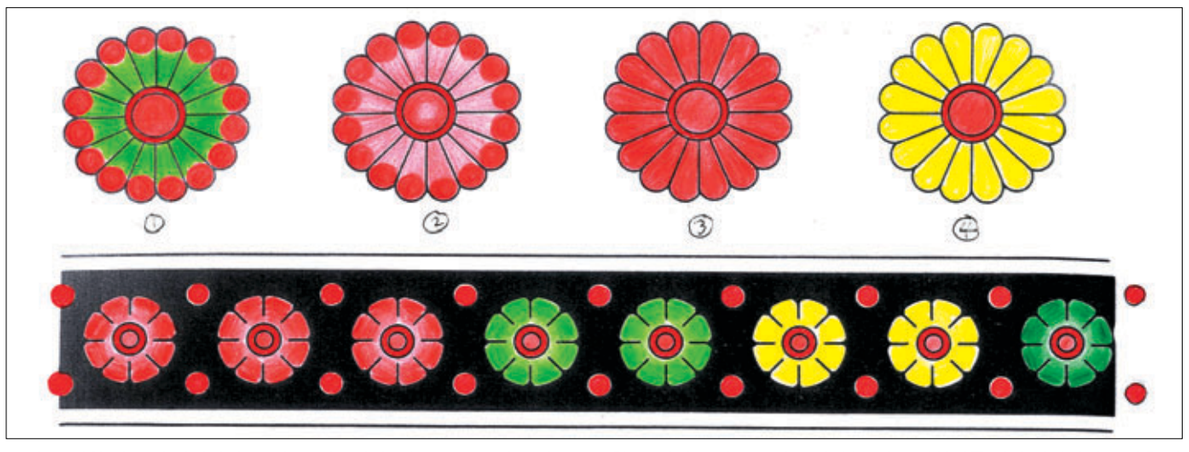


그림 ① 기원 전 고대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 공통된 무량보주 조형들. 아래 무늬는 그리스 것. 부주의 표현원리를 알면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림 ② 그리스 도기, 아테네 출토, BC. 600년 경



그림 ③ 그리스 도기, BC. 700년 경

## 강우방 원장의 연재를 읽고

# 불교미술 진면목 접하는 계기 돼



능성 스님
부산 불국정토사 주지

"늘 보면서도 본질에 무감각 학계의 체계적 연구 결과 기대"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반감되는 듯 하지만 깊이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신문은 늘 반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일상적인 소식에는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 의식이 있다.

예를 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 또는 자살 등의 뉴스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를 일상적 반응이라 한다. 이같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이 다르지 않듯이 사찰에서 늘 마주하는 부처님과 경내 곳곳에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일상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같은 일상적 반응에 민감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특별한 인연이 바로 "강우방 원장의 한국불교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라는 기획연재였다. 우리는 일상적 반응으로 사찰 곳곳에서 보이는 단청 그리고 예불 때마다 접할 수 있는 불단이 머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헤아리지 못한다.

이번 기획연재는 새삼 새롭게 느껴지고 그 깊이를 더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불단(佛壇) 또는 수미단(須彌壇)이라 부르고 불탑(佛塔)의 가장 중심부분을 보주(寶珠)라 부르지만 그 본질을 헤아림 없이 늘 일상적인 반응에 무감각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아주 전문적인 장인이나 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일으켜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미술의 진면목을 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에 담긴 뜻을 헤아리고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번 연재의 가치를 더 한층 돋보이게 했다.

이에 강우방 원장의 주장에 많은 부분 뜻을 같이 하면서 산승이 깊이 없는 의견이나마 의문이 일어 피력하고자 한다. 수미단(須彌壇)과 불단(佛壇)을 영기단(靈氣壇)이라 부르고 영기좌(靈氣座)라 이름하는 것은 그동안 학자로써 연구 성과에 기인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영기(靈氣)의 체(體)가 무엇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영기를 발산하는 그 본질을 헤아리고 무량보주가 품고 있는 근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만(卍)자로 표현되고 있는 길상(吉相.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없음)에 대한 문제의식에 함께 공감한다. 이 같은 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이름을 붙이고 그 뜻을 헤아리게 할 것이라 생각하며 더 깊은 연구에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또한 목말라한다. 물론 이에 대한 깊은 연구는 전문성을 가진 장인과 학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에 산승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일면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내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첨언하고 싶다.

늘 약사여래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마주하지만 만병(滿甁)과 약함(藥函)에는 과연 망망대해(茫茫大海)가 들어있을까? 관세음보살이 기울이는 그 정병의 물은 무엇인가? 과연 강우방 원장의 주장과 같은 영기인가 만약 영기라면 그 영기는 어디서 나타나는가라는 학문적 연구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들을 오직 일승(一乘)으로 이끌어 아뇩다라샴막삼보리를 증득하여 부처이루는 대원으로 나투셨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달음을 구하지만 일상의 안이함에 빠져 그 참된 면면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범부중생의 몽매한은 아닐까? 오늘도 무명을 밝히는 신문을 접하면서 내면의 자성을 일깨우는 분주함에 젖어든다.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불자가수 비뮤티, 연말특집 KBS 열린음악회 초청 출연**

2013. 12. 22
6:00 PM
KBS 1TV



**방송과 공연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최초의 무장르 뮤지션 비뮤티! 연말특집 KBS 열린음악회 초청 출연**

**모두가 목말라하던 불교음악 최초의 획기적인 전환과 새로운 시작을 알린 '부디스트 팝'과 '마인드힐링 팝'을 창시한 "비뮤티", 격조와 대중성을 지닌 기념비적인 노래 "부처님 오신 날" 경축가를 만들고 불러서 불자들에게 감동과 환희심을 선사하고 있는 무장르 뮤지션 "비뮤티"가 12월22일 KBS 1TV 연말특집 열린음악회에 초청되어 따뜻한 노래를 선사합니다.**

지난 4월, 불교음악의 대중성과 세련미, 컬리티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불교음반 사상 최초로 그래미상 6관왕에 빛나는 돈머레이 등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표가 된 "부디스트 팝" 앨범을 출시하여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과 환희심을 선사하고 있는 센세이셔널 한 불자가수 "비뮤티"가 이번 열린음악회를 포함하여 더욱 활발한 방송활동을 전개합니다.




부디스트 팝 앨범 (부처님 오신 날)

신간




630쪽
가격 50,000원

대승불교를 훤하게 알수있는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병별기**

오형근 박사(동국대학교 전 불교대학원장)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로이 번역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원효소는 세계적인 명저로서
대승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황굴에서 발견된 대승기신론 원효소 필사본은 현재도
영국 대영도서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음의 본체인 일심(一心)과 그 작용인 진여문, 생멸문을 깊이 설명하여
인성(人性)을 계발하고, 일심(一心)에 이르는 선수행(禪修行)법을 상세히 제시하므로써,
우리의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시켜 줍니다.

판매처 : 교보문고, 조계사 앞 불교전문서점
보급처 : 도서출판 대승(02-2264-712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 ~ 12/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인생수업 | 법륜 | 휴 | 6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2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7 | 비울수록 가득하네 | 정목 | 쌤앤파커스 |
| 3 |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 청전 | 한겨레출판사 | 8 | 붓다 수업 | 법상 | 민족사 |
| 4 | 알고 보면 괜찮은 | 마가 | 불광출판사 | 9 | 참선 잘하그래이 | 김형효 | 김영사 |
| 5 |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 김진태 | 동숭동 | 10 | 괴로움 어디에서 오는가 | 정준영 외 4인 공저 | 운주사 |




# 산과 인간은 마음을 가진 친구



**북한산 꼭지**
**천년을 하루로 사는 봉우리 이야기**
남지심 외 바띠 지음
그림 박아일
얘기꾼 펴냄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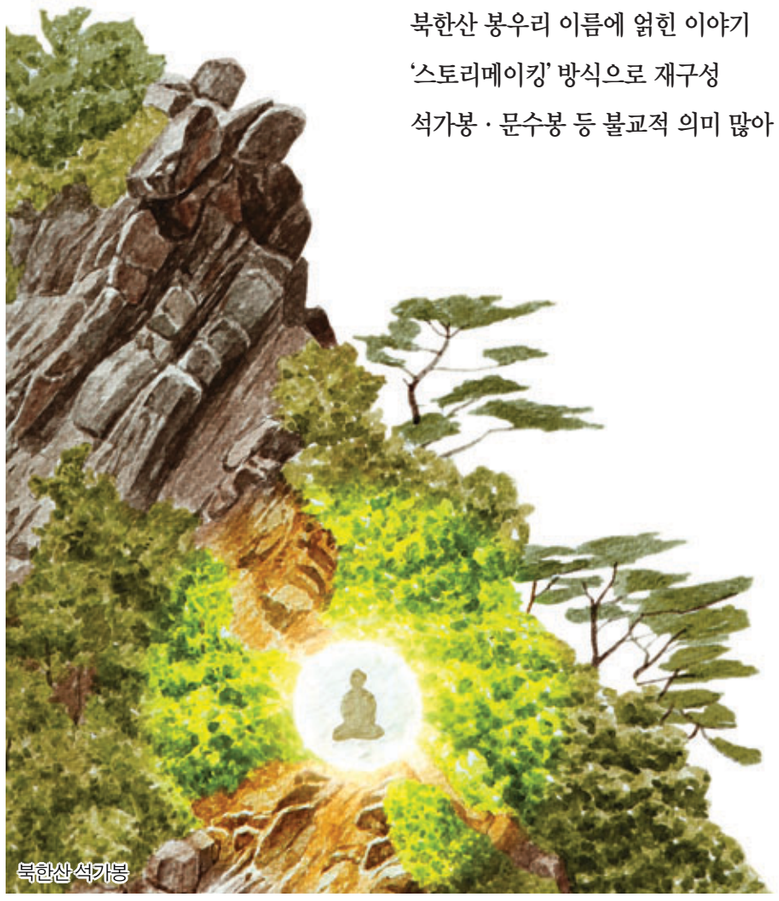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명이 자연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 자연 위에 존재하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만큼 인류에게 자연은 소중한 것이다. 그 중에서 가까이에 있는 '산' 은 자연이라는 말보다 '위안' 이라는 말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과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산은 늘 가까이서 인간을 위로해 왔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책은 연 인원 1천만 명이 찾는 서울의 명산이며, 우리나라 오악(五嶽)의 하나인 북한산 이야기다. 책은 올 10월부터 현대불교신문에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이야기' 라는 제명으로 연재되었던 부분과 미공개 부분을 합쳐 출간한 것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성계의 눈앞에 기적처럼 한 봉우리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봉우리 주위로 흰 구름이 겹겹이 둘러쳐져 있었다. 흰 구름에 싸여 있는 봉우리는 너무도 신령스러워 보는 것만으로도 경건해졌다. 이성계는 하늘의 화답에 감격해하며 오랫동안 흰 구름에 싸인 산봉우리를 우러러 보았다." 왕도를 허락해 준 북한산의 주봉 백운대 이야기다.

북한산국립공원 안에는 북한산과 도봉산이 포함돼 있으며 이 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영욕을 함께 해왔다. 그러면서 인간들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아 현재 북한산에는 40여 개의 봉우리가, 도봉산에는 10여 개의 봉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책은 이 중에서 북한산 봉우리 27개와 도봉산 봉우리 3개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주인공 소년 '대한' 과 북한산 정령(精靈) '꼭지' 가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북한산 인수봉

**오랜세월 인간과 영욕 함께한**
**북한산 봉우리 이름에 얽힌 이야기**
**'스토리메이킹' 방식으로 재구성**
**석가봉 · 문수봉 등 불교적 의미 많아**


북한산 석가봉

수려한 산봉우리,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북한산. 수도에 북한산과 같은 명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북한산이 서울의 공기를 청정하게 해 준다는 이점 이외에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위안은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북한산의 주봉은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이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들어오는 세 봉우리는 잘 생긴 뿔과 같다고 해서 예로부터 삼각산(三角山)으로 불리어왔다. 조선 건국 당시 인수봉을 성 안으로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을 빚다가 성 안으로 넣지 말자는 쪽이 우세해 인수봉은 성 밖으로 밀려 났다. 성 안으로 넣자는 쪽은 무학대사 측이었고, 성 안으로 넣지 말자는 쪽은 개국공신 유생들이었다. 결국 불교와 유교의 힘겨루기에서 불교가 밀려난 것이다.

북한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백제개국과 때를 같이 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축성했던 기록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조선 제 19대 임금인 숙종 때였다. 산성은 백운대와 만경대를 이어 쌓았는데 성 안, 성 밖을 비롯하여 전체 북한산에는 40여 개의 봉우리가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멋진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인간은 산에 의해서 위안을 받고 있다. 산은 무엇인가? 산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북한산에 있는 40여 개의 봉우리들은 오래전 인간들에게 이름을 부여 받았다. 북한산 봉우리들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름을 부여 받았을까?

'이야기 만드는 바띠' 회원들은 이 명제에 대한 답을 찾아 북한산 봉우리 27개, 도봉산 봉우리 3개와 마음으로 만났다. 이들 봉우리 하나하나와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문을 열어 준 건 북한산 정령(精靈) '꼭지' 다. 책에서 북한산 정령 꼭지는 북한산 봉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면서, 산과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임을 들려준다.

마음이 없다면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서로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완성을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진화해 가려고 노력하듯 자연도 그러리라고 본다. 책은 이런 노력을 스토리메이킹을 통해 제시해 보려 했다. 봉우리들 중에서 스스로 이미 얘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봉우리를 추려 30개를 선정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백운대를 비롯해 석가봉, 보현봉, 문수봉, 나한봉, 원효봉, 의상봉 등 많은 봉우리의 이름들과 그 얽힌 사연들이 불교와 닿아 있다는 것이다. 산봉우리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만들어 옷을 입히는 일은 '얘기꾼' 으로서도 처음 시도된 일이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교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명제를 가지고 새롭게 시도된 책이다. 각 봉우리마다 간직한 이야기를 표현한 삽화와 요약도 함께 실려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부처님의 전생으로 배우는 불법(佛法)

## 연꽃 속에서 나온 소녀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 대양미디어 펴냄 | 1만원**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신현득)가 개작동화집 '동화로 쓴 본생경' 시리즈 다섯 번째 〈연꽃 속에서 나온 소녀〉를 펴냈다.

〈본생경(자타카)〉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다룬 경전이다. 부처님은 전생에 국왕, 바라문, 상인, 여인 그리고 사슴의 왕, 비둘기의 왕, 원숭이의 왕, 물고기의 왕 등 수많은 동물의 왕으로 살면서 중생의 위난을 구제하고 법을 구하고 정진하며 공덕을 쌓았다. 이러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본생담' 이라 하고, '본생담' 547화를 하나의 경전으로 엮은 것이 〈본생경(자타카)〉이다. 책은 〈본생경〉 중에서 어린이와 일반 독자들을 위해 49편의 이야기를 뽑아 다시 동화로 만들었다.

부처님이 남긴 팔만법문은 동화의 바다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 설법하셨는데, 특히 〈본생담〉은 교훈적인 요소들이 담긴 '이야기' 들이다.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해서 부처가 되었으니 너희도 본받아 성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세계아동문학사에는 기원전 4세기에 이루어진 〈본생경(자타카)〉이 동화문학의 원류로 소개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이솝우화 '대머리 남자와 파리',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사자 가죽을 쓴 나귀', '개와 그림자' 등이 〈본생경〉에서 시작됐음을 짐작케 하는 것만 보아도 부처님 말씀이 세계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이 분명하다.

책은 '까마귀와 새임금', '개와 코끼리의 우정' 등 재구성한 동화 49편으로 구성했고, '생각 키우기' 에서 줄거리와 교훈을 정리해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박재완 기자

# 이 겨울, 손난로 같은 수행 에세이

## 아름다운 향기만 남을 때까지

**현원 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2천원**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훗날 라후라에 대하여 알게 된 후, 나는 엉터리 거짓말로 장난을 쳤던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출가한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 날마다 집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싸우곤 했습니다. 한창 뛰놀 나이의 아이가 어른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하며 공부해야 하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장난을 치며 마음을 달랬던 라후라와 달리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막연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대전 봉국사 주지 현원 스님의 수행 에세이다. 책은 2003년 출간되어 한동안 절판된 이후 도반들의 원력으로 10년 만에 재출간되었다. '내 마음에 내리는 비(法雨)', '용서', '나를 위한 기도', '내 마음의 보약 한 첩', '회향의 삶을 위하여', '내 마음에 씨앗 하나' 의 다섯 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원 스님은 도심 포교당에서 불자들을 제접하는 가운데, 그 평범한 일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평소 놓치기 쉬운 삶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풀어내고 있다. 동진출가한 12살, 그 시절로 돌아가 방황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선한 목표를 가지는 삶,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는 용서의 참뜻, 매 순간 수행으로 살아낸 삶의 진정한 회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접어들어 비로소 출가의 의미를 정립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림 없이 읽어낼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로 채워진 이야기들은 스스로를 다지는 자구의 죽비인 동시에 상을 버릴 수 있는 지혜의 밑거름이 되고 삶의 여유와 아름다운 인연을 찾아주는 깨달음의 언어들이다. 여기에 김은주의 간결한 일러스트가 사문의 에세이와 어울린다. 출세간이 따로 없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올 겨울 주머니 속 손난로 되어줄 책이다.

박재완 기자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와 법장의 소(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별기』 및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비교하면서
『대승기신론』을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강해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깊은 이해력과 창의적인 해설, 다양한 도표, 명쾌한 문장 등이 돋보인다.
- 불교출판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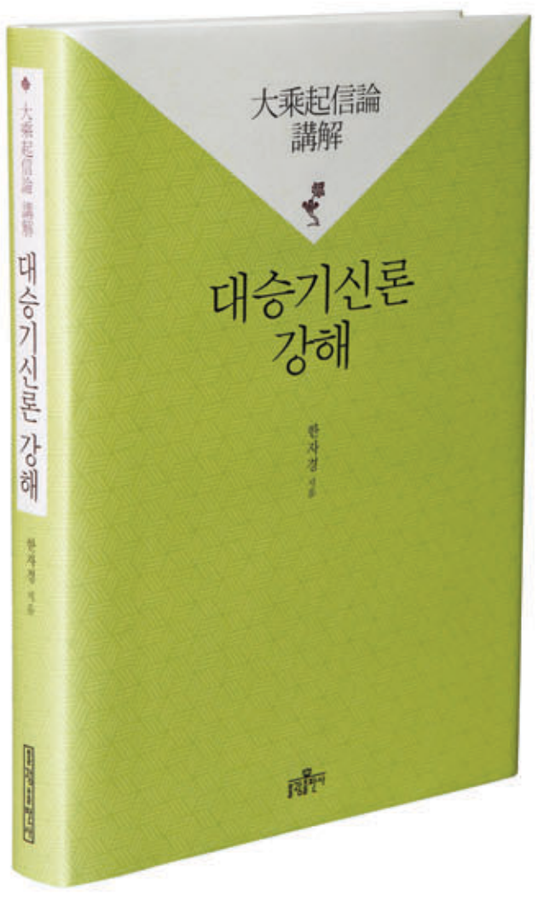
한자경 韓慈卿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칸트철학 전공)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전공)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칸트와 초월철학』, 『지아의 탐색』, 『지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칸트 철학에의 초대』, 『불교의 무아론』, 『21자(字)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등이 있다.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416면 | 값 22,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 명상은 행복한 삶 찾기 위한 수행



## 명상, 마음 치유의 길

**정운 스님 지음**
**참글세상 펴냄**
**1만3천원**

우리는 진정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몇 년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투병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는 내용도 실로 공감이 간다. 이 책은 저자 정운 스님이 진정한 참 나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수년에 걸쳐 강의하고 집필한 원고를 탈고해 출판했다.

명상이란, 마음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수행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모든 병의 근원이 현대병인 스트레스에서 온다. 스트레스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라고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임을 강조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명상과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주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의도는 이렇다.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해야 하고, 도예가는 마음으로 그릇을 빚어야 하며, 화가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그려야 하듯 저자는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여줘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일상에서 하는 명상법 등 명상의 필요성과 정의, 진실이 총 8장에 걸쳐 들어있다.

우선 첫 장에서는 현대인에게 명상이 필요하며,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그 보물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알려준다. 저자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유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물질=행복이 아닌 것을 알고 참 나를 알기위해 명상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스트레스 제거엔 명상이 최고**
**일상서 할 수 있는 명상법 소개**
**명상도 오래하면 찰나 느껴**

5장은 명상을 주제로 소개한다. 이 장에서는 성인들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았는가를 말한다. 맹인 일곱 명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제각기 느낌을 말했는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며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느낀 것만 옳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을 바꾸어보면 다른 것도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이 바로 6장이다. 여기서는 명상하는 방법이 주제인데, 호흡 자애 감사 용서 참회 걷기까지 일상서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누워서도 항상 어느 때든지 호흡을 가다듬고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자는게 저자의 지론이다. 무엇을 잘못하고 잘했는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진실한 나(我)는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바로 명상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어 7장은 명상에 대한 진실을 설명한다. 명상은 인류의 공동문화로 명상을 통한 수행의 허구를 진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명상은 참선과 마찬가지로 오랜 수행을 하면 찰나를 느낄 수 있다. 입정하여 삼매에 들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고 마음의 고요함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스님은 역설한다. **김주일 기자**

### 정운스님의 호흡명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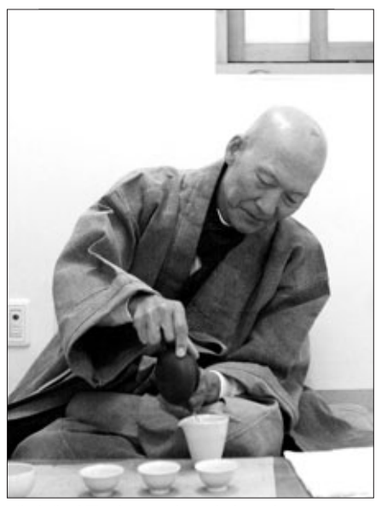
**①눈을 감는다. 아니면 눈을 떠도 된다.**
머리에서부터 발밑까지 마음을 물 흐르듯이 내려본다.
**②자신의 얼굴을 확인한다.**
자신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③현재 명상하고 있는 이 순간, 행복하다고 느낀다.**
호흡은 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도 숨을 쉰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숨쉬는 일이다. 그럼 먼저 누워 배에 양손을 올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 사진으로 되새겨보는 법정 스님 가르침



## 날마다 새롭게

**일여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1만6800원**



생전에 차를 따르고 있는 법정 스님.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자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며 가꾸어 온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치길 바란다."**

**(2009년 4월 길상사에서 가진 마지막 법회)**

산문집 〈무소유〉 등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해준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에서 법랍 55세, 세수 78세로 입적했다.

벌써 스님이 입적하신 지 4주기가 신년에 돌아온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스님의 향훈을 잊지 못하고 서울 성북동 길상사 내에 마련된 법정 스님 기념관 '진영각' 을 찾고 있다. 스님은 생전에 길상화 보살의 시주를 받아 길상사를 창건하고 이곳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모임

**스님의 미공개 모습 대거 수록**
**길상사의 사계도 함께 담아**
**(사)맑고향기롭게 허락받고 출간**

을 만들어 대중들이 내 마음과, 이웃과,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도록 하는 시민운동을 펼쳤다. 스님 입적 후에도 길상사와 (사)맑고향기롭게를 중심으로 유지를 받들어 가고 있다.

강원도 오두막과 송광사 불일암이 스님만의 청정한 수행처였다면, 길상사는 스님이 유일하게 대중과 만나 소통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지금도 스님의 발자취들이 가득하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사진공양집 〈날마다 새롭게〉는 사진을 통해 법정 스님의 자취와 가르침들을 둘러보고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펴낸 것이다. 특히 이 사진집에는 스님의 생전 미공개 모습이 대거 수록됐고, 스님과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인연담, 〈무소유〉서 시작된 길상사 창건 이야기, 길상사의 사계 등이 담겨져 있다.

더이상 말 빚을 지지않겠다는 스님의 유언에 따라 법정 스님의 책이 모두 절판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 책은 그동안 스님의 가르침을 흠모하는 이들의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사)맑고향기롭게 시민모임의 허락을 받아 출간되었다.

사진집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비구, 법정' 에는 법정 스님의 생전 모습을, 2장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에는 출가수행자들의 모습을, 3장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에는 절을 찾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4장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에는 아름다운 사찰의 사계를 각각 짧은 글과 함께 담았다. 2장~4장 제목인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는 법정 스님이 정한 '맑고향기롭게 시민운동' 의 실천 덕목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일여 작가는?**

개인 블로그 '우리세상(www.urisesang.x-y.net)' 에 '사진공양' 을 올리면서 길상사 및 한국불교를 찍는 중이다. 저서로는 〈길상사의 사계, 이토록 행복한 하루〉 등이 있다.

# 불교와 인연 맺은 20문학인 에세이

##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

**불교신문 엮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이 책은 불교신문에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2년여에 걸쳐 '문학인의 불교인연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기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한승원, 김연수, 성석제, 김선우, 신달자, 도종환… 등 인기 문학인들의 에세이를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책서 소개된 20명의 문학인들이 불교와 인연 맺고 있다는 점은 불자들에게 새로운 사실로 전해진다.

불교와의 인연담을 주제로 한 에세이이기에 20명의 작가들 각각의 관점과 경험은 다르지만, 불교를 대하는 진정성은 어느 글에서나 묻어난다. 이 책에는 먼 기억속 어머니의 독경소리를 그리워하는 시인이 있고, 비구니 언니를 둔 인연으로 절집을 가까이 하게 된 시인이 있고, 문학과 불교 앞에서 휘청거리며 질풍노도의 청년기를 보낸 소설가가 있다. 19편의 글과 신달자 시인의 특별 인터뷰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불교와 인연을 맺은 문학인들이 진정으로 참다운 인생의 길을 구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불교는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치는 종교이다. 즉, 성찰이면서 철학이고 신앙이다. 불교의 이러한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예로부터 인생의 근원을 묻는 사람들은 불교를 깊이 있게 알고자 했다. 특히나 언어를 통해 삶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문학인들은 불교를 가까이했다.

이문재 시인은 "문학 같은 불교, 불교 같은 문학은 휘황찬란해서 손에 잡히지 않았다. 손에 잡히지 않아서 더욱 매혹적이었다"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는 문학인들에게 진리에 맞닿은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 반야심경 참 의미 한글로 쉽게 풀어

## 반야심경과 마음청소

**무봉 지음 | 무한 펴냄 | 1만3천원**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핵심으로, 전 세계의 여러 공동체에서 매일 낭송되는 경전이다. 저자인 무봉 스님은 〈반야심경〉의 뜻이 심오하고 어려워 깨달음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 나보니, 한글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불교방송으로 무봉 스님의 강의를 듣는 불자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경전을 가능한 한 불자들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풀이했다.

저자는 '반야바라밀다' 에 대해 고귀하고 자비스럽고, 때로는 악한마음, 선한 마음 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들 속에 알아차리는 지혜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완벽한 지혜란 순간순간 물처럼 흐르는 마음과 같다고 강조한다.

〈반야심경〉의 핵심사상인 공(空)에 대해서도 이 책에는 쉽게 풀이돼 있다. 우리는 공이 있어 뛰놀 수 있고, 색(色)이 있어 나무가 존재한다고 스님은 말한다.

공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생명들은 탄생하고 죽고 사는 가운데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으니까 공이고, 보이니까 색이며,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라고 스님은 해석한다.

저자는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과 색의 존재성을 그대로 강조하고 그대로의 모습을 초월하면서, 포용하고 뛰어넘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라며 "불교의 꽃인 선문답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공과 색이 진공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 "지계 안하면 한국불교 희망 없어"

##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김진태 지음 | 동승동 펴냄 | 1만2천원**



평소 거침없는 쓴소리로 불교계는 물론이고 기성종교의 잘못된 모습을 일깨워 호법신장으로 불리는 김진태 선생의 종교 에세이다. 이 책은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해 오면서 몸소 수행 지도를 하고, 아울러 경주 동국대 불교학과와 전국의 사찰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첫 책으로 그동안의 깊이 있는 공부와 사유, 수행을 응집해 놓은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총 8장으로 나뉘어 편집된 이 책은 혜문 스님의 추천사에서도 엿볼 수 있듯 짧은 글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독자로 하여금 '아' 하는 깨달음과 함께 사색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반조하게끔 이끌어 주고 있다.

'에고(ego) 문상(問喪)'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남의 죽음과 자기 육체의 죽음 앞에서가 아닌, 자기의 에고를 문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상(無常)을 체험하고 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은데도 에고가 그 길을 꽉 막고 있어서 오욕락의 충족을 지향하고, 끝없이 생사윤회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에고 때문에 괴롭고 불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기적 에고를 극복하면 삶을 축제처럼, 활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그릇된 종교관, 이 시대의 일그러진 종교계의 세속화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는 수행체계로서 불자들은 누구나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교학과 수행을 함께해야 한다, 불교계를 정화하는 최고의 처방이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 055)74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 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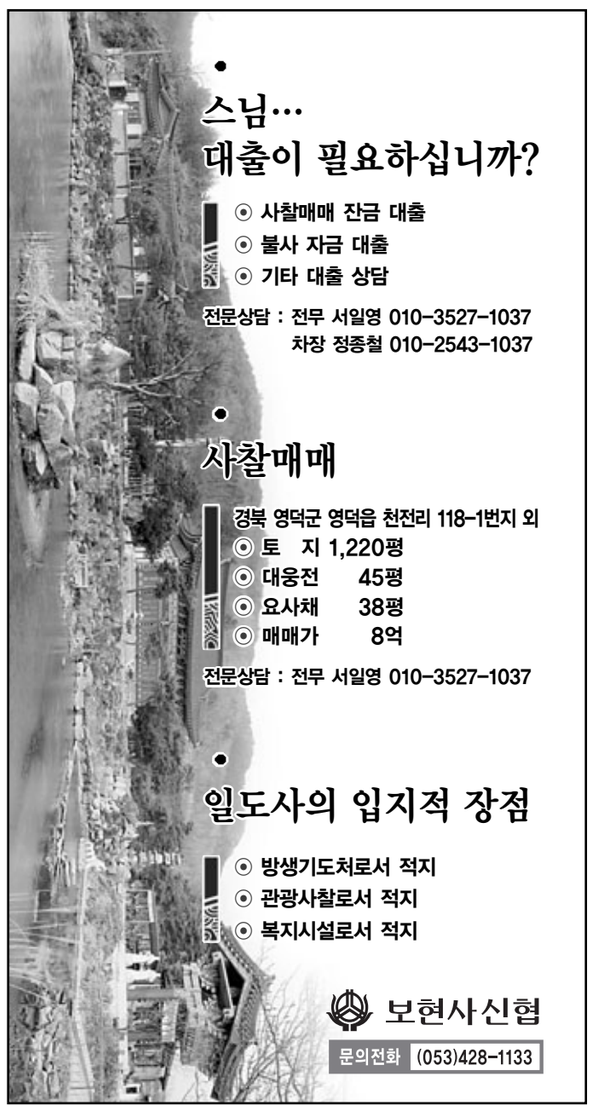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누워서 허리뜸 · 배에는 단전뜸 · 앉아서 좌훈뜸 · 편안히 무릎뜸
악성피부 · 아토피 · 버거씨병 · 파킨스병 · 통풍 · 관절 · 무좀
고통 · 통증 · 허리디스크 · 협착증 · 건선 · 수족냉증 · 비염
황토 · 상황 · 훈증 · 좌훈 · 쑥뜸 · 침대 (특허번호 제 10-2011-011722호)

대구 수성구 두산동 82번지 건장사(스님은 무보시 치료)
011-573-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매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8억**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일도사의 입지적 장점**

- **방생기도처로서 적지**
- **관광사찰로서 적지**
- **복지시설로서 적지**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

강원도 동해안 조그마한 암자 향운암은 약사기도 도량으로 불자님의 심신의 건강과 기도 정진의 귀의처였으나 진입 통행로의 임야를 경기도의 어느 재력가가 2억 미만에 매입하여 약 8억 원에 매입을 하라고 해서 너무 고액이라서 매입치 못한다고 하니 진입 통행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철조망으로 폐쇄**하여 출입이 불가능 하였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지금까지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들의 간곡한 성원으로 법원 승소 판결 및 산주의 협조로 진입로 소통 및 일부 포장까지 하였습니다. 무주상 시주한 불자님의 연락을 꼭 바랍옵고 항상 불은이 함께 하시길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향운암** 대웅전이 퇴락하여 대웅전
중창 불사를 발원 합니다.

향운암에 원기둥 10개 대들보 2개가
있으면 중창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 할 수 있게
불자님들의 동참을 발원합니다.

**심신의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약사기도 도량 약수가 있고 약쑥 뜸 식이요법 및 요양으로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 및 방문 바랍니다.**

**여생을 절에서 생활 하실 분**1인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양주 구함. 노보살님**(불심 있는 분)

연락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96-4
**향운암 주지 무진**
☎ 033) 532-1773. 010-2873-2888

금강경과 달마상법 ㊦

김선형 (인천대 석좌교수)

# 얼굴은 마음 반영… '관상학' 은 마음수행 지침

### 4. 달마상법의 다섯 가지 법

달마 선사는 달마상결비전(達磨相訣秘 )에서 관상의 다섯 가지 법과 다섯 가지 총결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달마상법의 알맹이다.

먼저 다섯 가지 법을 보면, 여기서도 달마 선사는 눈의 신(神)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먼저 제 1, 2법에서 눈의 신을 다루고 있다. 제 1법은 상주신(相主神)인데, 이것은 주로 눈빛에 담겨 있는 신기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눈의 신기를 헤아리는 것과 명운으로서는 한수(限壽), 그 사람의 수명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눈의 신기를 정확히 판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달마 선사와 같은 견성의 경지이거나, 눈빛의 광도 등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상신주의 의미로서의 눈은 '잠재한 용' (龍藏)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롱한 눈빛에 용의 위엄이 담겨야 하고, 바라보는 시첨(視瞻)이 똑바르고 그윽해야 하며, 눈의 평면이나 그 빛이 지나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눈은 호수(河 )의 위상에 걸맞게 흑백이 분명하면서 맑아야 하고, 인(仁)이 담겨 화기가 충만해야 하며, 노여움이나 격정적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뚜렷한 안광에 신념과 의지가 깃들고, 사인(射人), 즉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안력(眼力)이 담겨야 한다.

제 2법은 신주안(神主眼)이다. 신주안은 눈으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신주안은, 먼저 눈이 청수하면서 초점이 방정(方正)해야 하고, 세장함신(細長含神)으로서 가늘고 길면서 눈꼬리에 날카롭게 신이 담겨야 하며, 항상 정시(正視)해야 한다. 또한 동공이 꽉 찬듯하여 위아래와 좌우에 흰 동자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눈빛이 풀려서 신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상주신과 신주안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나 지도적 위치에 오를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력(知力)과 함께 뛰어난 리더십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제 3법은 인신(人身)인데, 이것은 몸 전체를 100%로 하고, 얼굴 60%, 몸통 40%로 나눈 것이다. 이 분류는 얼굴을 몸 전체의 60% 비중으로 중시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얼굴은 상 · 중 · 하 삼정(三停)이 균등하고, 눈 · 코 · 이마 · 턱 · 두 광대뼈의 오악(五岳)과 입 · 눈 · 귓구멍 · 콧구멍 등 사독(四 )이 풍만하면서 상생의 구도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40%의 몸은 풍만하고 올곧으면서 단단해야 하고, 그것이 다시 상 · 중 · 하 간에 균형 잡혀야 한다.

제 4법은 얼굴, 인면(人面)이다. 이것은 얼굴의 각 부위를 중요도에 따라 비율을 부여한 것인데, 그 가운데 눈이 50%를 차지 한다.

관상학에서 눈의 키워드는 인(仁) · 귀(貴) · 위(位) · 문(文)이다. 이를테면, 눈은 가장 높은 경지의 어짐과 부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귀, 인격과 품위, 그리고 지적능력과 학문적 소양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달마 선사는 눈을 가리켜 '정신의 집' (精舍)이라고 했고, 영롱하게 빛나는 신(神)이 담긴 눈을 상품으로 쳤다.

원래 관상학에서 눈의 위상과 그 기능은 관학당(官學堂), 감찰관(監察官), 명수학당(明秀學堂)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학당은 근기(根機)와 관록의 의미로서, 그 사람의 그릇의 대소와 권위 · 위엄까지 포괄하고 출세 여부를 주관한다. 감찰관은 감찰, 감독 점검 등을 담당하고, 통찰, 탐구, 판단의 기능을 맡는다. 그리고 명수학당은 총명과 지혜, 학문을 관장하면서, 정신력과 함께 지적능력을 총괄한다.

이와 같이 얼굴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정신력의 신호등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눈에 대하여, 달마 선사는 놀라울 정도로 중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비중에 합당한 구비조건으로서, 눈은 용의 집으로서 태양과 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빛나고, 맑고, 깨끗하고, 고요해야 한다(目睛)고 했다. 또한 광채가 약동하면서도, 그것이 잠긴 채 지나치게 드러나서는 안 되며, 바라보는 시선이 똑발라야 하고(視瞻方正), 곁눈질하면서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리거나, 머리를 숙인 채 눈동자만 위로 치켜뜨면서 두리번거려도 안 된다(不流動)고 했다.

그리고 달마 선사가 30%의 비중을 부여한 이마는, 얼굴에서 유일하게 뇌 영역에 속한다. 이는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것과 같기에, 두뇌 측정과 인격을 가리는 척도가 된다.

이와 같은 이마의 관상학적 지위는 하늘에 해당한다. 그것은 상정(上停)의 하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마 선사는 이마를 가리켜 녹학당(祿學堂), 고명학당(高名學堂), 고광학당(高光學堂)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녹학당은 관록과 두뇌, 권위를 말하고, 고명 · 고광학당은 가장 높은 최고봉으로서, 그 사람의 그릇을 대변한다.

이마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는 우선 두평(頭平), 액원(額圓), 천창만(天倉滿)을 들 수 있다. 두평은 머리가 편평하고 반듯하고 가지런한 것을 말하고, 액원은 굴곡 없이 둥근 모양새를 가리키며, 천창만은 두 눈썹 옆과 위쪽이 도톰하면서 솟은 듯 가득 찬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입벽(立壁), 복간(伏肝)인데, 입벽은 이마의 정중선(正中線) 영역의 중심부가 마치 벽이 연상될 정도로 곧게 쭉 뻗어 있는 형상을 말하고, 복간은 간을 엎어 놓은 것이나, 솥뚜껑의 모양새처럼 불룩한 형모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마는 육후(肉厚) · 고용(高聳)해야 한다. 육후는 높은 산인 이마의 뼈대 위에 살집이 도톰하게 덮힌 것이고, 고용은 정상의 산의 위용에 걸맞게 높은 듯 솟아 있는 형모를 말한다.

50% 비중의 눈과 30%로 평가되는 이마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어느 분야에서나 뛰어난 지도자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두뇌와 지모를 겸비한 경우로서, 출가하면 참선에 용맹정진하여 견성의 문턱에 들어 설 수 있고 재가에서 수행하더라도 장관 하나쯤은 하고도 남는다. 인물 중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달마 선사가 도합 20%, 각기 5%의 비중을 부여한 눈썹, 입, 코, 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눈썹은 눈과 다소 떨어진 듯한 간격과 눈을 지나갈 정도의 길이로서, 힘이 느껴질 정도로 준수하게 생겨야 하고, 입은 큰 바다(大海)의 위상에 걸맞게 마치 넉사자(四)가 연상될 정도로 크고 도톰하고 입 끝이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코는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虎伏) 세력이 쭉 뻗음과 동시에 중앙토(中央土)의 특성에 따라 코끝(準頭)과 두 콧방울이 성난 듯 딱 벌어진 채 도톰해야 하고, 귀는 체청관(採聽官)으로서 레이더 기지의 성격에 걸맞게 앞에서 안 보일 듯(前面不見) 벽에 달라붙은 채 눈썹을 지날 만큼 높이 솟은 모양새로 도톰하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주도 세력에 속한 입 · 코와 보조 내지는 지원세력인 눈썹 · 귀가 위 요건을 갖추면, 그것만으로도 중상(中上)의 명운은 타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법은 택교(擇交)이다. 택교는 벗을 사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주로 눈으로 판단한다(擇交在眼). 사람을 사귀는데 있어서는, 눈이 맑고, 깨끗하고, 그 빛이 은근하고, 바라보는 초점이 똑바르고, 정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눈빛이 흑백이 분명치 않으면서 탁하고, 핏발이 선채 밖으로 드러나고, 초점이 흐리면서 상하좌우로 곁눈질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5. 달마상법의 다섯 가지 총결(總結)

달마 선사가 상결비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총결을 살펴볼 차례다.

달마 상법의 총결제일(總結第一)에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참선 정진하여 견성의 길로 나갈 것을 당부한다. 그러면서 달마 선사는 여기에서 다시 앞에서 설명한 금강경의 반야제일게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달마 선사의 총결 제일의 취지는 상(相) 자체를 외모나 얼굴의 생김새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의 실상과 동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상을 본다는 것은, 상이 아닌 상의 본디 자리를 보아야 바로 보는 것이라는 뜻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달마 선사가 관상학을 정립한 것은, 외모를 보고 길흉화복을 가리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최종 목표는 발심 정진하여 도의 길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상을 보는데 있어서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것이 근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외모나 얼굴의 형모가 잘 생긴 경우라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앞날의 좋은 운로를 열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총결제이부터는 실제로 외형의 상을 보는 방법에 관하여 적고 있다. 달마상법의 총결제이는, 좋은 상은 하늘인 이마의 천정(天庭 : 여기서의 천정은 광의로 이마를 가리키지만, 실제로 천정 부위는 이마 정중선상의 중앙의 바로 위에 있음) 이 솟은 듯하고, 땅에 해당하는 턱(地閣)이 이마를 바라본 채 솟은 듯하며, 두 눈썹 사이의 인당(印堂)이 넓고 편편하고 밝아야 한다. 그리고 눈썹이 맑고 눈꼬리가 가득하고, 눈에 신(神)이 있고 눈동자가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 눈 밑의 누당(淚堂)이 탄력이 있고, 두 눈 사이의 산근(山根)이 끊어지지 않고, 코의 가운데부터 끝(準頭)과 콧방울이 세력이 느껴지면서 도톰하고, 두 광대뼈가 솟아올라 코를 감싸고, 단단하고 풍융한 귀가 중앙을 감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부위가 서로 감싸듯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행운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명운 밝히기 위해서는 감정에서 오는 악습 고리 끊어야 달마상법 핵심은 자비·겸손 실천"




영화 '관상' 은 운명을 막으려 한 사람들과 그 운명을 거스르려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달마선사가 관상학을 정립한 것은 외모를 보고 길흉화복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음의 표현이라 보고 운명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총결제삼은 주로 움직임과 색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두 눈썹 사이(印堂)에 푸른 기운이 돌면, 재앙이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고, 두 눈 아래가 두텁고 광채가 나면, 자식이 많고 성공하며, 눈에 광채가 없어지면, 병에 걸리게 되고 역풍에 휩싸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풍부한 등에 거위걸음을 걷는 사람은 부자로 살지만,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 등이다.

총결제사에서는 주로 비결을 열거하였다. 두 눈 사이가 붉고 누런색(火土色)으로 밝으면, 남편을 급제시키고, 귀의 바퀴가 뒤로 젖혀지고 솟아오르면, 남편을 잃을 수 있고, 눈썹이 나뭇가지처럼 기울어지고 흩어지고 누워 있는 빗자루 같으면, 가정을 파괴한다고 한다.

끝으로 총결제오는 역시 비결과 기색에 관한 것을 들고 있다. 머리통과 코에는 뼈대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행동은 중후해야 하며, 기색은 맑고 밝아야 길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기색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각 부위마다 기색에 의하여 운로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얼굴이 잘 생겼다고 해도, 기색이 탁하고, 어둡고, 막히면, 운로 역시 암울한 먹구름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 6. 맺는 말

달마상법의 뿌리는 금강경이다. 마의상법의 원리가 음양오행에 근거한 것이라면, 달마상법의 사상적 배경은 금강경이다. 금강경의 상관(相觀)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이 상이 아닌 본디 자리를 보아야 비로소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강경의 상관은, 대승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풀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리를 달마 상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전개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달마 선사는 그가 체계화한 상결비전에서, 금강경에서 상과 비상(非相)을 둘이 아닌 것으로 보듯, 마음과 상을 동일시하여 상 자체를 마음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달마 선사의 상관(相觀)은 마음과 형모를 각기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둘을 동일체로 보고, 외형의 상 자체에 대하여 그것을 마음에서 파생한 형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달마 선사의 상관은, 그가 체계화하는 상결비전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얼굴에서 정신 영역에 속한 눈과 이마를 각기 50%와 30%, 도합 80%의 절대적인 비중으로 중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리 얼굴의 각 부위가 잘 생긴 경우라도 80%의 비중인 눈과 이마의 정신 영역이 못생겼다면, 그 사람은 허울 뿐, 쓸모없는 형상이라고 단언한다. 정신이 똑바라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오늘날 물질만능 풍조 속에서, 돈벌이에만 목을 매는 현대인들에게 내리는 경고성 죽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달마 선사는 숫한 좌절과 역경을 이겨내고 운로를 열어나가는 대안적 방책으로서 정신 수련을 권고한다. 얼굴의 생김새는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른 악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 자리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다스려야 할 대표적인 대상은 성격이다. 꾸준한 수련을 통하여 마음을 맑히고 밝힘으로써 자비심과 덕성을 쌓아서 상대를 배려하고 감쌀 수 있는 성격으로 가다듬으라는 것이다.

행복은 정신적 평화와 안정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상학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을 권고한다. 자기감정, 거기서 오는 악습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행운을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는 일이다. 갑자기 난관에 맞닥뜨린 사람은 물론, 운로가 잘 열려나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성을 온후하게 다듬어 겸손한 자세로 상대에게 자비와 사랑,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악운 극복과 개운의 길이고 달마상법의 존재 이유다. 〈끝〉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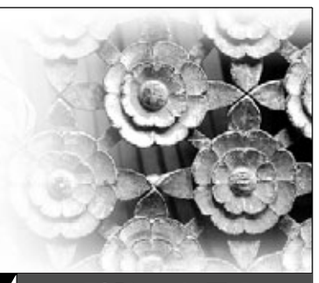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가는
자유를 만나리라. 힘써 노력하고 주의깊게 마음 챙기며
청정한 행위를 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
절제하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명성은 더욱 커지리라.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봉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0-2828-7113
055)883-7385




**최면** 전생·미래 빙의·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달마도와 소나무 그림**
원하시는 규격으로
그려 드립니다
(반야심경 금니사경, 용, 호랑이,
말, 다묵화, 선묵화 등)
010-8718-6262

**초중생 한문학당**
1차 : 12월 30일 ~1월 4일
2차 : 1월 6일 ~ 1월 11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자
안면암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일정안내란'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안면암
041)673-2333
010-9407-01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숙식도 가능
(서울 송파구 문정동)
010-6789-4952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사물,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남 산 조 망**
"쌍용플래티넘APT"
최초할인 (최대 20%)
61,65평 : 남동, 남향
(렌트/즉시 입주가능)
010-6287-232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 불심이 돈독한 법당 일천불 분양 권선할 유능한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 불심으로 귀의할 출가 여행자 모집합니다
꼭 필요한 분만 전화주세요
(부산 금정구 소재 사찰)
010-6390-189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010-2991-114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관음춤·지전춤·살풀이·오행춤
반야용선춤·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비 법 중의 비 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조계종 울창한 수목이 좋은
사원에 노스님 정진(공부)에
노스님 지켜드리고 사원을 지켜
줄 시봉 겸 후원 관리할
4~50대의 조용한 곳에서 불심
드리우며 절 운영하며 운전할 줄
아는 시봉할 보살님을 구함
(보답은 답사 상당 본인의 요구에 의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스님을 모십니다**
요양원에서 이생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요양이
필요한 스님을 모십니다
파주 약수암스님이 운영하는
거북마을노인요양원에서
스님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9067-4801

**공 고**
- 사찰명: 법회사 • 법 명: 법우(김도영)
- 주 소: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517-1
- 현대불교신문 (933호,2013년 3월 27일)에 게재한 탈종공고는 위 사찰과 위 인이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탈종공고가 잘못되었음을 알립니다.

2013년 12월 19일
(재)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한국 최초로 達磨스님과 함께**
선사의 칼국수집 경영 및 운영 동참할
참신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 자 격 : 비구니 스님 및 보살 고졸이상 (종단무관)
◇ 투자금 : 2천만 이상
◇ 지 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 설명회 : 조계사 옆 건물 산중다실 (일자는 추후 결정)
◇ 연락처 : 011-301-4949. 02)999-5551
051)301-4949 (개통예정)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힘" 책과 기방을 선물로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무슨 어떤 질병이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암, 질병, 산소조상, 가족, 재판, 교통사고)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천호사
- 창 건 주 : 천호(허남준), 정복순
- 창건주지 : 범일
- 주 소 :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원길 23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대한불교원효종 최덕산 종정 법하

**인연 명리 수강생 모집**
삶은? 인연생 인연멸이라 합니다!
그 인연법을 命理學的으로 쉽게 풀어서
나와 상대의 인연을 알고 현재와 미래의
인연을 예측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위한 공부!
바로 인연 명리에 있습니다.
기초/실전반(통변) 모집
인연 명리 강좌를 시작합니다.
■ 일 시 : 2014년 1월 2일 (목) 13:00 ~ 16:00
■ 장 소 : 강남역 8번출구 기독도서회관 3층
■ 수강자격 : 스님 / 일반인
■ 강 사 : 정인스님 (연락처 010-4047-0134)
※ 실전반(통변)은 현재 강의 진행 중
- 신도 상담 및 관리에 필수 (인연 명리)
- 육친인연과 토의변화, 운세를 중점 강의 (적중률 최고)
인연 명리 연구소 [소장 정인 스님]

**新 영성 향상법**
제 1기 수련회원 모집 (스님, 재가자 환영)
- 회원대상 영성의 수준을 높여 활기차게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분.
- 수련기간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부터
매주 화요일
3개월간 (하루 2시간씩, 18시 ~ 20시)
선착순 10명 / 수련비 30만원(10만원*3개월)
- 수련내용 브라이언 박스이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실습.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실습 등.
- 학습내용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코스몰로지(우주생명관)의 확립을 위하여
唯識과 카르마의 법칙.
연기론과 6바라밀의 실천론
구르지에프의 다중 아이덴티론과 셀프 리멤버링론
화이트 이글의 힐링과 실버버치의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법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레이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레이키연구회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02)2004-8200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진실로 아무것도 갖고 있는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얽매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 우다나. 이티붓타카 -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부산
- 법당 : 25
- 요사 : 35*2동
- 총부지 10,000
- 대지 650평
- 가액: 12억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시내
- 대지 : 55평
- 법당 : 25평
- 요사 : 방2개
- 가액 : 1억 3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홍천
- 목조법당50㎡요사채85㎡
- 토지2,100m2
- 접근성좋은사찰임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2억9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북영천 IC 5분거리)
- 평수 : 2천평, 2차선 접 관광버스 진입
- 시설: 법당, 요사채, 공양실, 주지실, 조경탑, 연못, 기도실(펜션형)
- 가액: 3억 + 융자
- 동양 최고의 명당절터로 최고의 기도터

054)334-4440

##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1층 포교원
- 삼존불, 소불
- 쑥뜸 치료 찜질방
- 주차 3대 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376-7242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수도권
- 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4천
- 위치 : 전통사찰
- 부지 : 15000평
- 법당외 전각 3채
- 주요 메인사찰
- 가액 : 상담후협의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 사 찰 ( 급 )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 양산(급)사찰

- 위치: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1350평
- 법당: 33평 산신각 및 용왕각 기타등등
- 버스주차장,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은행 안고 3억인수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직통 011-560-8522, 051-863-6622

##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상계동에서 15분
- (별내신도시인근,주차장 있음)
- 대500평, 건 147평(3개동)
- 2011년 재건축, 경관좋음
- 양도가격 : 17억 (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삼보

## 주택(절터)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주거지역
- 면적 360평, 건물 50평
- 가액 : 평당 200만원 (시세 절반 가격)

010-8676-2278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삼존불, 방2, 주방시설완비
- 텃밭 있습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법회가능
- 집세 1년 백만원, 시설비 600만원
- 건강상 급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세요

010-4582-2473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 80평
- 방, 주방,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주차완비

010-6505-0385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시 삼도 일동
- 지하 100평
- 관음, 지장, 소불 200불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2464-4579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신협 옆
- 평수 75평
- 2층건물 중 2층 독채, 시설완벽
- 삼존불, 지장전, 신중전, 삼성전
- 소불 108불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
- (주차장 운영수입 45만 발생)
- 시설비 3500만원

010-7601-6937

##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동고성 IC 5분거리)
- 벽방산 인근 • 산세 수려한 부지
- 면적 : 5,500평
- 시설 : 미륵불상(전라도 화강암, 7M, 20톤)좌대(자연바위 약20평), 유실주 약 150그루 주택1동(약30평),창고1동(약40평)
- 양도가격 : 4억5천만원 (미륵불상포함), 융자 1억6천만원
- 건강상 급 안내

010-9056-2451

## 천하 싼 집

- 위치 : 경북 영양 외딴 농가
- 건물 30평, 대지 100평
- 현대식 수리된 집. 도로
- 환경 계곡, 남향 최상급
- 3700만원 급 양도 선동기 가능

010-8899-8899

## 별장같은 아늑한 포교원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 거제시 양정동 936-96번지
- 아파트밀집지역 등산로 입구
- 대지 약 270평 건물 약 40평
- 1층 법당, 공양간, 방2, 욕실2
- 2층 방1, 주차장 약 30대
- 전세 8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비 1000만원
- 모든 비품 있으니 즉시 입주 가능

010-6393-5352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 시설, 환경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학장동
- 독채건물, 인법당, 석가, 관음, 지장, 산신각, 거실, 주방, 창고, 마당, 세면장, 화장실2개
- 육십년 된 암자
- 버스정류소 40m 아파트 밀집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1-768-1355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4층 5층
- 보증금 : 2000만원 시설비 : 2000만원 월세 : 50만원
- 온천장 요지, 시설완비, 주인직

010-3836-6566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월 77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 20년 포교,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1-309-3535

##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8억 8천만원

직)010-3858-8335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사진 열람)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010-2503-3899

## 포교원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전세 3천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 사찰터 최적지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오리
- 최정산자락,
- 임야 1천평,건물1동
- 최정산정상부분 자연형성
- 바위 불상3분(죄불 석가상,
- 입불 보살상, 좌불 보살상)
- 가액: 3억5천만원 (가칭 오동사)

010-7755-2661

## 사찰(급)안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
- 부지 : 527평
- 법당 : 33평(철근콘크리트조) 단청
-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 요사채 : 40평 (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기타 : 10평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CCTV)
- 가액 : 2억3천만원, 스님 건강상 최저렴한 가액으로 급 양도

010-2544-4848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
|---|---|---|
| 부 산 지 사 | 박 경 수 | 010-9819-8345 |
|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 010-2813-8008 |
|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 010-2629-1508 |
|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 011-9642-7733 |
|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 010-9373-3778 |
|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 011-870-0021 |

의식 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미국 정신의학자)

〈4 · 끝〉 마음 들여다보기

# 마음의 모든 경험 '내 것' 아님을 알 때 깨달아

### 의식의 진화

수천 번의 계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의식 수준은 한 생애 평균 5점 이상 높아지는 일이 거의 없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백만 가지의 개인적 경험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학습되는 교훈은 대개 몇 가지뿐이다. 지혜를 얻는 일은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그것이 부정확한 것이라 해도) 익숙한 관점을 기꺼이 포기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변화나 성장에 대한 저항은 상당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의식의 낮은 수준에 가둬 놓는 신념체계를 바꾸느니 차라리 죽으려 들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대 당 5점의 향상뿐일까?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힘든 질문이다.

무엇보다 세계 인구 전체의 의식 수준 분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인류 대다수는 진화 척도의 아래쪽에 있으며 자신의 실제적 무력함을 보상하기 위해 여전히 위력에 의존하고 있다.

의식 속에서의 상승 운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발적 태도다. 자발적 태도는 새로운 가설들의 타당성을 감정(鑑定)하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마음을 연다. 비록 변화하려는 동기는 인간 조건의 숱한 측면과 마찬가지로 무수하지만, 그것은 가장 흔히 마음이 어떤 수수께끼나 모순에 접해 도전받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진다. 사실, 일정 부문들(예컨대, 선禪)에선 앎의 도약을 교묘히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낸다.

의식 척도에는 큰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두 개의 임계점이 있다. 첫 번째는 200으로, 힘의 부여가 일어나는 초기적 수준이다. 이 지점에서는 비난을 멈추고 자신의 행동, 느낌, 신념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려는 자발성이 일어난다. 원인과 책임을 자신의 외부로 투사하는 한, 사람은 피해자역이라는 무력한 방식 안에 머물 것이다. 두 번째는 500 수준이다. 이 수준에 이르는 길은 사랑과 시비분별하지 않는 용서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사건에 예외를 두지 않는 무조건적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하는 데 몰두하면, 지각이 진화하면서 사람은 다른, 보다 온건해진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 홀로그램과 지각

태도가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과 세계를 경험하는 수많은 유효한 방식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홀로그램을 바라볼 때처럼, 무엇이 보이는지는 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위치가 '실상' 인가?

사실, 이곳은 홀로그램 우주다. 각각의 시점은 바라보는 이의 의식의 독특한 수준에 의해 규정된 어떤 위치를 반영한다. 만일 내가 홀로그램 이쪽에 있다면, 나의 지각은 저쪽에 있는 관찰자의 지각과는 거의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폭넓은 불일치에 대한 일반적 반응은, "그 사람 미친 게 틀림없어!"이다. 그리고 설령 세계가 거울로 돼 있다는 얘기를 되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진실이 아니다. 세계는 무한한 차원들을 갖는 홀로그램 세트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좀 더 잘 이해해 보기로 하자. 길 모퉁이의 '부랑자'를 상상해보자.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상류층 주택가에서 품위 있는 석조 건물에 홀로 몸을 기대고 있다. 다양한 의식 수준의 전망에서 노인을 바라보고, 사람과 관점에 따라 그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그 비일관성에 주목하자.

△의식 척도 밑바닥인 **20수준(수치심)**에서 부랑자는 더럽고, 역겹고, 창피스러워 보인다. **30수준(죄책감)**에서 노인은 그의 상태로 인해 비난받을 것이다.(저런 꼴을 당해도 싸지, 필경 게으른 복지사기꾼일 거야.) **50수준(희망 없음)**에서는 노인이 처한 곤경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그는 사회가 노숙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하는 꼼짝 못할 증거로 보일 것이다. **75(슬픔)**에서 노인은 비극적이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의식 수준 **100(두려움)**에서는 부랑자를 위험한 존재로, 사회적 위협으로 볼 수도 있다. (저 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몰라.) **125수준(욕망)**에서 노인은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문제를 대표할 수도 있다. (왜 누군가 뭔가를 하지 않는 거지?) **150(분노)**에서 노인은 난폭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끔찍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에 화가 치밀 수도 있다. **175(자부심)**에서 노인은 당혹스러울 수 있고 자신을 개선하려는 자기존중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200(용기)**에서 우리는 지역 노숙자 쉼터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는 동기를 갖게 될 수 있다.

△**250수준(중립)**에서 부랑자는 괜찮아 보이며 심지어 흥미롭게 보일 수도 있다. **310(자발성)**에서 우리는 길 모퉁이로 내려가서 그 양반이 기운을 내도록 하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지역 쉼터에서 일정 시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동기를 갖게 될 수도 있다. **350(수용)**에서 길모퉁이의 노인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는 우리가 결코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이유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다. **400(이성)**에서 그는 이 시대의 경제 사회 병리의 한 증상이거나, 아니면 심도 깊은 심리 연구의 훌륭한 대상자일 수도 있다.

△더 높은 수준들에서 노인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친근해 보이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다. 어쩌면 그 다음에는 그는 사실 사회적 한계를 초월해 자유로워 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연륜에서 오는 지혜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평온함을 간직한 유쾌한 노인 양반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600(평화)**에서 그는 우리 자신의 일시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마음 관찰할수록 겸손해지고
> 앎의 성장 일어나는 통찰 가능
>
> 인간 에고는 실제 '나'가 아니다
> '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천일 뿐
>
> 에고 초월해 본성을 인지한 순간
> 마음은 저절로 녹아 버린다"

마음은 자신의 내용과 동일시한다. 마음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영예를 얻고 비난을 뒤집어쓰는데, 허영스러운 마음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 경험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굴욕적일 것이다. 사실, 마음은 경험함을 경험할 뿐이다. 마음은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며, 그저 감각기관이 세계에 관해 보고할 뿐이다. 재기 넘치는 생각과 가장 깊은 감정조차도 경험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경험하는 단 한 가지 기능을 갖는다.

의식의 주된 한계는 그 무구함이다. 의식은 속기 쉽다. 그것은 모든 것을 들은 대로 믿는다. 의식은 하드웨어와 같아서 그 속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라면 무엇이든 구동시킬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의식의 무구함을 잃는 법이 없다. 의식은 인상받기 쉬운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순진하고 잘 믿는다. 의식의 유일한 보호자는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는 식별력 있는 앎이다.

마음을 관찰하기만 해도 의식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관찰되는 마음은 보다 겸손해지며 전지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앎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겸손함과 더불어 자신을 향해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의 피해자 대신 주인이 되어 간다.

우리는 나는 곧 내 마음 '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 신념, 느낌, 의견을 갖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이 의식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빌려 온 것 일뿐, 정말로 내 것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통찰에 이를 수도 있다. 우세한 사고방식은 받아들여지고, 흡수되고, 동일시되며,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속에서 유행하게 된 새로운 관념으로 교체된다. 그런 지나가는 개념에 가치를 덜 둠에 따라 그러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는 점진적인 마음의 자유를 경험한다. 이것은 차례로 즐거움의 새로운 근원으로 무르익는다. 사람이 의식 척도를 올라감에 따라 존재 자체의 즐거움이 어울리게 성숙한다.

### 결론

인간 존재는 우리가 온통 짊어지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다. 우리에게는 태어나게 해 달라고 청한 기억이 없다. 그런데 뒤이어 우리는 그토록 한계가 커서 삶을 고양시키는 것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을 상속받았다. 삶의 투쟁 전체는 이 근시안을 초월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의식이 이원성을 극복하고 더 이상 지상에 매이지 않는 지점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존재의 높은 수준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를 무지의 어둠 바깥으로 인도하는 타고난 나침반을 마침내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은, 초월하려는 우리의 집단적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 교활한 지성의 덫을 우회해 갈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어떤 것이 필요했다. 그 나침반은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뿐이다. 그것은 우릴 강해지게 하는 하늘나라와 정렬된 것이 무엇이고, 우릴 약해지게 하는 지옥과 정렬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 에고는 실제로 '내'가 전혀 아니다. 인간 에고는 '그것'일 뿐이다. 이 환상을 꿰뚫어볼 때 어떤 끝없는 우주적 농담이 드러나는데, 그 농담에서는 인간 비극 자체가 코미디의 일부다. 인간 경험의 아이러니는 분리된 개별적 '나'의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 에고가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가에 있다.

하지만 분리된 개별적 '나'는 형이상학적 불가능일 뿐 아니라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다. 인간 이성은 끊임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킨다. 설명 자체는 고급 코미디이며 사람이 자신의 뒷통수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다. 그러나 에고의 허영에는 한계가 없으며, 에고는 의미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도에 의해 한층 더 부풀게 된다. 에고와 동일시하는 마음은 정의상으로 실상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마음이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음은 자신의 환상적 본성을 인지한 순간 곧장 저절로 녹아 버릴 것이다. 마음이 에고를 초월한다는 역설을 넘어서야, 있는 것은 그것의 무한한 절대성 안에서 우뚝하고, 자명하고, 찬란하다. 그 다음에는 모든 말이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아마도 서로의 맹목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화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일 수 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목적은 여전히 모호할 수 있지만, 앞에 놓인 길은 분명하다. 인류의 의식 수준이 마침내 200을 넘은 상태에서, 우리는 인간 문명 전체에서 큰 변형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의 지식에 대해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점점 더 책임지게 되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집단적 앎의 진화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식 자체의 청지기 역할을 맡을 수조차 있는 지점에 와 있다. 인류는 더 이상 무지의 대가를 수동적으로 치르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류의 공유의식은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대부터,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때 그의 운명은 확실할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판미동'에서 펴낸 〈의식 혁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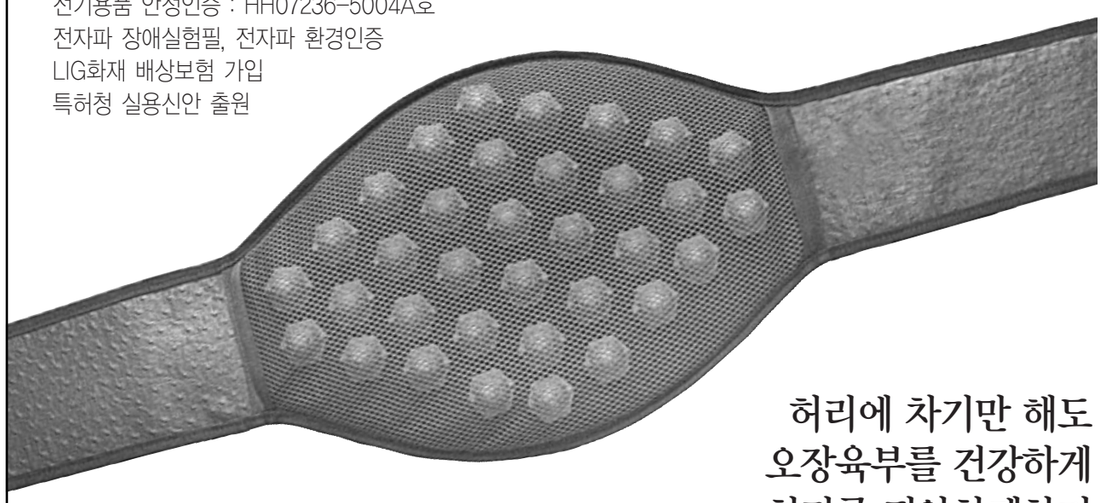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법의 이치와 계율이 성취되면 천상에 나리라”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51)

### 비사라는 나쁜 귀신이 부처님을 만나서 깨치다

발기국에 비사라는 귀신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포악해서 날마다 수십 명씩 백성들을 죽였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했다.

“이 나라를 피하여 멀리 다른 나라로 갑시다.”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나라로 간다 해도 끝내 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자진해서 날마다 한 사람씩 바친다면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때부터 발기국 사람들은 날마다 돌아가며 한 사람씩을 그 귀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귀신이 잡아먹은 사람의 유골이 계곡에 쌓여갔다. 그때 선각이라는 장자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재물이 넉넉하고 보물이 많았었다. 그에겐 나우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차례가 되어 하나뿐인 아들을 재물로 바쳐야 했다. 부모는 아들을 목욕시킨 뒤에 좋은 옷을 입혀서 귀신이 있는 데로 갔다. 통곡하며 한없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여러 귀신들과 다른 신이시여, 모두 함께 증명하소서. 저는 이 아들 하나뿐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보살피어 재물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석제환인과 범천왕이시여, 모든 여래의 제자로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 벽지불이시여, 그리고 여래시며 가장 높고 어진 복밭이시여, 여래보다 뛰어난 이가 없으시니, 여래께서 살펴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들을 재단에 올려놓고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 천안과 천이로 보고 들으시고 신족의 힘으로 설산의 북쪽에 닿아 귀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가부를 틀고 앉아 계셨다. 이때 어린 아들이 멀리서 여래의 광명이 반짝거리며 32상과 80종호로 그 몸이 장엄되었음을 보고 환희심에 넘쳐 말했다.

“여래의 광명을 보았으니 미련 없이 귀신의 재물이 되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우라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여래다. 너를 구제하고 귀신을 항복시킬 것이다.”

나우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했다. 이때 세존께서 그를 위하여 미묘한 이치를 말씀하시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티끌과 때가 다하고 법안의 깨끗함을 얻었다. 그는 부처님의 법을 보고는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았다.

그때 나쁜 귀신이 재물을 거두러 오다가 세존께서 단정히 앉아계신 것을 보게 됐다. 귀신은 화를 내면서 비와 우레와 벼락을 치며, 칼을 비처럼 내리기도 했으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여래께서 신통을 써 모두 연꽃으로 만들어버렸다. 또 갖가지 신력을 내렸으나 여래께서는 모두 굴복시켜 그를 항복시켰다. 그러자 귀신은 부처님께 그리 할 수 있는 깊은 이치를 물었다. 그리고 만일 대답하지 못하면 그의 두 다리를 붙잡아 바다 남쪽에 던져 넣겠다고 부처님께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간에 나의 두 다리를 붙잡아 바다 남쪽에 던질 수 있는 이는 없다. 묻고 싶으면 물어라.”

귀신이 물었다.

“어떤 것이 옛 행(故行)이며, 새 행(新行)이며, 행의 사라짐(行滅)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들거라. 눈(眼)이 옛 행이다. 옛날에 지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행이 이루어진 것이니, 귀, 코 입, 몸, 뜻 이것이 옛 행이다. 지금의 이 몸으로 짓는 몸의 세 가지와 입의 네 가지와 뜻이 세 가지인 이것이 새 행이다. 그러므로 알라. 옛 행이 사라져 없어지고 다시 일으키지도 않고 행을 짓지도 않으면서 이 행을 잘 가져서 영원히 나지도 않으며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게 되면 이것을 행의 사라짐이라 한다.”



삽화 · 강병호

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 저의 재물을 돌려주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내가 보살이었을 적에 어떤 비둘기가 나에게 몸을 던졌을 때도 나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비둘기의 액을 구제했는데 이제 여래가 되어 이 아이를 너에게 먹히기 하겠느냐? 너는 가섭불때에 일찍이 사문이 되어서 범행을 닦아 지니다가 뒤에 계율을 범했으므로 지금 나쁜 귀신으로 나게 된 것이다.”

그때 나쁜 귀신은 부처님의 거룩한 신력을 받아 문득 옛날에 지었던 모든 행을 기억해내고는 바로 세존께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이제 어리석고 미혹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업을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여래께 아뢰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참회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시자 그 나쁜 귀신은 손수 수천 냥의 금을 세존께 올렸다. “제가 이제 이 산골짜기를 사방의 스님들에게 보시하니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받아주십시오.”

세존께서는 귀신의 보시를 받으시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동산의 열매로서 보시함이 청정하고 / 나무로 교량을 만들며 / 큰 배를 만들어서 / 살림하는 도구들을 베풀겠구나. / 밤이나 낮이나 게으름이 없으면 / 얻게 되는 복이 한량없을 것이며 / 법의 이치와 계율이 성취되면 / 마지막엔 천상의 나리라.”

귀신이 말했다.

“다시 무슨 가르침이 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본래의 형상을 버리고, 세 가지 가사를 입고 사문이 되어 발기성으로 들어가 대중들에게 ‘여래께서 세간에 나오시어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시어 해탈을 얻게 하십시다. 가장 높고 어진 복밭께서는 지금 나우라 어린아이를 제도하시고, 비사라는 나쁜 귀신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대들은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라.”

비사 귀신은 발기국으로 가서 부처님이 시킨 대로 했다. 그때 나우라의 아버지 선각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8만 4천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세존께로 갔다.(〈증일아함경〉 제8권에 나온다.) 〈끝〉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 바라밀 일기 ㊿



# 정리와 회향의 시간

**묵은 살림살이를 정리 하면서**

벼르고 벼르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됐다. 17년이나 된 부엌살림을 오래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자의반 타의 반으로 실천하지 못했었다.

일을 벌리고 보니 생각보다 일이 컸다. 구석구석 채워져 있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하니 끝도 없이 나왔다.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이 줄줄이 나왔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려야 할 물건들, 나누어 주어야 할 물건들, 그러나 쓰지도 않으면서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옛날 큰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밥그릇이며 큰 밥솥과 냄비와 수저와 그릇들, 제사 용품 등등 댕그라니 남은 두 늙은이 살림살이로는 많은 물건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짐’ 일뿐이었다.

우리집엔 늘 손님이 많았다. 그때 손님을 치르기 위해 장만했던 그릇들이 쌓여있다. 쌓여 있는 그릇들이 그 옛날을 생각나게 했다. 늘 집안이 북적이던 그 옛날이 떠올랐다. 그리고 정다운 인연들이 떠올랐다. 그릇들을 그 인연들에게 한 벌씩 나누어 주기도 했다.

너무 깊은 곳에 보관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 같은 것들도 나왔다. 십년이 훨씬 넘은 매실 액기스며 보리똥술, 그리고 가지가지 담근 것들이 진하게 묵어 있었다. 어쩌면 욕심이라고 말 할 수 있겠으나 늘 손님맞이를 즐겨했던 우리 집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다.

공사가 끝났다. 깨끗이 단장된 부엌가구들을 어루만지며 새집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다. 힘든 공사였지만 교훈을 얻었다.

공사로 인해 꺼내지게 된 물건들 중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골라 지인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남편도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외투하나를 넣어 주었다. 기왕이면 좋은 걸로 보내서 받는 사람이 잘 입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정 스님 말씀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음이 참 보시일 것이다.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고 버릴 것은 수거함에 버렸다. 재활용품을 버리고 올라오다 위층에 살고계시는 팔순이 넘은 할머니를 만났다. 그 부지런하시고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걸음도 좋지 못하시고 안색도 예전만 못하셨다.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 말씀이 “나도 얼마 전까지 중품은 됐었는데…” 하신다. 나는 “지금도 중품 이상입니다.”고 답해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시절인연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불편한 모습이지만 말씀 하나하나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생각 하나하나가 아직도 정정했다. 머지않아 내 모습도 저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집안에 아직 남아 있는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보였다. 늘 놓아버려야 한다고, 비워야 한다고 배우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소유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삶으로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다. 그러다보면 가진 것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꼭꼭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치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늘 길을 비워놓은 산처럼 살아야겠다.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산처럼 살고 싶다. 봄이면 꽃피고 새 울며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더위를 가려주며, 가을이면 형형색색 단풍잎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겨울에는 마른 솔방울 떨어뜨리며 무정법문을 하는 산처럼 살고 싶다.

묵은 짐을 덜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묵은 짐 속에서 옛날의 기억을 꺼내보듯 한 동안 방치하고 살았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나로 인해 마음 아파했거나 불편했던 인연이 있었다면, 나 또한 편치 않은 사연들이 있었다면 이참에 참회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마음 모두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다. 묵은 짐을 정리하며 나의 묵은 마음들도 정리해본다.

**연재를 마치며**

2013년 새해부터 쓰게 된 ‘이대원성의 바라밀 일기’가 회향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한편 섭섭하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겁 없이 달려들었던 일이었다. 글을 쓰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대책 없이, 그것도 교계 큰 신문에다 글을 쓰기로 했으니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음을 지금에야 알 것 같다.

어느 날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신문사 편집 담당자로부터 원고 독촉을 받고 너무 놀란 적이 있다. 연재를 시작한 것이 후회되고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메워 나갈 지 막막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마무리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내 부족한 글을 읽어 준 지인들과 독자들에게 죄송스럽고 감사하다. 연재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왔음에 감사하고 오랫동안 소식이 뜸해 궁금했던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상찬을 들으며 지낸 지난 한해는 내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준 한 해였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툴고 부끄러워 남에게 알리지도 못했었는데 차츰 주변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임을 알게됐다. 그 때 마다 글을 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 글을 보면서 시간 낭비가 되었다면 도리어 죄를 지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작은 공감이나마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 생에 최고의 선물로 간직하고 싶다. 그 동안의 이야기가 진정 ‘바라밀 일기’ 였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쨌든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지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서툰 글들을 교정해주시느라 고생하신 현대불교신문 편집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이대원성 합장. 〈끝〉

**부산 연꽃모임회장**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대행 스님



# 수십억의 의식들을 내 한마음으로 귀결을 지어라

**이것도 기복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

**문)** 저는 엄마와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엄마는 아파서 드러누워 있고, 때문에 제가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서 관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관하고 맡기다 보면 이것도 기복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기복이라는 건 상대를 두고 믿는 거를 기복이라고 그러죠. 절대 상대를 두고 믿는다면은 그건 기복이에요. 그러나 이게 불성, 생명의 근본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데 마음 쓰는 거라든가 차원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모든 게 다르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받을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물을 이쪽 컵에서 이쪽 컵으로다가 부을 때에 컵이라도 들고 있어야 이게 받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쪽 컵에 있는 물도 이쪽 컵으로 한데 옮기면 그냥 한 그릇이 돼 버리죠.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하는 도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냥 저쪽 주인공으로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을 줘 버리고…. 이게 바로 손을 폈다가 오그렸다 하는 도리에요. 이게 중용입니다. 작용이 아니라, 활용이 아니라 중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엄마가 하나가 돼 버리고, 엄마 마음을 나한테로 넣으면 내가 하나가 돼 버려요. 이 도리를 모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수만 개를 갖다 넣어도 그 마음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만 개를 꺼내 내도 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 이 어마어마한 도리를 모두 실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되겠기에 이 '되돌려 놔라' 하는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고 작업을 해라. 이 내가 나를 발견치 못하면, 부(父)와 자(子)가 한데 상봉을 못한다면 어떻게 자가 부로 가면은 부가 하나가 돼 버리고, 부가 자로 오면 자가 하나가 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그 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하는 법을 똑똑히 가르쳐 드리세요.

모든 가정에서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다 주인공에다 놓고 용도에 따라서 굴릴 줄 아느냐. 거기다 맡기고 지켜보고, 용도대로 거기다 맡기고 또 지켜보고. 그저 믿으면은 맡길 수가 있지만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날 '주인공! 해 주시오.' 한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벌써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둘이 있을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느냐. 이 전구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전력이야 어찌 둘이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현실에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차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 의해서 그 업식이, 죽어도 업식은 꼭 따라다니거든요. 그 업식이 고만 조절이 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입력을 해서 넣어서 빼 쓰지마는 이 자동적인 컴퓨터는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입력된 거니까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돌려서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얼마나 쉽고 빠릅니까.

그러니까 그 입력되는 대로 자꾸 앞서 한 거 없어지고,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한 발 딛고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딛고 한 발 없어지고 하듯이 말입니다. 되돌려 자꾸 믿고 '아, 내가 하는 것 다 거기서 하는 거다.' 이런다면 그냥, 들어가는 대로 다 그냥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또 들어가고 또 없어지고 또 들어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홀연히 그릇이 비고 그러면은 홀연히 내가 나타난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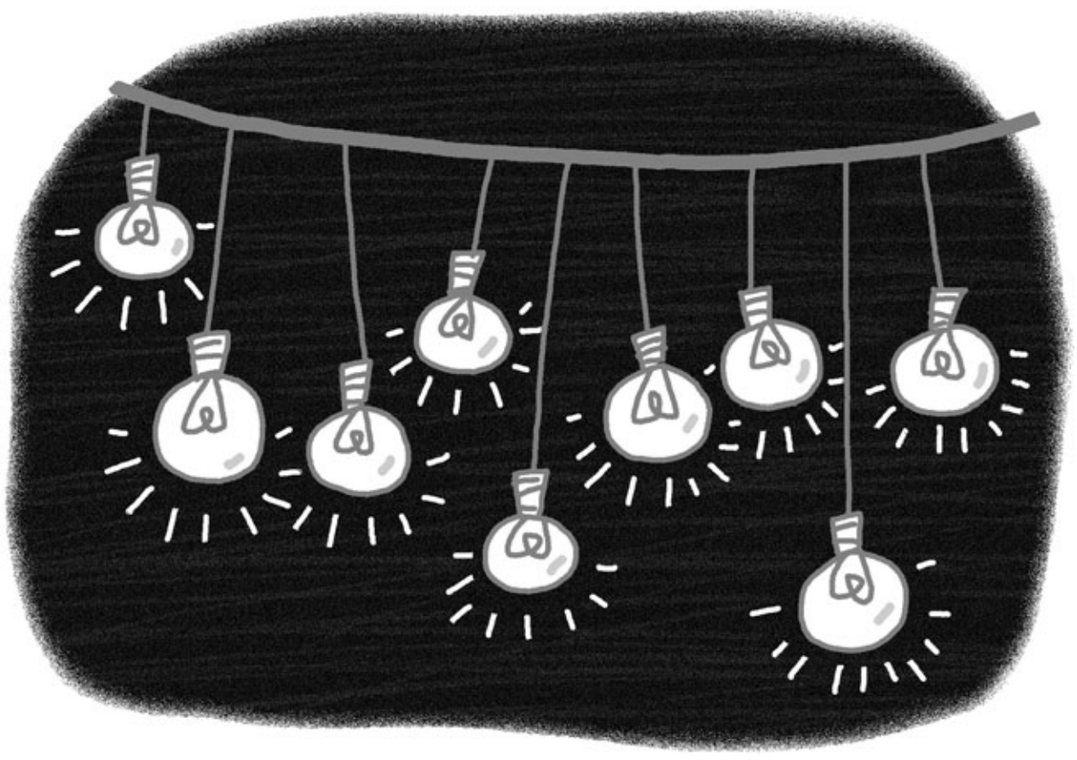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여러분이, 늙었든 젊었든 애들이든 다 이 정신계의 50%를 충당해야 됩니다. 지금 병원도 있지만 한 35%밖에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65%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여러분이 다 충당해야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병 증세를 하나 연구해서 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친다 하더라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을 제거 못 시키면 그것이 또 딴 걸로 화해 버린다 이겁니다. 딴 걸로 화해서 재난이 돼 버려요. 이건 학술적인 거하고 이론적인 거하고,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의학이지, 즉 말하자면 심성의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이것이 왔느냐는 걸 모르기 때문에 100%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생명과 의식과 모습들이 들어 있다고요. 그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증거다. 미생물에서부터 그냥 온 것이 증거이고, 내 몸뚱이가 지수화풍이라는 것도 증거다. 그 증거가 바로 내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몸뚱이 속에서, 한 파워에서, 즉 말하자면 공장이라고 한다면 심장 공장이라든가 간장 공장이라든가, 대장 소장 척수 척추, 방광 콩팥…, 이 모든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장들에서 한 공장만 망해도 이 몸뚱이는 다 쓰러져 갑니다.

그러니깐 이 내 몸뚱이 속에 중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놔서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 아님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보세요. 위 공장도 자기 공장이요, 자기요, 세균 하나하나도 자기 아닌 게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하여 들고 나면서 파워를 일으키면은 몸뚱이가 그대로 가 버려요. 그러니깐 모든 걸 종합해서 이 몸뚱이 속의 수십억의 그 의식들을 내 한마음으로서 귀결을 지어라 이겁니다. 귀결 지어서 돌아가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깐 이름들을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실천궁행하는 데에 노력을 해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체험해라 이겁니다. 옆의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실험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글로 줘서 '참, 주인공!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잖아. 네 몸 네가 이끌고 건강하게 끌고 가야잖아.' 하고 던져 놓고 지켜본다면 거기서 알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주는 방식과 나한테로 넣는 방식이 있어요. 소나 짐승들이나 닭이나 이런 거를 모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나한테다 전부 넣어 버리는 거죠. 그게 모두, 즉 말하자면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거하고 짐승이 모르는 거하곤 또 달라요. 그냥 넣는 것이 넣을 자리가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다 맡기지마는 때에 따라선 그 주인공에다

☞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이름 가지고 논의 말고 실천궁행하는 데 노력하세요

☞ 29면에서 계속

그냥 줘 버리는 겁니다. 둘이 아니니까. 일로 와도 둘이 아니요, 절로 가도 둘이 아니거든요.

심려가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이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고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이고, 이게 또 닥쳤구나.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그냥 벌렁 나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그냥 벌렁 나자빠져요. 자기 말대로, 생각대로.

그러면 병이 들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그걸 여여하게 '흥! 가져 갈 것도 없고, 가져 온 것도 없는데 뭘 그래? 너 알아서 네가 잘 끌고 다녀라. 네 심부름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턱 맡기고 여여하게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야만이 여기 육체 속에서 의식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굴려주는 겁니다. 그럼 병 안 드니 좋지, 가정 화목하니 좋지, 다시 일어나니 좋지. 아, 그게 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생겨서 들고 나는 걸 모르고, 높고 낮은 걸 모르고, 길고 짧은 걸 모른다면은 100%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지 말고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면은 되는 거지, 산란하게 사단을 하면은 똑바로 집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부들 하세요. 해 보세요, 한번.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세요. 얼마나 고교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잘 넘기면서 직발 활을 쏘도록 하는 그 심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 몸을 받아야 하나요?**

**문)** 큰스님 말씀이나 경전을 보면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도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인간 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일까요?

**답)**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생명들을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이 몸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 모습, 의식들은 나쁘고 좋은 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게 인간이 돼야만이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립니다.

마음 하나 바꿔 놓으면 부처 될 수 있는 것이 100%다. 또 마음 하나 요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를 두고 인간이 중생이다 부처다 이러는데, 이 인간이 되기 이전에 짐승이다 이런다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꾸자꾸 올라오면서, 또 인간이 잘못했을 때는 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도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됐다고 해서 끝간 데 없는 진리를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따라서 인간이 짐승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인간 되기가 참 어렵다. 우리는 부처 되기 어렵고 짐승들은 인간 되기 어렵고 그런 거죠. 미생물에서는 또 날아다니는 짐승이나 육지에 다니는 짐승 되기가 어렵고. 그게 습이 돼서, 살던 습이 자꾸, 이 뱀 소굴을 봐도 뱀으로 살던 습이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을 털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나가는 습을 우리가 길러야지, 선덕을 쌓아야지, 이거는 악덕으로 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가지고는 외려 짐승의 모습을 타고나게끔 자기가 자처한단 말입니다. 이 모습이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틀림없이 이렇게만 하면 된다. 남한테 이익하게 생각을 해 줘라. 이익하게 행동해라. 이익하게 말해라. 또 없는 것을 좋은 일 한다고 꾸어서까지 주는 거는 그것은 미덕이 아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환경의 모든 것을 따라서 주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부처 되기가 어려운 것은 마음 하나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바깥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안으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거기다가 맡겨 놓고, 영원한 친구, 친구라고 그래도 되죠. '영원한 친구여! 네가 이날까지 나를 이끌어 왔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되는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이끌어 가기도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도 하고,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 생활 속에서 이 마음도리를 공부하면서 실험하고 체험해보세요.
>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 어렵더라도 잘 넘기면서
> 직발 활을 쏠 수 있는 심력을 기르도록 하세요.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은데**

**문)** 세상을 환히 비추는 달과 같이 저도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요.

**답)** 내 내면의 한 영원한 불성 자체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고 또한 '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히 가졌을 때에 그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서 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가고 옴이 없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이 없이 하는 것이고, 생각 없이 또 생각하고, 또는 말 없이 말을 하고….

이 부처님의 평발이라는 것이 어째서 평발이라고 했는가. 저 땅 밑에 기어다니는 진드기 발 하나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발이에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부처님의 마음이 들고 나지 않으면서 들고 나면서, 들고 남이 없으면서 항상 한마음이 되어 주시고 한 몸이 돼 줬기 때문에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한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 생각을 내니깐 보살이 되고, 보살이 되니깐 법신이 되고, 법신이 되니깐 보살이 되고. 이렇게 행하면서 그 행함이 없이 행하는 것이, 천백억화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선 약사가 되고 때에 따라선 관세음이 되고 때에 따라선 지장이 되면서, 때에 따라선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약사가 되고, 용신이 되고 지신이 되면서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로운 점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생활해 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생활도 참선이니까,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모두 그 마음들이 당당하고 도도하게 물이 흐르듯이, 그저 이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나고 우주 법계를 두루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 눈에 들을 수 있는, 또는 가고 옴이 없이 한 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만히 이어져서 모두 가설이 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고, 나부터 모두 믿고 나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이끌어 나가고, 내 몸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해요. 거기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거기서만이 물리를 터지게 해 줄 수 있어요. 그 영원한 당신네들 친구니까. 수없는 과거의 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진화를 하고 이날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에요. 그 장본인부터 알아야 모든 바깥의 일들을 전부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도둑을 당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문)** 얼마 전에 다행히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잡혀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좀 달리 마음을 내야 되는 건지요.

**답)** 옛날에 어떤 도둑이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큰 배에서 훔쳤는데 그 배에 있으면 붙잡히기가 딱 참하거든요. 그래서 쪼그만 쪽배로다가 남의 배로 탔어요. 탔는데 어느 선지식이 그 큰 배에 탔는데 다 알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도둑의 내력을 보니깐 아주 비참하게 살았고 비참한 행동으로서 그렇게 됐더라는 얘기죠. 알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상 탓으로도 들어가고 인연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묘한지 한 번도 붙들려 들어가 본 예가 없었답니다, 그 도둑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도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둑이 조금 붙은 거를 떼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로 도둑질을 했는가. 이거를 알아보면은 불쌍하기가 한량없거든요. 도둑질을 왜 했겠느냐. 먹기 위해서 했다. 식구들을 다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붙잡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깐 도둑이라고 해도 도둑이 아니죠,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법에는 빵 하나를 훔쳐도 도둑이라고 몰고 갖다 가두지마는 이 부처님 법에는 도둑질을 해도 이걸 잘 간파해서 보고 정말 도둑질을 했다면 그런 도둑질하는 의식을 떼어서 다시 그걸 바꿔서 좋은 사람으로서 나가 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를 도둑질 안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 건진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이 부처님 법에는 너는 나쁘니깐 유치장으로 가거라. 너는 좋으니깐 좋은 데로 가거라. 이게 아닙니다. 유치장으로 갈 사람도 유치장으로 안 가게 할 수 있는 게 보살의 응신이요, 또 이 지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끝끝내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응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라 이러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야 그 뜻이 자유스러워지고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귀신 방귀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다 누구나가 고르게 다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남을 조금도 해롭게 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화엄경에 이렇게 잠깐 보니깐 말입니다, 옆으로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그 은혜가 말도 못하고, 옆으로 가다 손만 만져도 그 은혜가 말도 못하고,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의 그 죄명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남을 원망 안 하고 남을 미워 안 하고 남을 악설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 그거를 알겠습니까. "너희들, 이 소리를 거짓으로 알지 말고, 이거를 진정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가 진정코 보살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먹기 위해서 모두 언짢은 일이 생기고 죽이고 살리고 이 일이 생기지 먹고 사는 거 아니라면은 왜 싸움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이 벌레들도 싸우고 그러다가도 자기 몸이 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먹을 거를 그냥 두고 떠납디다. 돌아서서 떠나더라고요. 개미도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 못할 거라면 그냥 떠나면 되지 그거를 악착같이 뺏어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러니깐 도둑이 이렇게 붙잡히지 않아서 그러지 마시고 너는 이번 내가 생각한 대로 이번만, 어차피 했으니까 '이번만 붙잡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저 어떡하든지 살아라. 못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게.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전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송년 에세이

# 니르바나의 노래



수필가 맹난자

**"설산 동자가 나찰에게 들은 '적멸위락' 가슴에 품고 色을 空보듯 내 존재를 본다"**

니르바나는 "훅 불어서(吸) 끈다"는 범어로, '적멸(寂滅)' 또는 '열반'으로 번역되며, 번뇌의 드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생사와 열반,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도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열반이란 절대로 태어나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재생(윤회)하지도 않는다."(〈밀린다경〉)고 한다. 재생(再生)을 멈추게 한다는 열반(니르바나)에 관심이 증폭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뿐인 이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태어나는가? 궁극에는 어디로 가는가? 윤회는 무엇이며, 그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구경처인 니르바나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품고 선지식을 찾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도 했다. 2500여 년 저, 인도의 가비라국에서 태어난 싯다르타 태자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결행했고 6년 동안 극심한 고행과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의혹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갔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무엇에 연고해서 노사(老死)가 있는 것일까? 아!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 태어남을 인연해서 바로 늙고 죽는 것이 있는 것이다.

무명을 윤회의 원인이라고 한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비구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에도 답은 같았다.

"윤회의 근본은 우치(愚癡)입니다.…우치가 생기면 식(識)이 생기고…은애(恩愛)에서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은애와 탐욕은 욕망과 집착을 말한다.

"욕망은 무명의 근본, 온갖 고뇌를 일으키나니…."(〈증일아함경〉)

"무명에 덮이고 욕망의 결박에 묶이어 긴 밤(많은 생) 동안 윤회한다."(〈잡아함경〉)

이렇게 무명과 욕망의 결합되어 윤회의 주원인으로 나타난다. 무명 때문에 사람들은 현생에서 선과 악을 짓고 후생에 다시 태어난다. 무명이 찾고 욕구하는 것,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그 욕망 때문에 탐욕과 은애에 빠져 재생과 늙음과 병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무명은 윤회의 제일원인이고, 욕망은 그것의 이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회는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붓다는 도를 이룬 뒤 최초의 설법 때부터 "욕망이 고(苦)의 원인"이라고 되풀이하여 가르쳤다. 고를 발생시키는 고(苦)의 원인인 욕망의 제거. 그것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 욕망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我)가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욕망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사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욕망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모든 욕망을 낳는 욕망의 어머니"라고 〈잡아함경〉은 말한다.

그리하여 고(苦)의 원인인 아(我)에 대한 추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내가 없다는 무아(無我)를 깨닫기 위하여 〈반야심경〉에서는 인연법의 현상이 모두 공(空)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5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알아 일체의 고액에서부터 벗어났다.'가 그것이다.

〈반야심경〉은 5온, 12처, 18계와 12연기, 4성제와 그 깨달음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차례차례로 부정하며 잘못된 견해를 파사(破邪)해 나간다. 그러므로 5온의 공(空)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 언덕에 이른다는 것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계를 '진공묘유(眞空이면서 妙有)'로 설명한다.

### 일체가 오직 식(識)일 뿐

우리가 실유(實有)라고 여기는 현상세계는 사실 우리의 심층 마음이 형성한 허상일 뿐이며 가유(假有)라고 주장한다. 이 세계는 마음이 형성한 것, 마음이 그린 영상일 뿐이기에 마음 내지 식(識)과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일체가 오직 식(識)일 뿐이라는 '유식(唯識)'을 말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유식이 성립하는 것은 우리의 식이 표층적 의식에 그치지 않고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심층의 마음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심층 활동이 그 대상을 덧칠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상은 없고 오직 마음뿐인 '유식무경(唯識無境)'이라 한다. 만법은 유식이다. 마음이 만든 걸 아는 게 깨달음이다.

식(識)은 명색과 상호의존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이룬다. 사후(死後)에 한 개체의 재생을 가져오는 것은 업(業의 형성력)에 의해 조건 지어진 식 때문인 것이다. 전생(轉生)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업과 과보(果報)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짓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업과 과보가 있겠는가?

〈장아함〉은 말한다.

"업과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 이 존재가 사라지면 다른 존재가 계속한다."

실재적인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相續)은 존재가 죽어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그것은 자립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 속에 계속의 원리가 있고, 그것은 업에 의해서 계속되기 때문이다.

업은 의도다. 생각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끊어진 마디마디가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흐른다.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려면 '강'이나 '개울'이란 비유가 적절할 것이다…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또는 주관적 삶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식=주관적 삶의 흐름.

비유하자면 우유가 변하여 낙(酪)이 되고, 낙은 생소(生 )가 되고 생소는 숙소(熟 )가 되고 숙소는 제호(醍 )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새로 태어난 존재는 죽은 존재가 남긴 결과이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상속 이론에서는 죽은 자는 다시 태어나는 자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나타나자마자 저절로 그리고 즉시 사라져 버리므로 아무것도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은 누가 주재하는가? 유식에서는 내 스스로 내 업보에 의해서 내가 주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식(識)의 공함을 알고 사량분별을 멈추며 업과 번뇌가 말끔히 없어짐으로써 해탈이 있게 된다. 업과 번뇌는 사유 · 분별로부터 생겨난다. 그러한 것들은 공을 이해함으로써 없어진다."는 〈중론송〉의 말씀이 크게 다가온다.

앞으로 21세기의 사유는 무와 공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하이데거의 말이 아니더라도 공을 아는 일은 중요하다. 그는 '무의 사유'를 닥쳐올 미래적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아뢰야식으 전변에 대한 통찰은 내몸이 있다는 유근신, 그리고 기세간, 자아와 세계가 공이라는 것, 즉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밝게 증득함으로써 무거운 장애(번뇌장과 소지장)를 끊고 뛰어난 증과(해탈과 보리)를 얻게 함에 있다. 연기된 식의 공함을 알고 그 모든 게 마음의 투사일 뿐, 실재(實在)가 없는 가유(假有)로서 그것은 꿈일 뿐, 아뢰야식의 전변(轉變)이라는 알아차림은 마침내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 자유인이 되게 한다.

윤회의 주체인 아뢰야식의 공함을 깨닫는 순간 고(苦)로부터의 해방이다. 붓다가 출현하신 진정한 목적도 이고득락(離苦得樂), 여기에 있었다.

생멸이 없어진 자리.

적멸(寂滅) 그대로 즐거움이다.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니르바나의 노래이다. 이것은 나찰이 설산동자에게 들려준 게송이다. 부처님의 전신인 설산동자는 만행을 다니던 중 아래의 게송을 듣고 무척 기뻤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은 났다(生)가는 사라지는(滅) 법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

설산동자는 다음 구절을 기대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람을 잡먹는 나찰(악귀)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에게 후렴구를 간청하자 그 나찰은 배가 고프다며 설산동자의 몸을 요구했다. 그 조건에 응한 동자는 '생멸멸이 적멸위락'의 후렴구를 듣고는 곧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 나찰을 향해 몸을 던졌다. 순간 나찰은 제석으로 변하여 설산동자를 받아 안았다.(〈대열반경〉) 마음 작용이 사라지고 나면 열반이다.

적멸위락. 이 네 글자를 요즘 가슴에 품고 지낸다. 몸을 버릴 나이에 가까워지니 공을 모르면서도 공으로 나아가게 된다. 색 그대로 공을 보듯, 무상한 내 존재를 그대로 본다. 여기에 따라붙을 호오(好惡)가 없다.

내가 올라탄 거미줄이 음표처럼 출렁였다. 때론 이슬로 '반짝' 했다. 그 위로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다. 헐거워진 나사처럼 불편한 대로 남은 생을 껴안고 삶을 좋아하지도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으련다. 두더쥐처럼 어두운 땅굴을 헤쳐나오는 데 한 평생이 걸렸다. 훤하게 밝아오는 새벽. 그것과 마주하는 이 조용한 기쁨, 내가 살아서 누리는 전부가 아닌가 한다.

이 글은 맹난자 수필집 〈나 이대로 좋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社說

# 배려와 나눔이 넘치는 세밑

우리 삶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반대로 삶의 여유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경기 불황에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연말 온정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배려와 나눔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재미있는 정부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세 이상 국민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설문조사 결과를 12월 18일 발표했다. 이 설문 조사중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절대 다수 응답자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들었다. 10점 만점에 무려 8.7점을 기록했다.

극심한 불황과 구직난 속에 나 아닌 타인을 '동반자' 대신 '경쟁자'로만 인식해 멀리하려는 세태를 반성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55.4%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가져오는 폐해를 성인들은 극심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배려와 나눔은 빈부를 떠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빈자일등(貧者一燈)' 정신은 배려와 나눔을 상징하는 중요한 일화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등불을 공양한 가난한 여인의 선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 선행에는 부처님에 대한 애경과 더불어 남을 위한 철저한 배려와 나눔이 담겨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013년도 이제 5일에 채 남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함께 켜 보인 '빈자일등'으로 이 각박한 사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 불교계 마음 힐링 새해에도 기대

올 한해 불교계의 트렌드는 바로 '힐링'이었다. 올해 초 힐링 멘토인 법륜 · 혜민 · 마가 · 정목 스님은 조계사서 힐링법회를 열었으며, 이들이 펴낸 책들은 올해 베스트셀러 자리를 꾸준히 지켰다.

또한 이들은 SBS등 공중파에 잇달아 출연해 힐링을 통해 불교 포교를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힐링 멘토들에 의해 불붙기 시작한 이런 열풍은 불교계 전반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

동산불교대에서는 올해 선명상학과를 개설했고, 동국대 평생 교육원 마음치유사 과정은 일반인들의 교양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5대 1의 경쟁을 뚫고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도 두세달치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 교육원도 양산 통도사서 벤치마킹해 갈만큼 마음치유는 가장 각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본지도 마음산업을 올 신년특집으로 시작해 연중기획으로 연재하며, 힐링을 불교계의 트렌드로 정착시키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불교기자협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마음치유 열풍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기복 불교가 만연되는 한국불교 신행풍토 개선에 마음치유가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학불교 이성불교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 비춰 실생활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치유 명상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행법이며, 불교의 신행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조계종 포교원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전국 사찰을 돌며 '국민행복 힐링투어'를 진행한다고 하니 힐링 열풍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 2014 마음 다이어리

2014 마음 다이어리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어요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푼
경전의 소중함

4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 크기 : 가로 14.8㎝ × 세로 20㎝
♥ 가격 : 12,000원

구입처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각 지원 종무소
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